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38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민보경, 허종호, 이채정,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연구진

내부연구진

민보경 부연구위원

허종호 부연구위원

이채정 부연구위원

박성원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정윤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심재만 고려대학교 교수

이옥태 한국방송대학교 교수

김솔이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우리 사회는 저출생,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최근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복합적인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유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세대인 미래 세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일은 무한한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가려져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하기 위한 주기적 가치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도출하여 국민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특히 미래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가치체계를 세대별·이슈별로 확인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국민 가치관의 이해를 전제로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주기적으로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가치관을 조사하여 국민 가치관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5 |
| | |
| 제2장 미래 가치관 조사의 의의 | 9 |
| 제1절 미래 가치관의 개념 | 11 |
| 1. 가치의 개념 및 특징 | 11 |
| 2. 가치체계 유형 | 12 |
| 3. 미래 가치관의 개념화 | 17 |
| 제2절 미래 가치관 조사의 필요성 | 19 |
| 1. 한국 사회 주요 가치의 흐름 | 19 |
| 2. 현재세대(성인)와 미래세대(청소년)의 가치관 | 20 |
| 3. 미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22 |
| | |
| 제3장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 25 |
| 제1절 조사 개요 | 27 |
| 1. 조사 설계 | 27 |
| 2.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 28 |
|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 31 |
| 1. 미래에 대한 인식 | 31 |
| 2. 개인과 가치관 | 45 |
| 3.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 | 52 |

| | |
|----------------------------------|------------|
| 4. 사회와 가치관 | 62 |
| 5. 국가와 가치관 | 82 |
| 제3절 미래세대의 가치관 | 138 |
| 1.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 | 138 |
| 2. 미래세대의 특성 | 141 |
| 3.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47 |
| 제4장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의 변화 | 149 |
| 제1절 위기와 가치관 | 151 |
| 제2절 가치관 변화 양상 | 154 |
| 1.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 154 |
| 2. 코로나19와 사회적 배제 | 158 |
| 3. 코로나19와 정책관 | 163 |
| 제5장 결론 | 169 |
| 제1절 연구 요약 | 171 |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75 |
| 참고문헌 | 179 |
| Abstract | 187 |
| 부록 | 191 |

표 목 차

| | |
|---|-----|
| [표 3-1] 청소년 연령범위 기준 비교 | 27 |
| [표 3-2] 조사문항 | 28 |
| [표 3-3] 응답자 특성 | 30 |
| [표 3-4]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 32 |
| [표 3-5] 미래의 이미지 | 34 |
| [표 3-6] 관심도 - 나의 미래 | 36 |
| [표 3-7] 관심도 - 대한민국의 미래 | 38 |
| [표 3-8]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 40 |
| [표 3-9] 관심도 - 세계의 미래 | 42 |
| [표 3-10] 나의 미래의 결정 요인 | 44 |
| [표 3-11]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 53 |
| [표 3-12]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 55 |
| [표 3-13] 삶에 대한 만족도 | 57 |
| [표 3-14] 행복도 | 59 |
| [표 3-15] 타인에 대한 신뢰도 | 63 |
| [표 3-16] 정치의식 - 나는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음 | 83 |
| [표 3-17] 정치의식 -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85 |
| [표 3-18] 정치의식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됨 | 87 |
| [표 3-1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 89 |
| [표 3-20]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 91 |
| [표 3-21]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 | 93 |
| [표 3-22]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 | 95 |
| [표 3-23]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 | 97 |
| [표 3-24]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 99 |
| [표 3-25]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 101 |
| [표 3-26]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 | 103 |

| | |
|--|-----|
| [표 3-27]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 105 |
| [표 3-28]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 성장 | 107 |
| [표 3-29]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안전 | 109 |
| [표 3-30]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공공장소에서 CCTV로 감시 .. | 111 |
| [표 3-31]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인터넷의 모든 이메일과 정보 모니터링 | 113 |
| [표 3-32]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 115 |
| [표 3-33] 국가관 및 정치의식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함 | 117 |
| [표 3-34]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합법적, 민주적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함 | 119 |
| [표 3-35]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 | 121 |
| [표 3-36]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정당,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 | 123 |
| [표 3-37] 세계시민, 통일 의식 -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이 우선 | 125 |
| [표 3-38]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 | 127 |
| [표 3-39] 세계시민, 통일 의식 -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 | 129 |
| [표 3-40]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통일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될 것임 | 131 |
| [표 3-41] 남북통일 시기 예측 | 133 |
| [표 3-42]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인식 | 135 |
| [표 3-43] 30년 후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인식 | 136 |
| [표 3-44]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ANOVA) 결과 | 140 |
| | |
| [표 4-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 153 |
| [표 4-2] 사회관계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156 |
| [표 4-3]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 161 |
| [표 4-4]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 162 |
| [표 4-5]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 163 |
| [표 4-6]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도 | 164 |
| [표 4-7] 정책분야별 정부지출 확대 요구도 | 164 |

표 목 차

| | |
|--|-----|
| [표 4-8] 경기부양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도 | 165 |
| [표 4-9] 부문별 국가자긍심의 변화 | 166 |
| [표 4-10]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67 |
| [표 4-11]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168 |

| | |
|--|----|
|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6 |
| [그림 2-1] 가치의 10가지 유형(Schwartz) | 16 |
| [그림 2-2] 미래 가치의 개념 틀 | 24 |
| [그림 3-1]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 31 |
| [그림 3-2] 미래의 이미지 | 33 |
| [그림 3-3] 나의 미래 | 35 |
| [그림 3-4] 대한민국의 미래 | 37 |
| [그림 3-5]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 39 |
| [그림 3-6] 세계의 미래 | 41 |
| [그림 3-7] 나의 미래의 결정 요인 | 43 |
| [그림 3-8] 학교에 대한 인식 | 45 |
| [그림 3-9]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 | 45 |
| [그림 3-10] 일에 대한 인식 -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이 우선 | 46 |
| [그림 3-11] 일에 대한 인식 -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46 |
| [그림 3-12] 일에 대한 인식 -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은 필요 | 47 |
| [그림 3-13] 일에 대한 인식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 | 47 |
| [그림 3-14] 기타 가치관 - 여가생활은 내게 매우 중요 | 48 |
| [그림 3-15] 기타 가치관 -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 | 48 |
| [그림 3-16] 기타 가치관 -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 | 49 |
| [그림 3-17] 기타 가치관 -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 | 49 |
| [그림 3-18] 기타 가치관 -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은 중요 | 50 |
| [그림 3-19] 배우자 선택 시 중요 요건 | 50 |
| [그림 3-20] 가족 범주 인식 -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 | 51 |
| [그림 3-21] 가족 범주 인식 -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음 | 51 |
| [그림 3-22]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 5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3-23]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 54 |
| [그림 3-24] 삶에 대한 만족도 | 56 |
| [그림 3-25] 행복도 | 58 |
| [그림 3-26]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60 |
| [그림 3-27]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60 |
| [그림 3-28] 미래의 나의 행복 | 61 |
| [그림 3-29] 타인에 대한 신뢰도 | 62 |
| [그림 3-30]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외국인 노동자 | 64 |
| [그림 3-31]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북한이탈주민 | 64 |
| [그림 3-32]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인공지능 | 65 |
| [그림 3-33] 사회와 집단 인식 - 사회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 | 65 |
| [그림 3-34] 사회와 집단 인식 -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임 | 66 |
| [그림 3-35] 사회와 집단 인식 -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중요 | 66 |
| [그림 3-36]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세금 안낸 사람이 국가에 혜택을 요구하는 것 | 67 |
| [그림 3-37]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동성애 | 67 |
| [그림 3-38]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안락사 | 68 |
| [그림 3-39]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사형제도 | 68 |
| [그림 3-40] 우리사회의 다양성 인식 및 전망 -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회 | 69 |
| [그림 3-41] 우리사회의 다양성 인식 및 전망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 | 70 |
| [그림 3-42]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 | 70 |
| [그림 3-43]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 | 71 |
| [그림 3-44]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심각 | 72 |
| [그림 3-45]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 | 72 |
| [그림 3-46]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언론은 공정한 태도로 정보를 제공 | 73 |
| [그림 3-47]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 | 74 |
| [그림 3-48]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 | 74 |

| | |
|--|----|
| [그림 3-49] 환경에 대한 가치관 - 자연환경 보존이 도시개발보다 중요 | 75 |
| [그림 3-50] 환경에 대한 가치관 -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환경보호가 우선 | 75 |
| [그림 3-51]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면 소득의 일부를 내놓겠음 · | 76 |
| [그림 3-52]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존재 | 76 |
| [그림 3-53] 환경에 대한 가치관 -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해 할 일이 없음 | 77 |
| [그림 3-54]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위협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것 | 77 |
| [그림 3-5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 편리하게 할 것 · | 78 |
| [그림 3-56]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 | 78 |
| [그림 3-57]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킴 ···· | 79 |
| [그림 3-58]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의 혜택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함 | 79 |
| [그림 3-59]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정부 지원이 필요 | 80 |
| [그림 3-60]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 · | 80 |
| [그림 3-61]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 ··· | 81 |
| [그림 3-62]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은 위험하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 | 81 |
| [그림 3-63] 정치의식 - 나는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음 | 82 |
| [그림 3-64] 정치의식 -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84 |
| [그림 3-65] 정치의식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됨 | 86 |
| [그림 3-66]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 88 |
| [그림 3-67]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 90 |
| [그림 3-68]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 | 92 |
| [그림 3-6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 | 94 |
| [그림 3-70]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 | 9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3-71]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 98 |
| [그림 3-72]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 100 |
| [그림 3-73]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적 불평등 해소 | 102 |
| [그림 3-74]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 104 |
| [그림 3-75]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 성장 | 106 |
| [그림 3-76]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안전 | 108 |
| [그림 3-77]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공공장소에서 CCTV 감시 .. | 110 |
| [그림 3-78]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인터넷의 이메일과 정보 모니터링 | 112 |
| [그림 3-79]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 114 |
| [그림 3-80] 국가관 및 정치의식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함 | 116 |
| [그림 3-81]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합법적, 민주적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함 | 118 |
| [그림 3-82]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 | 120 |
| [그림 3-83]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정당,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 | 122 |
| [그림 3-84] 세계시민, 통일 의식 -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이 우선 | 124 |
| [그림 3-85]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 | 126 |
| [그림 3-86] 세계시민, 통일 의식 -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 | 128 |
| [그림 3-87]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통일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될 것임 .. | 130 |
| [그림 3-88] 남북통일 예측 시기 | 132 |
| [그림 3-89] 우리나라의 위상 인식 및 전망 | 134 |
| [그림 3-90]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요소 | 137 |
| [그림 3-91]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 141 |
| [그림 3-92]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이 우선 | 142 |
| [그림 3-93]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 142 |
| [그림 3-94]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 143 |
| [그림 3-95] 신뢰도 | 144 |
| [그림 3-96]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 144 |

| | |
|---|-----|
| [그림 3-97]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수용 | 145 |
| [그림 3-98]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 미침 | 145 |
| [그림 3-9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146 |
| [그림 3-100]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 우선 | 147 |
| | |
| [그림 4-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154 |
| [그림 4-2]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 155 |
| [그림 4-3]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 | 156 |
| [그림 4-4] 전반적 및 분야별 삶의 만족도 | 157 |
| [그림 4-5]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만족도의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 교차 | 157 |
| [그림 4-6]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 158 |
| [그림 4-7] 연령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 159 |
| [그림 4-8] 종사 형태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 160 |
| [그림 4-9]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의 차이와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 160 |
| [그림 4-10]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 161 |
| [그림 4-11]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 162 |
| | |
| [그림 5-1] 미래의 나의 행복 | 172 |
| [그림 5-2] 공정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 172 |
| [그림 5-3] 갈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 173 |
| [그림 5-4]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좌)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우) | 176 |

요 약

□ 미래 가치관 조사의 필요성

-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한국인의 가치관 추적 및 예측의 필요성 증가**
 -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단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함
 - 국민의 다양한 가치 지향을 반영하면서도 공통의 조화로운 미래상 구현을 위한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압축적 근대와 탈근대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에 대한 조사 필요**
 - 특히, 한국인의 미래 가치가 반영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의 주요 가치와 그 변화의 내용과 범위를 진단할 필요성 증대
 - 이렇게 수집된 결과는 미래 가치관의 진단과 예측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 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활용 가치를 보유함
- **미래 가치관 조사는 슈워츠(Schwartz), 잉글하트(Inglehart)의 가치 개념을 포함하는 등의 기존 가치 연구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한국인 고유의 미래 가치관과 정책적 수요 예측을 목적으로 기획**
 - 이 연구는 미래 가치관에 대하여 1)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들을 예측하여 분석하고,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며 2)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

는 것으로 개념화함

*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연령 범위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여 이들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미래 가치관 조사는 한국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2020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녀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
- 조사 완료된 표본수 : 5,321명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 (집계구-가구 무작위표집, 가구원수 전수 추출)

□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전망

●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나,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힘들다는 인식

-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희망적’(매우 희망적+다소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48.5%로 나타난 반면, ‘절망적’(매우 절망적+다소 절망적)이라는 의견은 8.2%에 불과함
- 10대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평가
-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 저조
-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나의 행복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나타남. 30년 후 ‘행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10년 후의 응답과 비슷하나,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에 비해 다소 줄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지만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

-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대우’(3.11점)와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3.00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경제적 부의 분배’(2.79점)와 ‘언론의 공정성’(2.75점)에 대해서는 ‘보통’ 미만의 수준으로 평가
- 공정성에 관한 4개의 조사 항목에서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현재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언론의 공정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여전히 심각할 것이라 전망
- 갈등에 관한 3개의 조사 항목 중 ‘진보와 보수의 갈등’(3.87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며, 30년 후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진보와 보수의 갈등’(3.63점)으로 평가
- 빈부격차(3.77점)와 세대 갈등(3.59점)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며, 30년 후 각각 3.69점, 3.51점으로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미래세대의 가치관**

- **미래세대는 여가가 중요하며,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개인 적성이 직업 안정성보다 중요**

-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직업의 안정성’(3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선호도에 차이가 존재함
- 10대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적성’(26.4%)을 꼽아 ‘직업의 안정성’(25.4%)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흥미’(19.6%)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성을 질문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성이 높았으며, 10대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음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는 문항 동의성을 조사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성이 높으며, 1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음

- **미래세대에게는 성공과 부유한 생활 못지않게 도전과 모험도 중요**

-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음
-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음
-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의 동의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음

- **미래세대는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가족의 범주로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는 의견에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성이 높게 나타나, 1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음
-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 편리하게 한다',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동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10대이고, 다음으로 20대가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와 가치관 변화**

- **코로나19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 강화**

- 코로나 위기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고자 온라인 조사(1차: 5월, 2차: 10월) 실시
- 1차 조사(5월)와 2차 조사(10월)에서의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여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입국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

-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의 태도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했는데 2차 조사에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변화를 보인 세대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았음
-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변화가 관찰됨
- 1차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차 조사에서도 91.2%가 신뢰한다고 한 반면, 1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사람의 94.2%가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됨

□ 정책적 시사점

● 고령자,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 필요

-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래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미래 행복에 대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
-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가족관계이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경제여건
-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경향
-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행복도 제고 전략 시급
- 미래에는 기존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행복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가족관계에 대한 대책 방안 필요

● 친환경, 공정, 포용 등 미래 가치관을 반영한 정책 방향 설정

-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8.2%가 '자연환경의 보존이 도

시개발보다 중요하다'고 답하여 환경보호와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지지 확인

- 연령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를 경제성장보다 우선시
- 과거 경제성장의 물질주의 가치를 중요시한 기성세대나 고령층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경험하면서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 기존의 경제 우선 가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들은 공정성의 경우 현재보다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갈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다음의 이슈들 예를 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폐교 등의 유희시설 증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지방 소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의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
- 본 조사로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를 확인함
-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 가치관의 이해를 전제한 유연한 정책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가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실천의 동기로 작용한다.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의 가치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구성된다. 국민들은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계층, 젠더, 세대,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 모순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판단은 기성 가치체계를 강화하거나 상충하면서 체제의 변화를 추동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 현상이 병존하며 다중적(多重的) 시간대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임혁백, 2014). 한국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와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경제적 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렸으나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인구감소,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사회변동 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충격과 함께 새로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메가트렌드와 새로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추적하고 예측해야 한다. 국민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면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압축적 근대와 탈근대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한 한국 사회의 가치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변동을 파악하여 한국인의 미래 가치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특히, 한국인의 미래 가치가 반영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의 주요 가치와 그 변화의 내용과 폭을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결과는 미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

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활용 가치를 보유할 것이다.

이 조사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미래 인식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설계라는 점에서 기존 조사와 차별성을 가진다. 미래 가치관의 예측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기대, 현재와 미래 사회의 비교 등의 질문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래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밑그림을 제공하므로 이들의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여 이에 따른 가치를 추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미래 전략 수립의 장기적 계획의 관점에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겠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가치관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표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미래 정책 및 장기발전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기초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가치관과 미래 인식에 대한 심층 분석과 향후 가치관 조사의 수행 방안 등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2020년,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가치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상시 급격한 가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Welzel et al., 2020).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으로 유례없던 일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최근의 위기 속에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지, 코로나-19의 사회적 위기를 겪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한국의 사회변화를 전망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가치관 조사로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는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가치관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과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발발한 코로나 위기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여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가치 변화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적인 사회 위기라는 점에서 연구의 이유가 충분하다. 즉,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가치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검토하고 설문 문항을 정비한다. 먼저 미래 가치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18년, 2019년 성인, 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보완하고 조사 방법을 확정한다.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외에도 미래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담아낼 지표를 포괄하는 설문을 구축한다.

둘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전국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인의 미래 인식을 세대별, 지역별 등으로 비교하여 검토하고 특히, 미래세대 가치관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러한 결과물은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된 조화로운 미래상을 도출하고,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한국인의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했

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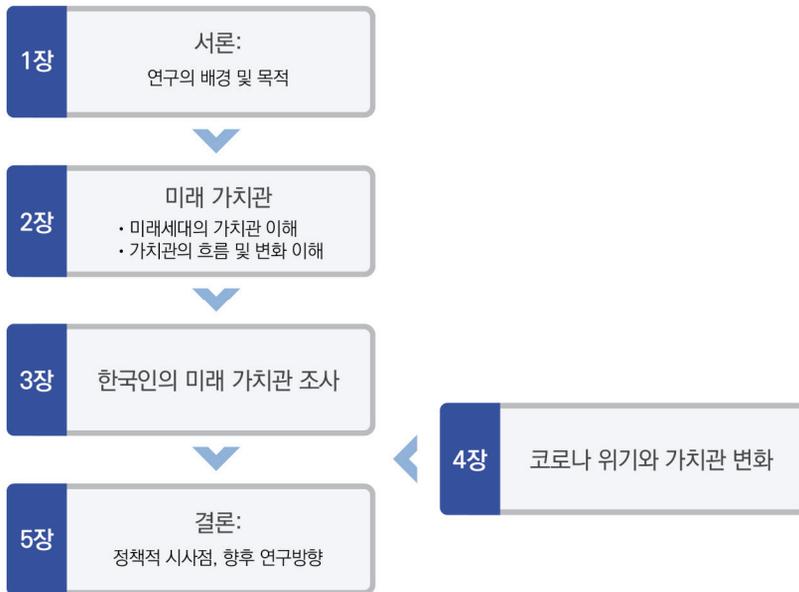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가치관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가치관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 기존 가치관 조사의 문항 검토 등에서 미래 가치관의 개념 정립과 조사 설계를 수행한다.

둘째,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연구(가구조사, 온라인 조사 등)를 시행하여 미래 가치관을 측정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과 같은 계량적 분석을 실시한다. 미래 가치관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미래연구, 사회조사 등의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높인다. 즉, 미래 가치관의 개념 정립, 조사문항 확정, 조사 방법 자문, 조사 결과 논의 등을 위해 주제와 영역에 따라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는 작업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한 국가의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을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국가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식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의 미래 가치관 및 가치체계 분석 연구를 위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미래 가치관 조사의 의의

제1절 미래 가치관의 개념

제2절 미래 가치관 조사의 필요성

제 1절 미래 가치관의 개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가치의 개념 및 특징

사회인류학의 대가인 Kluchhohn(1967)에 따르면 가치(values)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방식이나 방법의 선택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함축적 특성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p. 395). 이 같은 가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Hofstede(2001)는 “가치들이 일련의 체제 안에 형성되는데, 이를 가치체계라 할 때 그 모습은 위계 서열상 통일된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같이 대립해 나타나기도 한다.”고 가치체계(value systems)에 대해 정의하였다(p. 6).

이처럼 Hofstede의 가치에 대한 체계상의 개념은 견진만(2017)의 “선진복지국가”의 정의로 구체화한 바 있다. 견진만(2017)은 선진화와 복지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들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두 가지의 가치 체계적 특성을 밝혔다.

첫 번째 특징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 주권론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해 시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체제상으로 보장받는 ‘성숙한 민주주의(matured democratization)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다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유와 평등을 들어, 자유의 민주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국가의 예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들어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선진복지국가로 일컬었다. 평등의 민주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국가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을 예로 들어 ‘사회지향적(social-oriented)’ 선진복지국가로 칭하였으며, 자유(liberty)와 평등(equity)의 민주적 가치를 함께 중시하여 시스템으로 구현한 국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포함하여 ‘시민지향적(citizen-oriented)’ 선진복지국가로 유형화하였다(p. 82~119).

두 번째 특징은 인종적·역사적 개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문화적 가치의 특수성’을 시스템화(systemized values)하는 데 성공한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종적·역사적 개별성을 기준으로 앵글로색슨(Anglo-Saxon)족, 라틴(Latin)족, 게르만(German)족을 구별해 각각의 사회문화적인 특수한 가치로 자유(freedom)와 관용(tolerance), 공생(symbiosis)을 언급하였다. 즉, '시장지향(market-oriented)' 선진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앵글로색슨족이라는 인종적·역사적 개별성을 토대로 자유(freedom)라는 고유의 가치를 시스템화하였다. 또한, '시민지향(citizen-oriented)' 선진복지국가 유형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라틴족이라는 인종적·역사적 개별성을 토대로 관용(tolerance)의 고유 가치를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였다. '사회지향(social-oriented)' 선진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게르만족이란 인종적·역사적 개별성을 토대로 공생(symbiosis)의 고유 가치를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한 국가로 설명했다(p. 120~124).

이처럼 가치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대와 지역과 상황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또한, 가치의 내용은 자유, 평등, 관용, 공생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거나 서로 대립되기도 하는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특성이 있다.

가치관이 갖는 개념적 특성으로는 첫째, 개인이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가치를 선택하는 선택성이 있다. 둘째, 개인이 가진 가치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적 가치가 있는 위계성이 있다. 셋째, 가치관을 구성하는 가치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는 체계성이고, 넷째, 같은 집단이나 사회는 공통된 가치체계를 갖는 가치 지향의 공유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도록 개인 속에 내재화된 행위의 지향성이고, 여섯째, 연속성과 변화의 특성을 들 수 있다(임희섭, 1997, p. 144~146).

2 가치체계 유형

가치는 체계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Hofstede의 가치체계 연구(2001)는 “권력거리(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남성성과 여성성(masculinity and femininity),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and short-term orientation), 쾌

락추구성과 구속성(indulgence and restraint)”을 척도로 비교·분석하였다. 가치를 여섯 척도별로 설문조사하여 각 척도별 수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국가 순위를 매김으로써 국가간·지역간의 사회문화 차이를 가치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는 권력을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다고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한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Hofstede, 2001, p. 83). 구체적으로, 권력거리가 큰 사회일수록 권위의 차이나 불평등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일수록 평등한 사회구조를 지지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Hofstede, 2001, p. 87).

이제홍(2017)은 이 같은 권력거리 지표를 사용해 한국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했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한국은 권력거리가 비교적 큰 국가로 평가되었던 것과 달리 청년세대(20-30대)에서는 권력거리가 작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권력거리가 작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력 차에 대한 거부감이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에서 더 커서 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관례적으로 답습해 온 대학 신입생들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해 온 선배들의 행위가 비판을 받거나 교수가 조교들에게 연구 이외의 개인적 업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비판이 고조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 사내 문화의 잦은 회식에 참석하기보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 시간을 지켜 퇴근한 후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른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세대’의 가치성향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란 사회구성원들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상황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한 사회가 확정될 수 없는 미래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룬다(Hofstede, 2001, p. 145). 구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 미래 사회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구성원들이 미래의 변동 상황을 회피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낮을수록 미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Hofstede 2001, p. 15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과

가족만 돌보려 하여 사회적 연대가 느슨한 정도 또는 한 개인이 별다른 보상 없이 자신 보다는 소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사회적 연대가 탄탄한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2001, p. 213).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에 대한 성향은 청소년세대에서는 달리 관찰된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성취와 자율의 가치,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이 중요시하는 상대적 만족감과 주관적 삶의 성취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였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p. 137).

‘남성성과 여성성(masculinity and femininity)’에서 ‘남성성(masculinity)’이란 성취지향, 영웅주의, 과단성, 성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선호도를 의미하며 남성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또한 남성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성(femininity)’이란 협력, 겸손, 약자에 대한 배려,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며 여성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합의의 과정을 우선시한다(Hofstede, 2001, p. 279).

‘장기지향성과 단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and short-term orientation)’의 개념에서 장기지향성은 미래를 준비하는 방편으로써 현대적 교육 속에서 근면과 노력을 장려하는 실용주의의 척도를 의미한다. 반면에 단기지향성은 전통과 규범에 가치 비중을 두어 사회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2001, p. 351). 또한, 장기지향성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지향성은 과거 및 현재와 연결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과 관련 있다.

이제홍(2017)은 이 같은 ‘장기지향성’ 혹은 ‘단기지향성’ 지표를 사용해 한국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한국의 장기지향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청년세대의 장기지향적 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특정 사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해결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p.169). 따라서 청년세대는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한 인내와 근검절약 보다는 과거와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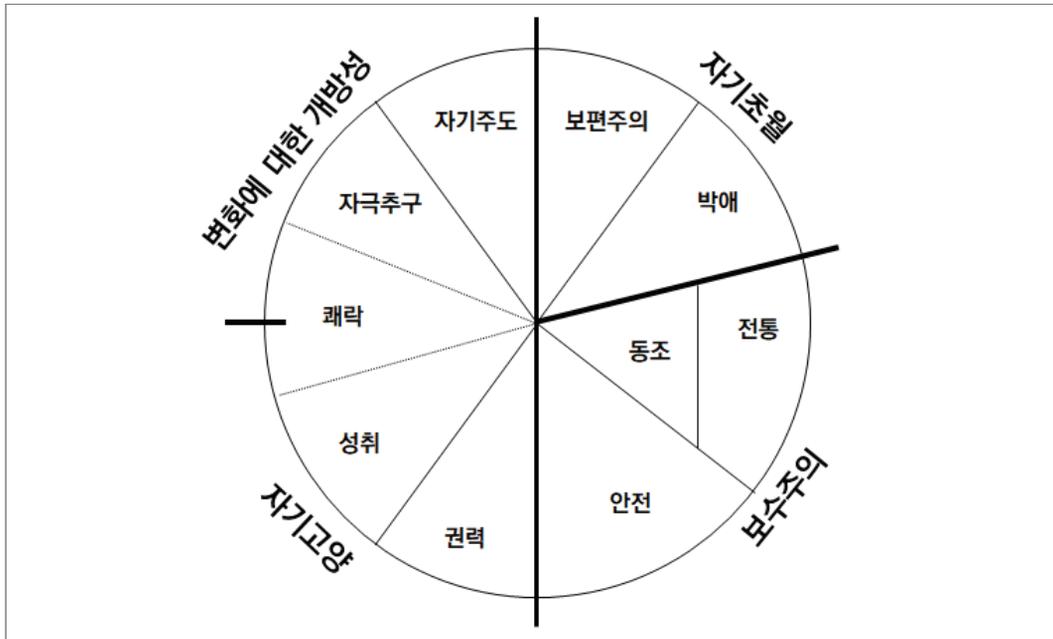
‘쾌락추구성과 구속성(indulgence and restraint)’에서 ‘쾌락추구성(또는 향락추구

성, indulgence)은 삶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구속성(또는 규제, restraint)'은 삶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사회규범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fstede, 2011). 일반적으로 쾌락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중요시하여 관련된 지출과 소비를 하는 생활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쾌락지수가 낮은 나라 즉, 구속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쾌락적인 만족이나 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이를 통제하는 생활태도를 보인다(Hofstede and Minkov, 2010).

문화는 가치를 포함하는데, 가치는 문화의 '이상형'으로 간주된다. 개인 수준의 가치와 문화 수준의 가치가 있는데, 문화적 수준의 가치는 개인 수준의 가치 응답을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Hanel et al., 2018). 가치에 대한 설명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핵심반복항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유럽 국가에서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된 Schwartz의 인간가치이론에 기초한 가치묘사질문(Value Portrait Questionnaire, PVQ)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Davidov et al., 2008). Schwartz(2007)는 가치를 바람직하고, 특정 상황을 초월한 목적이며, 우선순위가 있는 삶의 지침서로 정의하며(2007, p. 173), 인간 가치 이론의 10가지 기본적 동기유발 유형을 원형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2-1). 우선,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대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대 '보수주의(conservation)'의 2개의 대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 대립적인 차원을 4가지 상위유형과 이에 해당하는 10개의 하위 가치유형(value typ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자기주도(self-direction), 자극추구(stimulation), 자기고양은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자기초월은 보편주의(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 보수주의는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안전(security)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차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쾌락(hedonism) 추구가 있다.

이러한 Schwartz의 가치 유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치가 대유행병의 전염을 줄이는 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가치초월과 보수주의는 초점이 사회에 맞추어져 있고 자기고양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초점이 개인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치초월과 보수주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개

인들이 정부 정책을 잘 준수하며,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예측한다 (Wolf et al., 2020).



출처: Schwartz, 2007, p.173

[그림 2-1] 가치의 10가지 유형(Schwartz)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혹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려고 한다. 새로운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가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지만(Sagiv & Roccas, 2017, p. 3), 가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Schwartz, 2007, p. 169). 예를 들면, 미국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이전과 비교해서, 자기초월적 가치와 보수주의 가치는 사회에 대한 걱정을 높여주었다(Frink et al., 2004). 또한,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이후 안전 가치는 증가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 (Verkasalo et al., 2006). 즉, 국가위기상황 전후를 비교하면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안전 가치와 동조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지만(Fischer, 2017, p. 10), 놀랍게도, 2019년과 비교하여 안전과 생리적 욕구는 줄어들었으나, 자기초월 욕구와 인지적 욕구는 증가하였다(최인수 외, 2020, p. 15).

3 미래 가치관의 개념화

Kluchhohn이 제시한 가치의 개념을 미래 가치관에 적용하면, ‘미래 가치관’이란 미래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는 것과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함축적 특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가치관은 그 사회의 시대적·역사적인 경험과 사회구성원이 구성하는 사회적 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그 사회가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미래 가치관은 큰 틀에서 보면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며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하위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으로서 미래 가치관은 세대별로 그 내용상의 차이가 있으나 미래 세대의 선호가치가 미래 가치관의 방향성 및 중요성을 결정하는 중심이 된다.

분석의 차원을 미래 가치관에 집중할 때 유념할 점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이다.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가 형성되는 기반이며,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의 목적으로 작용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양자의 간극은 한국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는 사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세대의 가치관 차이가 클 때 역시 양자의 간극은 커진다(Howe & Strauss, 1992; 국회미래연구원, 2019에서 재인용).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각 세대가 어떤 문화적 환경에 반응하고 학습했는지에 따라 가치의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며 사회화 과정에서 자극받은 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상이한 특성이 나타난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 세대로부터 학습된 가치는 성인기의 직업 선택, 가족과 결혼의 윤리와 가치, 법과 질서, 정의에 대한 관점, 국가에 대한 가치와 세계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Fischer et al., 2010; 김연숙, 2018). 한 세대의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의 주요 가치를 대상으로 그 변화의 내용과 폭을 진단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 연구는 미래 가치관에 대해 1) 주기적인 가치조사를 통해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하고 전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들을 예측하며 분석하고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며 2) 현재 기성세대와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다.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연령 범위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여 이들 집단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사회의 특성을 추론한다.

제2절 미래 가치관 조사의 필요성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한국 사회 주요 가치의 흐름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를 전망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복합적인 가치체계 흐름을 분석하는 작업은 정부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래 정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변동을 가치체계 중심으로 관찰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사회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견진만(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를 ‘산업화 시기(1960년대~1980년대)’와 ‘민주화 시기(1990년대~2010년대)’ 그리고 ‘선진복지화 시기(2020년대~미래)’로 나누었다. Antonio Gramsci의 시민 세력에서 특정 가치가 지배력을 갖는 헤게모니(hegemony) 이론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 단계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산업화 시기는 정치우위의 시기, 민주화 시기는 정치·경제우위의 시기, 그리고 선진복지화 시기는 사회우위의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pp. 196~198).

첫째,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중에서 ‘산업화’ 시기를 정치우위의 시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산업화’ 시기에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한 데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인권 신장을 동반하지 못한 급격한 경제성장은 독재에 대한 항거라는 사회쟁점을 불러일으켜 학생운동이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탄압과 저항으로 요약해 시대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산업화 시기 이후의 민주화 시기를 정치·경제우위 시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민주화’ 시기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치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치적 ‘민주성’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년 11월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불리는 정강에

따라 대량해고를 법제화하고 친시장정책(market friendly policy)을 추진하여 경제 양극화가 사회 쟁점화하면서 노동운동이 주도적인 사회운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견제와 보완으로 요약해 시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복지화 시기를 사회우위 시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민주화 시기에 벌어진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하므로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이 주도적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므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호협력으로 요약해 시대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견진만, 2017, p. 197-198).

유럽의 경우 전통 가치, 물질적 가치, 탈물질적 가치, 그리고 포스트모던 가치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는 경제우선성, 법과 질서, 노동을 위한 삶, 의무감 등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 물질적 복지, 사회적 상승과 안정 등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였다. 1970년대는 규범적 삶에 대한 대안, 독립성, 소비비판, 사회운동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1980-90년대는 향락주의, 자기표현, 개인주의, 관계, 현실주의, 유연성, 진정성 등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을 나타냈다(전상진 외, 2006). 이러한 가치관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 현재세대(성인)와 미래세대(청소년)의 가치관

한 사회의 가치관을 파악하려면 세대별 특징을 이해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를 기성세대인 성인으로 보고, 미래세대를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그 특징을 비교할 것이다.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해 '나' 보다는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며, 불확실성을 기피하고 장기적 관점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자기절제가 강하면서도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Hofstede and Minkov 2010; Hofstede, 2011).

청소년의 가치관은 우선 기성세대가 구성해 놓은 현시대의 가치체계 위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현재 사회,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자리 잡은 가치는 청소년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기성세대와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그 시기만의 독특한 인지적 발달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전통적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일반 성인의 가치체계와 다른 지향 및 표현 양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가치관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즉, 청소년의 가치관은 기성세대가 정립해 놓은 현시대의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고 나타나는 독특한 시각에 따라서 재구성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기현 외(2007)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의 다양화, 글로벌화, 취업 불확실, 첨단기술의 일상화(정보화), 빈곤·사회 양극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6가지 메가트렌드는 청소년들에게 기회요인 혹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의 인생관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1980년대 청소년은 본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으며, 1990년대 청소년은 즐겁게 사는 것, 2000년대의 청소년은 소시민적 삶을 추구하면서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여 1980년대나 1990년대의 청소년에 비해 보다 복합적인 인생관이 관찰되었다(한미라, 2011).

가치가 연령별로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상반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치관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성장의 단계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모두 존재한다(Walsh, 1996; 임연 외, 2012).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경험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동반된다고 보는 경향을 드러낸다(선혜연 외, 2009; 임연 외, 2010).

청소년의 가치의 흐름을 파악하여 미래 사회상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 원하는 것과 사회 차원에서 되어야 하는 것과의 간극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래는 그 미래가 실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 사회를 위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선호하는 미래가치를 실제 사회에서 구현할 경우 정책적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박성원 외, 2019).

3 미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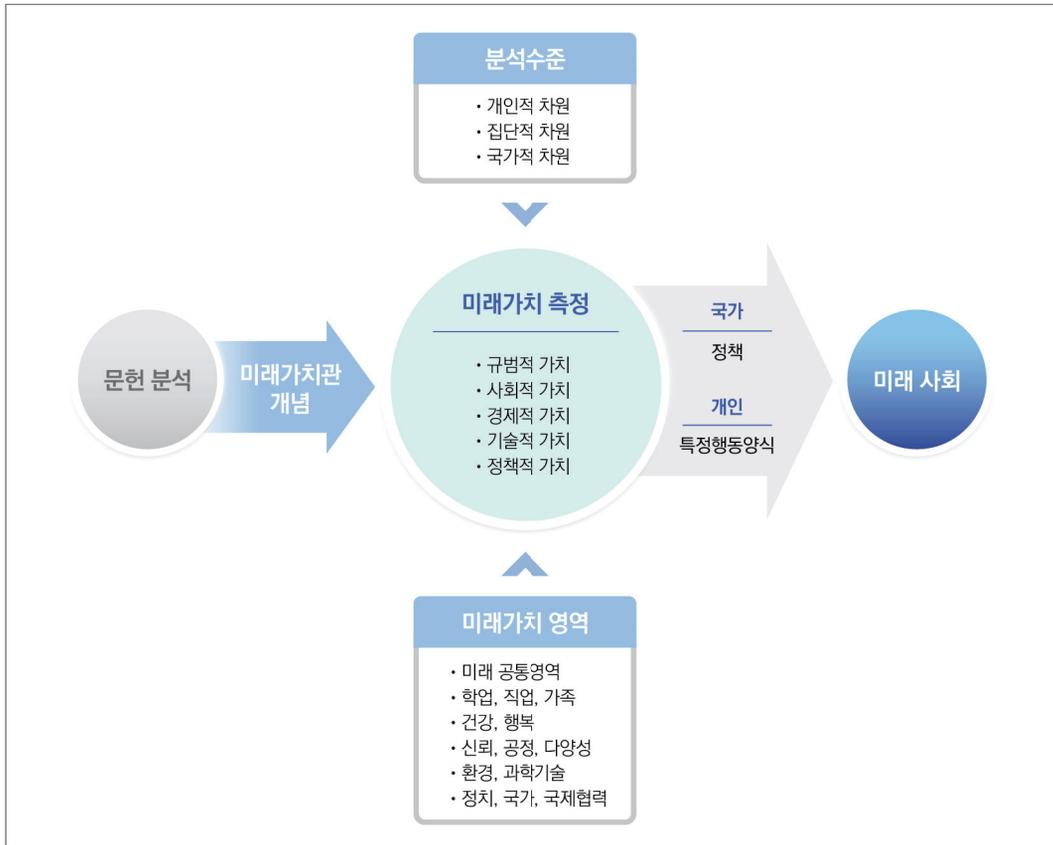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책이 지향하는 옳음, 즉, 정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과 가치, 삶을 달성하기 위함이다”(김희강, 2016, p. 3). 따라서 정책과 가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가치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와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개념이며 자유, 평등, 관용, 공생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나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가치의 개념을 근거로 미래가치에 대해 정의 하자면 미래의 정부와 사회, 시민이 가져야 하는 이상향에 관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의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사회를 위한 미래지향성을 가지므로 미래가치는 그 보다 더 먼 미래의 시점에 도래할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선호하는 미래가치는 다음 시대의 사회적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사회의 일정 시점에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가치는 다음 시대 사회의 특성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미래 세대의 가치체계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의 미래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조사 예를 들면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는 서구적 맥락에서 설계되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서구 유럽과 달리 개방(openness to change)과 보수(conservation)의 가치 대립은 한국의 경우에 특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정치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이 분야가 다른 사회, 경제 영역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진보주의자라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호혜경제, 이민자 보호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뚜렷한 정향이 일관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수주의자인 경우에도 서구에서 흔히 말하는 안정중심과 물질주의 가치, 성취지향성 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박성원 외, 2018). 또한 서구의 개인적인 문화와 공공차원의 가치를

양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집단 문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박성원 외, 2018).

그러므로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의 가치조사와 차별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박성원 외, 2018),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예비조사에서는 미래 가치관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영역(①공통의 영역, 행복, ②학업, 진로에 관한 영역, ③가족, 결혼의 영역, ④신뢰 다양성의 영역, ⑤환경 과학기술의 영역, ⑥사회, 국가, 주변국의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가치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예비조사를 기반으로 하되 몇 가지를 보완하였다. 첫째, 조사문항을 기존의 영역에서 개인, 사회, 국가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기존의 조사(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 등)와 같이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던 것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 수준별 가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2018년과 2019년의 예비조사는 슈워츠의 개인 가치(자율, 쾌락, 성취)와 공공 가치(권력,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보편주의), 잉글하트의 물질주의 가치(경제안정, 경제성장)와 탈물질주의 가치(참여, 표현의 자유, 인간적인 삶) 등을 포함한 기존 가치 연구의 장점을 수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인 고유의 미래 사회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 미래 시나리오를 참조한 하위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래 시나리오 모습에서 도출한 일부 문항들이 가치 측정보다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보다 폭넓은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사회인식뿐만 아니라 가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경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괄하는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공정성의 차원, 동물에 대한 태도, 성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등의 문항을 보완한 것이다.

[그림 2-2]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 가치 분석을 위한 틀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2-2] 미래 가치의 개념 틀

제3장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미래세대의 가치관

제 1절 조사 개요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조사 설계

조사의 목적은 미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으로 한국인들의 가치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원하는 미래 사회상을 도출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래세대의 연령 범위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여 이들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에 포함하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정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법령과 제도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기준 연령은 다양하였으나 가치관이 성립되는 시기와 학제 등을 고려하여 만 13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3-1] 청소년 연령범위 기준 비교

| 지역 | 근거/기관 | 연령 |
|----|---|--|
| 국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 청소년: 만 9-24세 |
| | 청소년보호법, 영화비디오법 | 청소년: 만 19세 미만 |
| | 게임산업진흥법 | 청소년: 만 18세 미만 |
| | 아동복지법 | 아동: 만 18세 미만 |
| | 기타 (교통카드) | 청소년: 만 12-17세 |
| 국제 | UNESCO, ILO | Youth: 15-24 |
| | UN Habitat | Youth: 15-32 |
| | UNICEF/WHO/UNEPA | Adolescent: 10-19 Young people: 10-24 Youth: 15-24 |
| | UNICEF(The Convention on Rights of the Child) | Child until 18 |
| | The African Youth Charter | Youth: 15-35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UN(2013) Definition of Youth

한국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시점은 조사기간 현재 및 10년 후, 30년 후 미래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 9. 10. - 2020. 10. 31이었다. 조사수행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시행하였다.

조사방식은 가구조사이며,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방법별로 수행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원에 의한 문답 진행이 69%, 유치조사가 18%, 응답자 TAPI 자기 기입이 13%로 나타났다.

2 조사 내용 및 응답자 특성

조사부문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인과 가치관, 주관적 웰빙 및 미래 전망, 사회와 가치관, 국가 및 정치에 대한 가치관 등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항목은 총 111개 항목으로 기본사항으로 성별, 생년, 가구원 수, 혼인상태, 주택종류, 주거형태, 월평균 총 가구소득, 가구경제 상태, 정규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직업 등에 관한 문항이 있으며, 그 외 조사 항목은 [표 3-2]와 같으며, 응답자 특성은 [표 3-3]과 같다.

[표 3-2] 조사문항

| 조사부문 | 조사 항목 |
|----------------|--|
|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 미래에 대한 관심도 - 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 • 개인적 노력과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 중 나의 미래 결정 요인 |
| 개인과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학교에 대한 의견 •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 • 일과 여가에 대한 인식 • 삶에 대한 가치관 |

| 조사부문 | 조사 항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 • 가족 범주에 대한 인식 |
|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 희망하는 삶의 유형 • 삶에 대한 만족도 • 행복도 및 행복한/행복하지 않은 이유 •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30년 후의 나의 행복 |
| 사회와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 대한 신뢰 • 집단(대상)별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인공지능 • 사회 및 집단에 대한 인식 • 사회의 수용 범위에 대한 인식 • 우리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우리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 • 환경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
| 국가와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참여 의식 • 민주주의의 특성에 대한 인식 • 국가의 업무 중요도 • 공익 목적시 국가의 권리 범위 인식 •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세계시민, 통일에 대한 의식 • 남북통일에 대한 시기적 전망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 및 전망 •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것 |

[표 3-3] 응답자 특성

| 구 분 | | 사례수 | % | 구 분 | | 사례수 | % |
|-----|-------------|---------|-------|------------|--------------|---------|------|
| 전 체 | | (5,321) | 100.0 | | | | |
| 권역별 | 서울 | (1,010) | 19.0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347) | 6.5 |
| | 인천/경기 | (1,644) | 30.9 | | 2인 가구 | (1,967) | 37.0 |
| | 강원 | (162) | 3.0 | | 3인 가구 | (1,338) | 25.2 |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0.6 | | 4인 이상 가구 | (1,669) | 31.4 |
| | 광주/전북/전남 | (531) | 10.0 | 혼인 상태 | 미혼 | (1,450) | 27.3 |
| | 대구/경북 | (527) | 9.9 | | 기혼/동거 | (3,434) | 64.5 |
| | 부산/울산/경남 | (815) | 15.3 | | 사별/이혼/별거 | (436) | 8.2 |
| | 제주 | (68) | 1.3 | 가구 소득별 | 100만원 미만 | (86) | 1.6 |
| 지역별 | 서울 | (1,010) | 19.0 | | 100~200만원 미만 | (360) | 6.8 |
| | 부산 | (353) | 6.6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5.6 |
| | 대구 | (250) | 4.7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22.7 |
| | 인천 | (301) | 5.7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22.4 |
| | 광주 | (148) | 2.8 | | 500~600만원 미만 | (927) | 17.4 |
| | 대전 | (150) | 2.8 | 600만원 이상 | (714) | 13.4 | |
| | 울산 | (115) | 2.2 | 가구 경제상태 인식 | 어렵다 | (981) | 18.4 |
| | 세종 | (33) | 0.6 | | 보통 | (3,433) | 64.5 |
| | 경기 | (1,343) | 25.2 | | 여유가 있다 | (907) | 17.1 |
| | 강원 | (162) | 3.0 | 학력별 | 초졸 이하 | (316) | 5.9 |
| | 충북 | (166) | 3.1 | | 중졸 | (833) | 15.6 |
| | 충남 | (216) | 4.1 | | 고졸 | (2,225) | 41.8 |
| | 전북 | (189) | 3.6 | | 대졸 이상 | (1,948) | 36.6 |
| | 전남 | (194) | 3.6 | 직업별 | 전문/관리 | (227) | 4.3 |
| | 경북 | (277) | 5.2 | | 사무 | (823) | 15.5 |
| | 경남 | (346) | 6.5 | | 서비스 판매 | (1,827) | 34.3 |
| 제주 | (68) | 1.3 | 농림어업 | | (144) | 2.7 | |
| 연령별 | 13~19세 | (393) | 7.4 | | 기능노무 | (624) | 11.7 |
| | 20~29세 | (779) | 14.6 | | 기타 | (1,676) | 31.5 |
| | 30~39세 | (791) | 14.9 | | | | |
| | 40~49세 | (952) | 17.9 | | | | |
| | 50~59세 | (992) | 18.6 | | | | |
| | 60대 이상 | (1,414) | 26.6 | | | | |
| 성별 | 남성 | (2,644) | 49.7 | | | | |
| | 여성 | (2,677) | 50.3 | | | | |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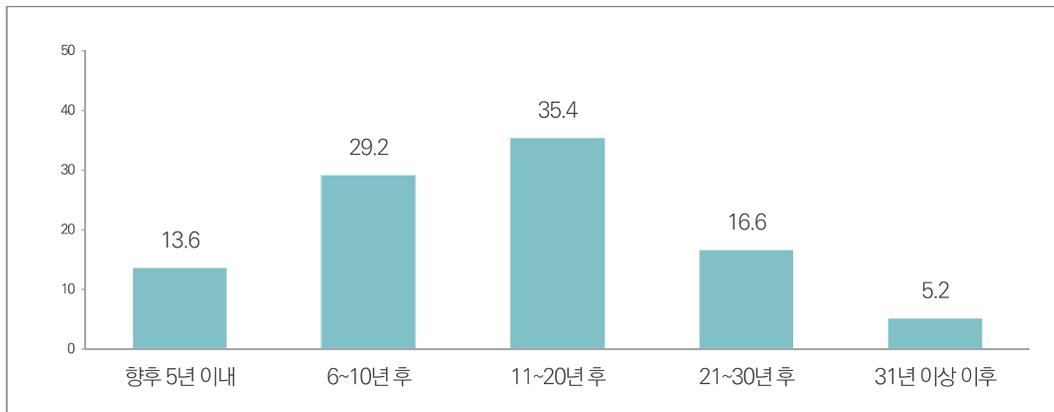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미래에 대한 인식

가.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미래’하면 일반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4%가 ‘11~20년 후’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6~10년 후’(29.2%), ‘21~30년 후’(16.6%), ‘향후 5년 이내’(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1]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응답자들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만 13~19세에서,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1~30년 후’와 ‘31년 이상 이후’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에서와 강원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5년 이내’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3-4] 미래에 대한 시기적 인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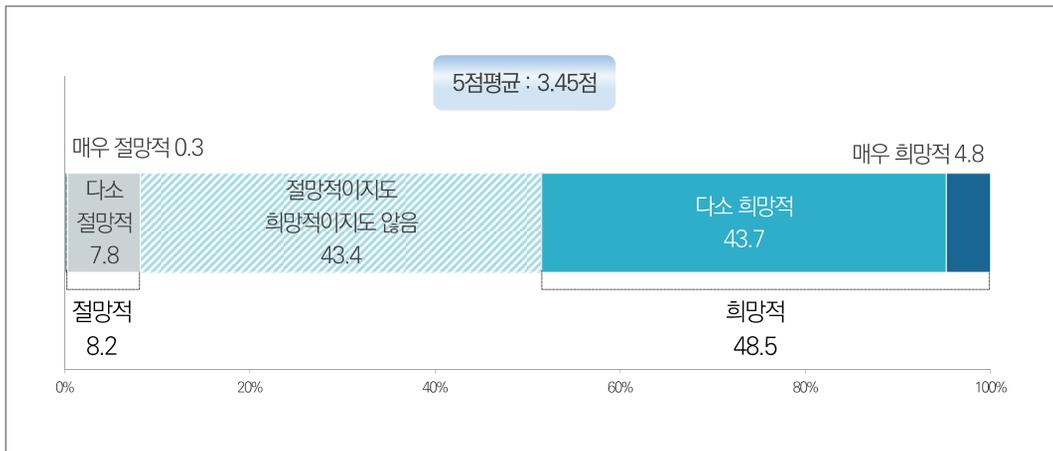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향후 5년 이내 | 6~10년 후 | 11~20년 후 | 21~30년 후 | 31년 이상 이후 |
|-------------------|---------|-------------|---------|-------------|-------------|--------------|
| 전 체 | (5,321) | 13.6 | 29.2 | 35.4 | 16.6 | 5.2 |
| 성별 | | | | | | |
| 남성 | (2,644) | 13.8 | 28.0 | 36.4 | 16.6 | 5.2 |
| 여성 | (2,677) | 13.4 | 30.3 | 34.5 | 16.6 | 5.2 |
| 연령별 | | | | | | |
| 13~19세 | (393) | 11.2 | 22.6 | 32.2 | 25.4 | 8.6 |
| 20~29세 | (779) | 10.5 | 24.9 | 34.6 | 20.6 | 9.4 |
| 30~39세 | (791) | 11.3 | 21.1 | 39.4 | 22.1 | 6.2 |
| 40~49세 | (952) | 9.2 | 28.6 | 40.4 | 17.6 | 4.1 |
| 50~59세 | (992) | 12.1 | 33.7 | 36.3 | 14.0 | 3.9 |
| 60대 이상 | (1,414) | 21.4 | 35.0 | 30.5 | 10.2 | 2.9 |
| 권역별 ¹⁾ | | | | | | |
| 서울 | (1,010) | 8.9 | 23.4 | 32.3 | 24.2 | 11.3 |
| 인천/경기 | (1,644) | 17.7 | 27.5 | 35.2 | 16.6 | 3.0 |
| 강원 | (162) | 27.3 | 26.2 | 28.8 | 12.5 | 5.2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9.2 | 22.6 | 43.2 | 18.2 | 6.8 |
| 광주/전북/전남 | (531) | 12.6 | 30.3 | 35.0 | 18.2 | 3.9 |
| 대구/경북 | (527) | 12.5 | 33.3 | 38.9 | 12.3 | 3.0 |
| 부산/울산/경남 | (815) | 12.8 | 40.9 | 34.4 | 9.1 | 2.9 |
| 제주 | (68) | 15.0 | 34.1 | 26.4 | 15.2 | 9.2 |
| 가구소득별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34.0 | 25.9 | 26.3 | 8.2 | 5.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26.8 | 35.5 | 29.2 | 6.6 | 1.9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7.6 | 32.9 | 31.5 | 13.6 | 4.5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1.1 | 28.9 | 38.2 | 18.0 | 3.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1.6 | 28.1 | 35.9 | 17.6 | 6.8 |
| 500~600만원 미만 | (927) | 8.7 | 26.2 | 38.3 | 20.1 | 6.7 |
| 600만원 이상 | (714) | 13.7 | 28.2 | 34.9 | 17.9 | 5.3 |

1) 본 조사의 지역 단위는 생활권역과 정치 성향, 인구수(표본 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인천/경기는 인구 비중이 31%로 높은 편이나 생활권역과 기존의 조사 결과와 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성향이 유사하여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생활권역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종종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인구 수가 각각 대구/경북 10%, 부산/울산/경남 15%로 개별 단위로 보기에 충분한 규모이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전/세종/충남/충북과 광주/전남/전북은 생활권역과 정치적인 성향이 유사하며, 인구 비중이 각각 10% 수준으로 여기서 충북과 전북을 별도로 구분할 경우 각각 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석단위로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기 어려워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강원과 제주를 타 지역과 생활권역이나 정치 성향이 모두 유사하지 않고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비중은 적지만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단, 강원과 제주를 표본 크기가 타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분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나. 미래의 이미지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희망적’(매우 희망적+다소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48.5%로 나타난 반면, ‘절망적’(매우 절망적+다소 절망적)이라는 의견은 8.2%에 불과하였다. ‘다소 희망적’(43.7%)이라는 의견과 ‘절망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않다’(43.4%)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단위: %)



[그림 3-2] 미래의 이미지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만 13~19세와 20대 집단에서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60대 이상,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희망적 평가가 낮았다.

[표 3-5] 미래의 이미지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매우 절망적 (1점) | ② 다소 절망적 (2점) | ③ 절망적이지도 희망적이지도 없음 (3점) | ④ 다소 희망적 (4점) | ⑤ 매우 희망적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3 | 7.8 | 43.4 | 43.7 | 4.8 | (3.4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5 | 8.0 | 42.3 | 44.1 | 5.0 | (3.45) |
| 여성 | (2,677) | 0.1 | 7.6 | 44.4 | 43.3 | 4.5 | (3.44)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2.5 | 23.5 | 55.1 | 18.8 | (3.90) |
| 20~29세 | (779) | 0.4 | 4.8 | 27.3 | 57.6 | 9.9 | (3.72) |
| 30~39세 | (791) | 0.6 | 4.6 | 34.1 | 56.7 | 4.0 | (3.59) |
| 40~49세 | (952) | 0.1 | 6.4 | 42.7 | 48.0 | 2.8 | (3.47) |
| 50~59세 | (992) | 0.3 | 8.8 | 49.1 | 40.0 | 1.8 | (3.34) |
| 60대 이상 | (1,414) | 0.5 | 13.1 | 59.3 | 25.3 | 1.8 | (3.15)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3 | 7.7 | 40.1 | 46.8 | 5.2 | (3.49) |
| 인천/경기 | (1,644) | 0.2 | 9.7 | 48.4 | 37.4 | 4.4 | (3.36) |
| 강원 | (162) | 3.1 | 7.6 | 39.4 | 38.3 | 11.6 | (3.4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8 | 7.7 | 38.0 | 49.9 | 3.6 | (3.48)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6.2 | 39.2 | 49.0 | 5.5 | (3.53) |
| 대구/경북 | (527) | 0.0 | 7.7 | 47.4 | 40.2 | 4.7 | (3.42)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5.3 | 42.2 | 48.3 | 4.0 | (3.50) |
| 제주 | (68) | 1.7 | 11.7 | 38.2 | 42.3 | 6.1 | (3.39)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7 | 22.5 | 44.6 | 24.8 | 5.4 | (3.08)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5 | 18.1 | 49.0 | 30.0 | 1.4 | (3.12)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2 | 13.8 | 48.1 | 34.3 | 3.5 | (3.27)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3 | 7.2 | 45.4 | 41.5 | 5.6 | (3.45)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4.6 | 41.1 | 50.0 | 4.1 | (3.53)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3.8 | 40.8 | 49.8 | 5.6 | (3.57) |
| 600만원 이상 | (714) | 0.3 | 5.7 | 38.3 | 49.2 | 6.4 | (3.56) |

다. 미래에 대한 관심도

‘나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많이 있다+있는 편이다)’는 응답은 71.1%로 높은 반면, ‘관심이 없다(전혀 없다+없는 편이다)’는 의견은 5.3%에 불과하였으며,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7점이었다.

(단위: %)



[그림 3-3] 나의 미래

미래에 대한 관심도는 서울 지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6] 관심도 - 나의 미래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없다 (1점) | ② 없는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있는 편이다 (4점) | ⑤ 많이 있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5.2 | 23.6 | 49.8 | 21.3 | (3.87)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2 | 5.8 | 22.8 | 49.4 | 21.8 | (3.87) |
| 여성 | (2,677) | 0.0 | 4.5 | 24.3 | 50.2 | 20.9 | (3.88)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1.2 | 10.0 | 48.4 | 40.4 | (4.28) |
| 20~29세 | (779) | 0.2 | 2.2 | 10.2 | 55.9 | 31.5 | (4.16) |
| 30~39세 | (791) | 0.1 | 1.7 | 12.9 | 58.6 | 26.7 | (4.10) |
| 40~49세 | (952) | 0.0 | 2.7 | 19.2 | 58.1 | 20.0 | (3.95) |
| 50~59세 | (992) | 0.0 | 7.6 | 29.1 | 46.7 | 16.6 | (3.72) |
| 60대 이상 | (1,414) | 0.2 | 9.8 | 39.8 | 38.6 | 11.6 | (3.52)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1 | 2.6 | 16.0 | 49.5 | 31.8 | (4.10) |
| 인천/경기 | (1,644) | 0.0 | 5.5 | 23.9 | 50.5 | 20.1 | (3.85) |
| 강원 | (162) | 0.0 | 8.7 | 24.6 | 50.9 | 15.8 | (3.7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6 | 4.7 | 31.5 | 50.9 | 12.2 | (3.69)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2.1 | 25.2 | 49.6 | 23.1 | (3.94) |
| 대구/경북 | (527) | 0.0 | 9.8 | 20.2 | 45.8 | 24.2 | (3.84)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6.0 | 27.1 | 51.4 | 15.5 | (3.77) |
| 제주 | (68) | 2.6 | 8.0 | 30.1 | 40.4 | 18.9 | (3.6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0 | 18.8 | 36.3 | 36.0 | 7.0 | (3.2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3 | 12.1 | 41.9 | 32.0 | 13.6 | (3.4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3 | 11.4 | 31.4 | 43.7 | 13.1 | (3.58)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4.9 | 21.0 | 55.6 | 18.6 | (3.8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2.3 | 22.1 | 53.1 | 22.5 | (3.96)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1 | 1.7 | 18.3 | 51.4 | 28.6 | (4.07)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2.5 | 17.3 | 50.3 | 29.9 | (4.08) |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많이 있다+있는 편이다)’는 응답은 66.2%로 높은 반면, ‘관심이 없다(전혀 없다+없는 편이다)’는 의견은 7.2%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에 3.70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4] 대한민국의 미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연령층과 서울 지역 거주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에서였으며,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강원과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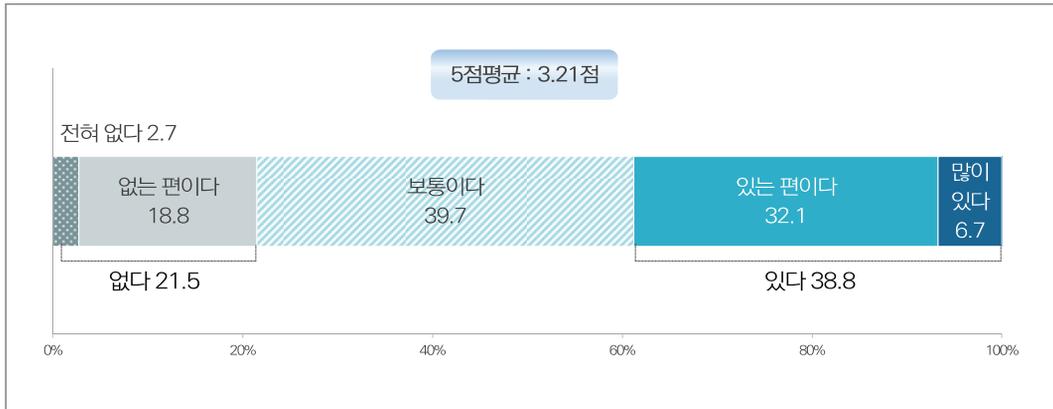
[표 3-7] 관심도 - 대한민국의 미래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없다 (1점) | ② 없는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있는 편이다 (4점) | ⑤ 많이 있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6 | 6.6 | 26.6 | 54.2 | 12.0 | (3.7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0 | 6.8 | 25.0 | 54.5 | 12.7 | (3.71) |
| 여성 | (2,677) | 0.2 | 6.5 | 28.1 | 53.9 | 11.4 | (3.7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7 | 5.0 | 19.6 | 63.0 | 11.6 | (3.80) |
| 20~29세 | (779) | 0.5 | 4.9 | 23.3 | 55.9 | 15.4 | (3.81) |
| 30~39세 | (791) | 0.4 | 3.8 | 23.4 | 58.7 | 13.7 | (3.81) |
| 40~49세 | (952) | 0.1 | 4.8 | 26.0 | 58.5 | 10.7 | (3.75) |
| 50~59세 | (992) | 0.8 | 7.0 | 29.2 | 51.1 | 11.9 | (3.66) |
| 60대 이상 | (1,414) | 1.0 | 10.6 | 30.6 | 47.4 | 10.4 | (3.56)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2 | 5.9 | 18.4 | 55.4 | 20.0 | (3.89) |
| 인천/경기 | (1,644) | 0.4 | 7.1 | 28.4 | 56.0 | 8.1 | (3.64) |
| 강원 | (162) | 1.4 | 8.2 | 37.6 | 45.6 | 7.2 | (3.4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9 | 8.1 | 28.7 | 56.0 | 6.3 | (3.59) |
| 광주/전북/전남 | (531) | 0.6 | 3.5 | 30.0 | 51.2 | 14.6 | (3.76) |
| 대구/경북 | (527) | 2.1 | 9.1 | 22.1 | 56.6 | 10.2 | (3.64)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4.9 | 29.0 | 51.5 | 14.4 | (3.75) |
| 제주 | (68) | 0.6 | 15.0 | 37.7 | 33.2 | 13.5 | (3.44)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2 | 13.8 | 26.5 | 41.9 | 15.7 | (3.55)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1 | 9.8 | 34.6 | 48.9 | 5.6 | (3.48)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5 | 10.4 | 30.5 | 49.0 | 8.6 | (3.5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8 | 8.0 | 26.8 | 53.7 | 10.7 | (3.65)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4.3 | 28.6 | 54.6 | 12.3 | (3.75)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1 | 3.7 | 22.6 | 57.5 | 16.1 | (3.86)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5.3 | 19.2 | 60.0 | 15.4 | (3.85) |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많이 있다+있는 편이다)’는 답변은 38.8%로 비교적 관심도가 낮았다. ‘관심이 없다(전혀 없다+없는 편이다)’는 의견은 21.5%로 관심도 조사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에 3.21점이었다.

(단위: %)



[그림 3-5]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이었고,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경북권 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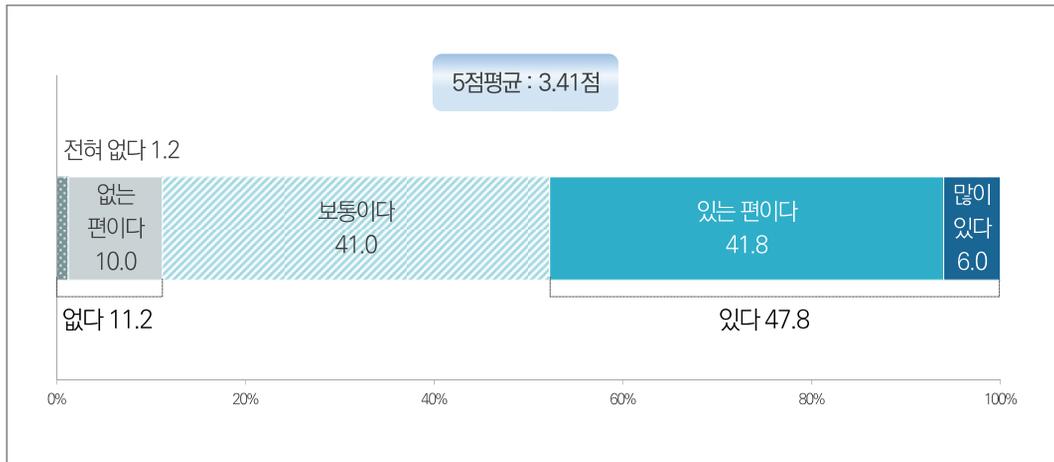
[표 3-8]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없다 (1점) | ② 없는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있는 편이다 (4점) | ⑤ 많이 있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2.7 | 18.8 | 39.7 | 32.1 | 6.7 | (3.2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3.3 | 17.5 | 38.7 | 33.4 | 7.0 | (3.23) |
| 여성 | (2,677) | 2.1 | 20.0 | 40.7 | 30.8 | 6.4 | (3.19)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3.4 | 17.2 | 36.1 | 36.4 | 6.9 | (3.26) |
| 20~29세 | (779) | 4.0 | 16.7 | 42.7 | 30.8 | 5.8 | (3.18) |
| 30~39세 | (791) | 3.1 | 18.4 | 39.0 | 32.0 | 7.5 | (3.22) |
| 40~49세 | (952) | 2.4 | 17.5 | 39.8 | 33.3 | 7.0 | (3.25) |
| 50~59세 | (992) | 2.7 | 19.3 | 39.4 | 32.4 | 6.3 | (3.20) |
| 60대 이상 | (1,414) | 1.9 | 21.0 | 39.6 | 30.6 | 6.9 | (3.20)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8 | 15.0 | 37.4 | 37.4 | 8.3 | (3.35) |
| 인천/경기 | (1,644) | 2.6 | 22.4 | 40.5 | 28.6 | 5.9 | (3.13) |
| 강원 | (162) | 4.3 | 24.9 | 27.2 | 34.8 | 8.9 | (3.1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5.0 | 13.3 | 40.9 | 35.1 | 5.6 | (3.23) |
| 광주/전북/전남 | (531) | 3.2 | 16.7 | 38.0 | 32.0 | 10.1 | (3.29) |
| 대구/경북 | (527) | 4.7 | 27.9 | 35.7 | 28.7 | 2.9 | (2.97) |
| 부산/울산/경남 | (815) | 0.6 | 13.5 | 46.4 | 32.8 | 6.8 | (3.32) |
| 제주 | (68) | 3.3 | 26.6 | 38.1 | 22.4 | 9.6 | (3.08)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3.9 | 33.2 | 37.6 | 13.6 | 11.7 | (2.9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3.3 | 26.6 | 37.5 | 28.7 | 4.0 | (3.03) |
| 200~300만원 미만 | (832) | 3.6 | 18.0 | 39.9 | 33.9 | 4.6 | (3.18)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3.2 | 21.1 | 39.5 | 29.8 | 6.3 | (3.15)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2.5 | 17.2 | 41.3 | 33.3 | 5.6 | (3.22) |
| 500~600만원 미만 | (927) | 2.1 | 14.7 | 39.4 | 35.6 | 8.3 | (3.33) |
| 600만원 이상 | (714) | 1.8 | 17.9 | 38.9 | 31.1 | 10.4 | (3.31) |

‘세계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많이 있다+있는 편이다)’는 응답은 47.8%인 반면, ‘관심이 없다(전혀 없다+없는 편이다)’는 의견은 11.2%로 적었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1점으로 나왔다.

(단위: %)



[그림 3-6] 세계의 미래

세계 미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집단은 서울 지역이었으며, 가구소득과 관심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 50대와 60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9] 관심도 - 세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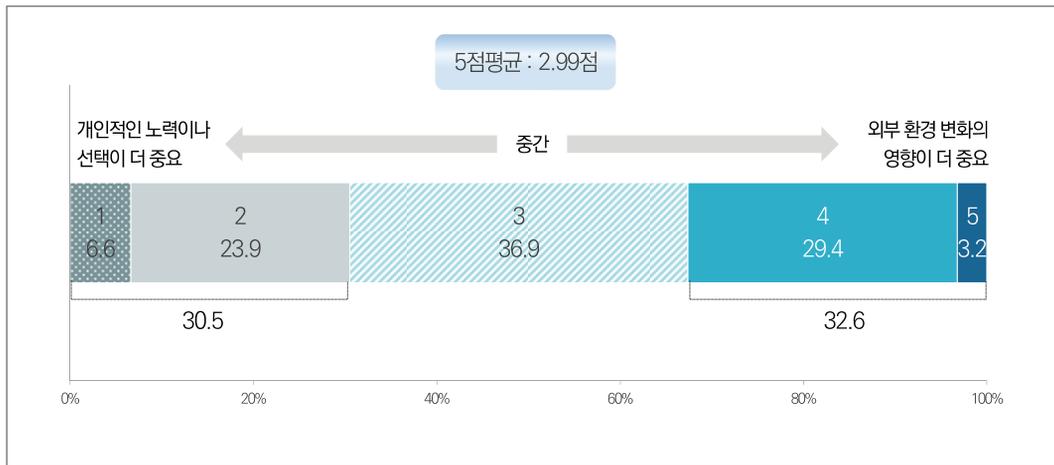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없다 (1점) | ② 없는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있는 편이다 (4점) | ⑤ 많이 있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1.2 | 10.0 | 41.0 | 41.8 | 6.0 | (3.4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4 | 10.0 | 40.3 | 41.8 | 6.6 | (3.42) |
| 여성 | (2,677) | 1.1 | 10.0 | 41.7 | 41.8 | 5.5 | (3.4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3 | 8.1 | 32.6 | 47.5 | 10.5 | (3.58) |
| 20~29세 | (779) | 0.9 | 7.1 | 38.4 | 44.7 | 8.8 | (3.53) |
| 30~39세 | (791) | 1.2 | 8.1 | 37.1 | 47.2 | 6.4 | (3.50) |
| 40~49세 | (952) | 0.5 | 9.4 | 40.0 | 44.6 | 5.5 | (3.45) |
| 50~59세 | (992) | 1.4 | 11.2 | 46.6 | 35.5 | 5.2 | (3.32) |
| 60대 이상 | (1,414) | 1.8 | 12.6 | 43.7 | 38.0 | 3.9 | (3.29)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2 | 8.3 | 32.5 | 47.5 | 10.4 | (3.58) |
| 인천/경기 | (1,644) | 1.1 | 11.3 | 46.3 | 36.7 | 4.5 | (3.32) |
| 강원 | (162) | 2.5 | 21.6 | 45.0 | 24.9 | 5.9 | (3.1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2 | 6.2 | 44.0 | 42.8 | 5.8 | (3.46) |
| 광주/전북/전남 | (531) | 1.0 | 6.9 | 44.2 | 42.8 | 5.1 | (3.44) |
| 대구/경북 | (527) | 2.3 | 16.0 | 33.8 | 42.5 | 5.5 | (3.33) |
| 부산/울산/경남 | (815) | 0.7 | 6.6 | 40.6 | 47.8 | 4.4 | (3.49) |
| 제주 | (68) | 1.2 | 21.9 | 43.1 | 25.4 | 8.4 | (3.18)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6.2 | 15.6 | 40.0 | 32.3 | 6.0 | (3.1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7 | 11.8 | 52.0 | 33.0 | 1.5 | (3.2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2.5 | 11.5 | 43.2 | 38.0 | 4.8 | (3.31)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7 | 10.7 | 41.9 | 39.4 | 6.1 | (3.3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5 | 10.2 | 41.1 | 42.0 | 6.2 | (3.43)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6 | 7.5 | 34.7 | 50.2 | 7.0 | (3.55)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8.2 | 39.6 | 44.3 | 7.8 | (3.51) |

라. 나의 미래의 결정 요인

나의 미래가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과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 중 무엇에 대해 결정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6.9%가 ‘중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2.6%,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30.5%로 나타나 각각의 의견이 서로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단위: %)



[그림 3-7] 나의 미래의 결정 요인

이를 다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집단은 강원 지역이었으며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경남권역이었다.

[표 3-10] 나의 미래의 결정 요인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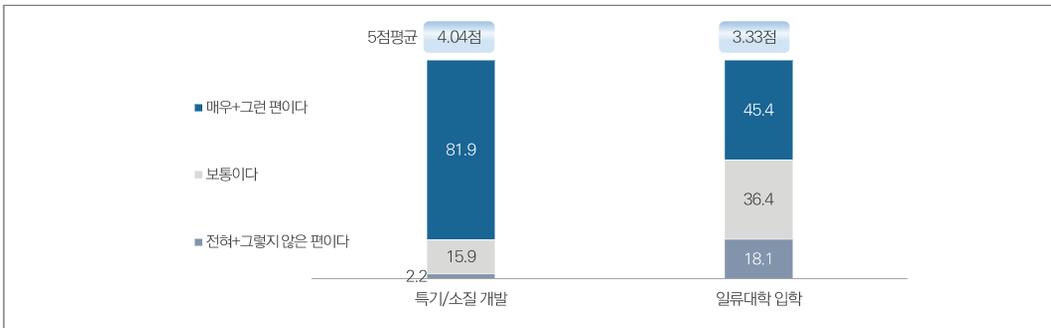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①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중요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6.6 | 23.9 | 36.9 | 29.4 | 3.2 | (2.9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7.5 | 23.2 | 37.2 | 28.9 | 3.1 | (2.97) |
| 여성 | (2,677) | 5.8 | 24.5 | 36.6 | 29.8 | 3.4 | (3.0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2.6 | 23.6 | 32.8 | 28.9 | 2.1 | (2.84) |
| 20~29세 | (779) | 8.9 | 25.3 | 32.6 | 30.5 | 2.7 | (2.93) |
| 30~39세 | (791) | 7.0 | 25.6 | 31.8 | 31.8 | 3.8 | (3.00) |
| 40~49세 | (952) | 5.9 | 22.5 | 36.6 | 31.6 | 3.5 | (3.04) |
| 50~59세 | (992) | 5.8 | 20.6 | 39.2 | 30.7 | 3.6 | (3.06) |
| 60대 이상 | (1,414) | 4.6 | 25.4 | 41.8 | 25.1 | 3.0 | (2.96)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8.3 | 26.4 | 32.9 | 28.5 | 3.9 | (2.93) |
| 인천/경기 | (1,644) | 4.5 | 26.1 | 38.6 | 29.3 | 1.5 | (2.97) |
| 강원 | (162) | 26.1 | 20.8 | 25.1 | 22.5 | 5.5 | (2.6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8.9 | 20.3 | 31.8 | 33.8 | 5.2 | (3.06) |
| 광주/전북/전남 | (531) | 12.3 | 27.6 | 33.9 | 22.9 | 3.3 | (2.77) |
| 대구/경북 | (527) | 2.7 | 23.8 | 45.3 | 22.3 | 5.9 | (3.05) |
| 부산/울산/경남 | (815) | 1.2 | 17.4 | 41.0 | 38.8 | 1.6 | (3.22) |
| 제주 | (68) | 21.6 | 18.4 | 33.9 | 15.8 | 10.4 | (2.7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9.8 | 18.5 | 32.8 | 31.0 | 8.0 | (3.09) |
| 100~200만원 미만 | (360) | 6.2 | 24.9 | 45.0 | 21.5 | 2.4 | (2.89) |
| 200~300만원 미만 | (832) | 4.8 | 23.4 | 38.2 | 30.2 | 3.4 | (3.04)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6.3 | 22.5 | 36.0 | 32.5 | 2.7 | (3.03)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7.9 | 23.7 | 37.1 | 27.6 | 3.6 | (2.95) |
| 500~600만원 미만 | (927) | 7.7 | 24.0 | 34.6 | 30.5 | 3.2 | (2.97) |
| 600만원 이상 | (714) | 5.7 | 27.0 | 35.8 | 28.5 | 3.0 | (2.96) |

2 개인과 가치관

가. 학교에 대한 인식

좋은 학교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교과목뿐 아니라 특기/소질을 살릴 수 있는 학교’에 81.9%가 ‘그렇다(매우+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45.4%만이 ‘그렇다(매우+그런 편이다)’고 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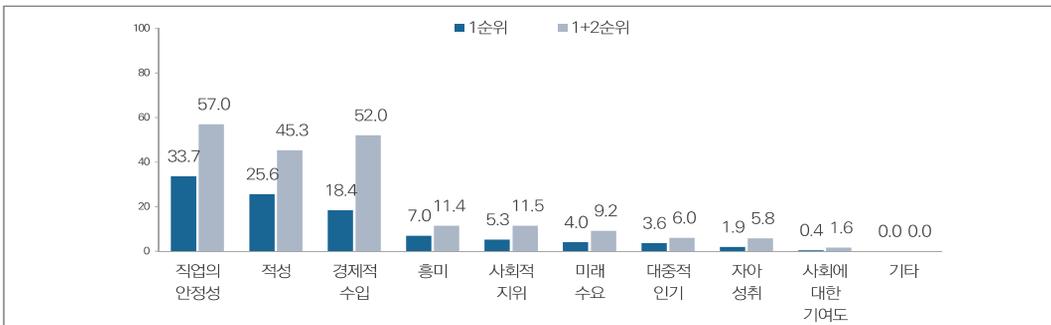


[그림 3-8] 학교에 대한 인식

나.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에 대해 ‘직업의 안정성’(1순위: 33.7%, 1+2순위: 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적성’(1순위: 25.6%, 1+2순위: 45.3%)과 ‘경제적 수입’(1순위: 18.4%, 1+2순위: 52.0%)의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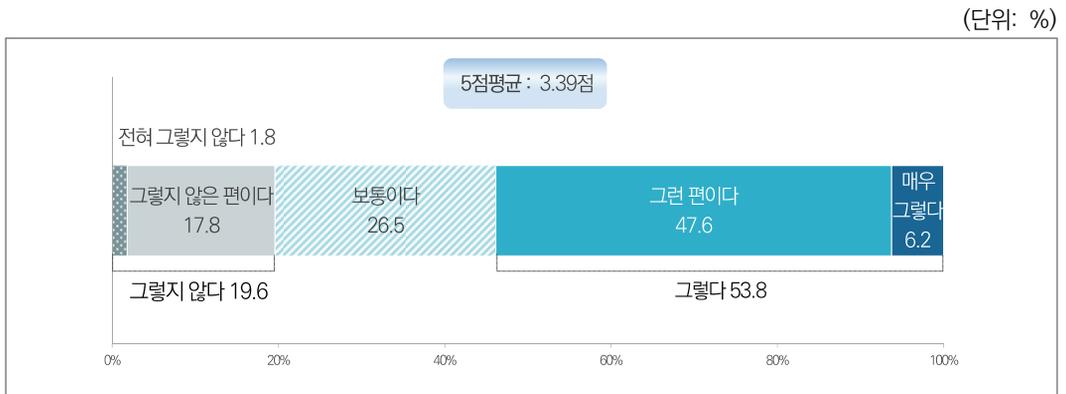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9] 직업 선택 시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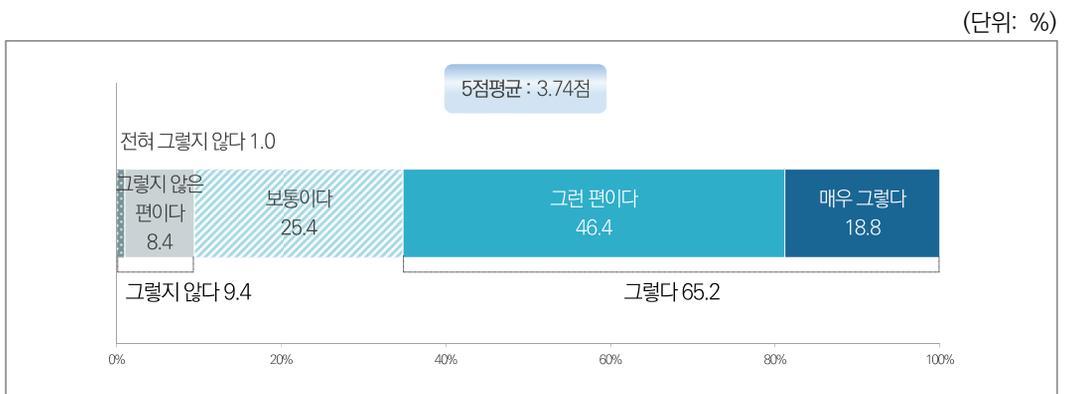
다. 일에 대한 인식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53.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9.6%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39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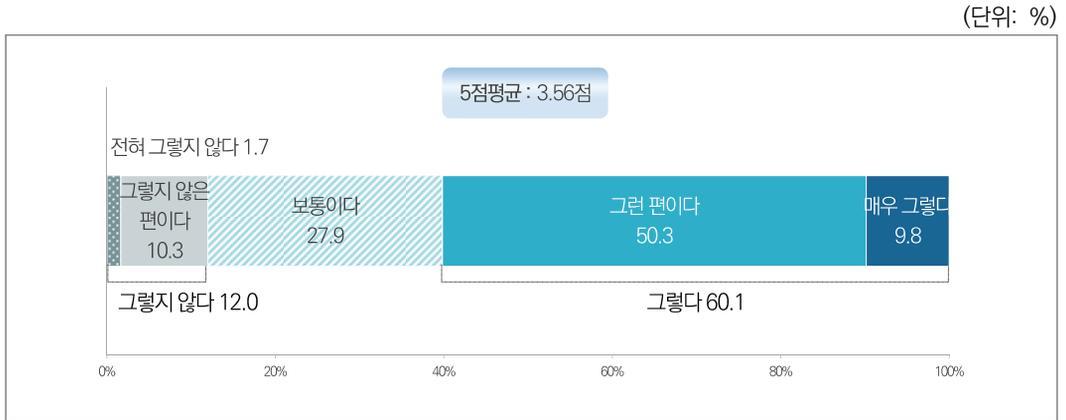
[그림 3-10] 일에 대한 인식 -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이 우선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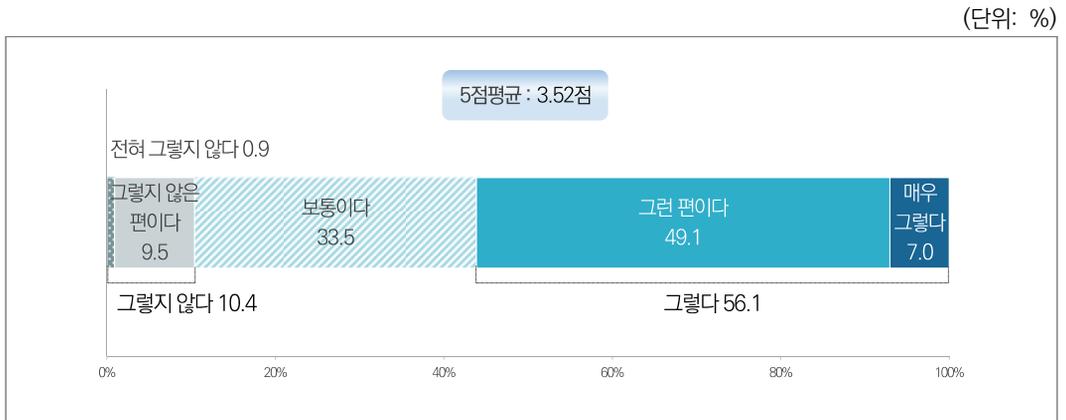
[그림 3-11] 일에 대한 인식 -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2.0%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에 3.56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일에 대한 인식 -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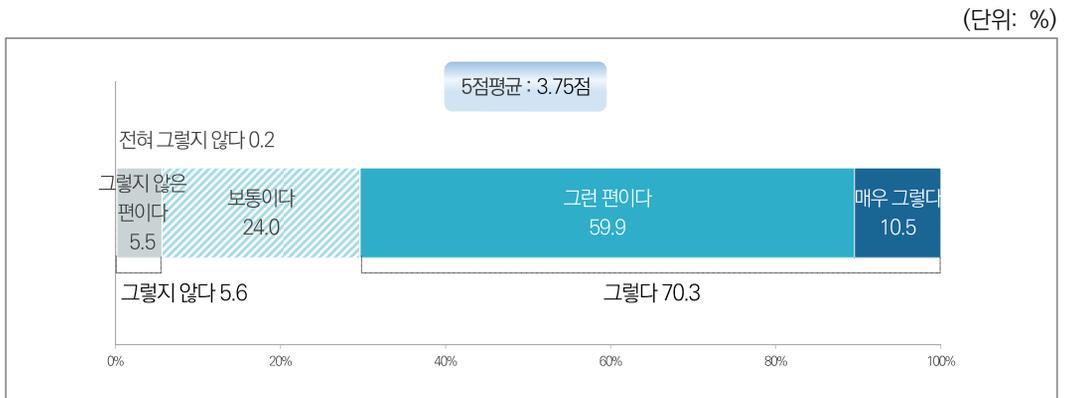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4%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2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일에 대한 인식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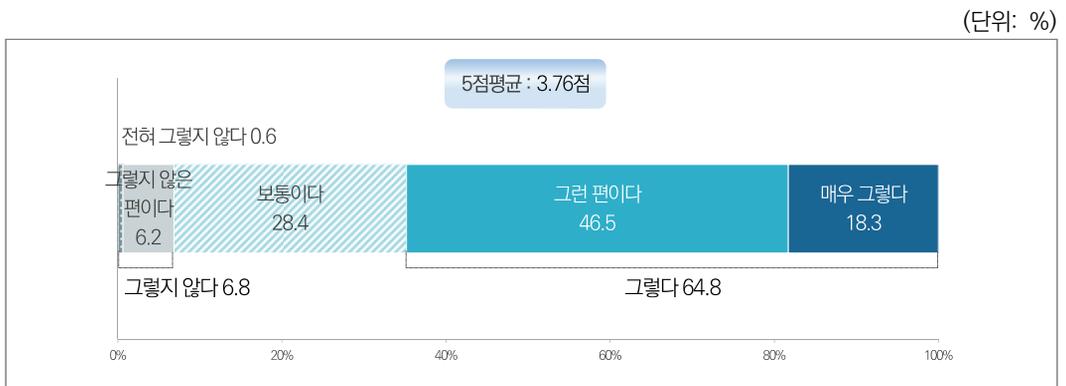
라. 기타 가치관

‘여가 생활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0.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5.6%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에 3.75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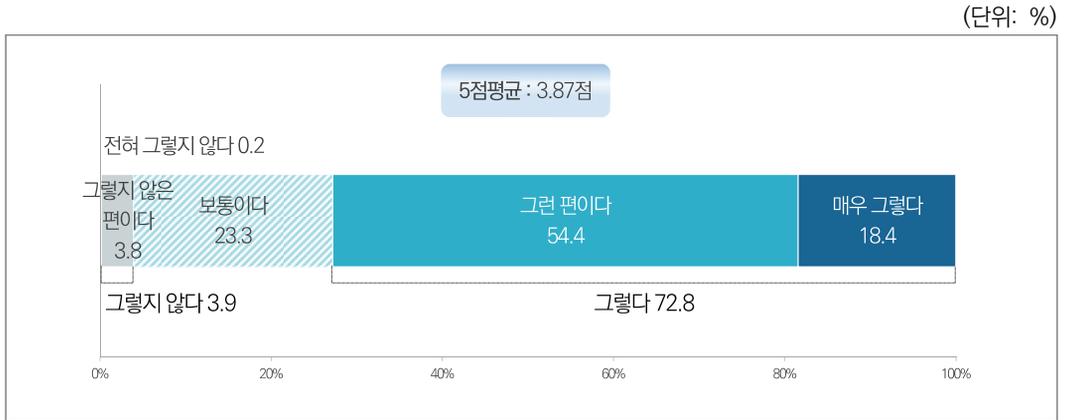
[그림 3-14] 기타 가치관 - 여가생활은 내게 매우 중요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에는 6.8% 답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6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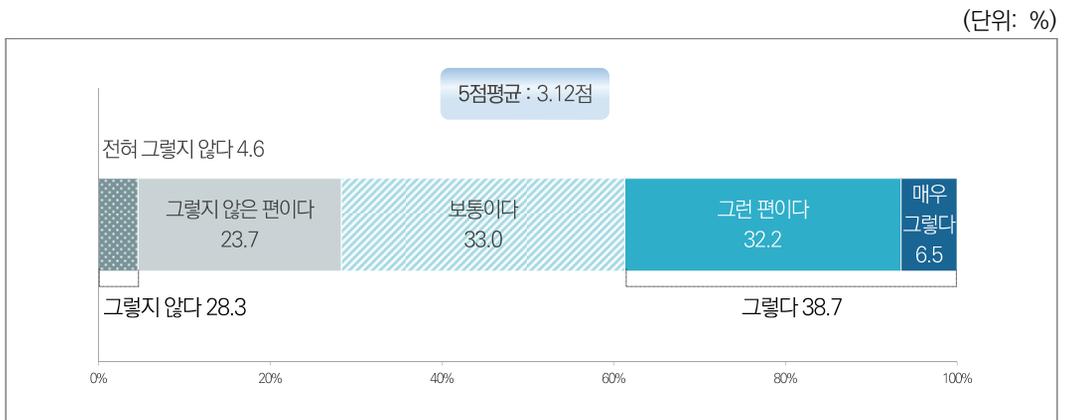
[그림 3-15] 기타 가치관 -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에서는 응답자의 7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7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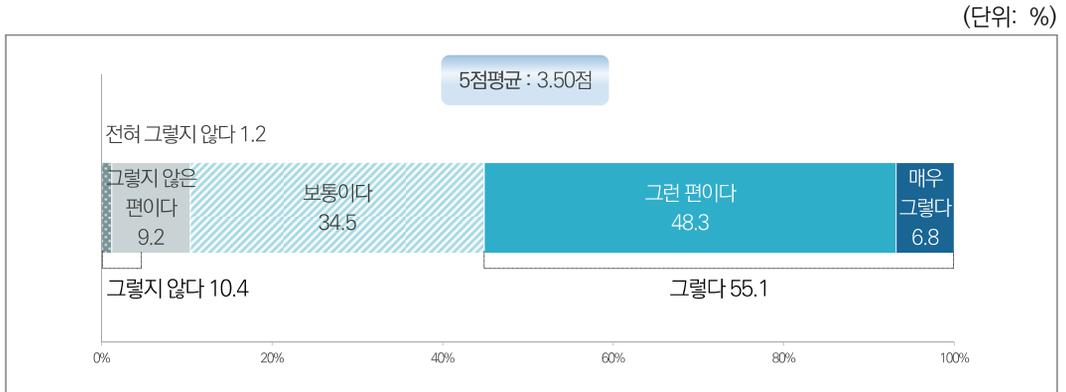
[그림 3-16] 기타 가치관 -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8.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8.3%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2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7] 기타 가치관 -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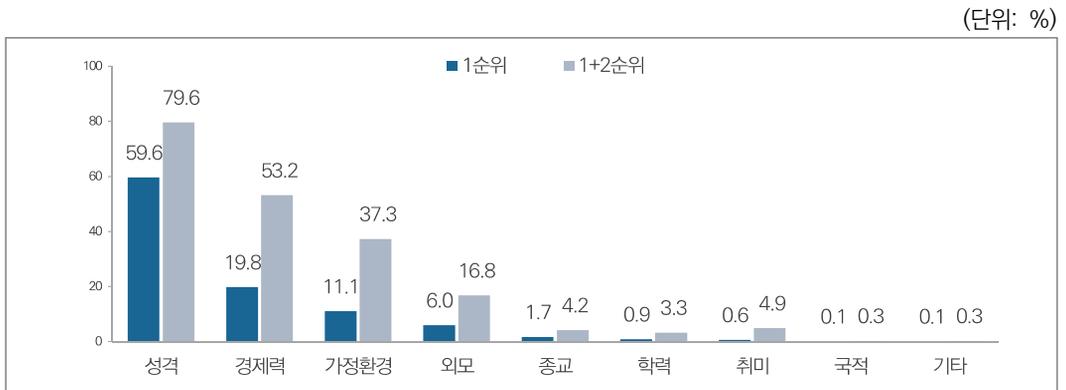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4%에 그쳤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0점이었다.



[그림 3-18] 기타 가치관 -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은 중요

마. 배우자 선택 시 중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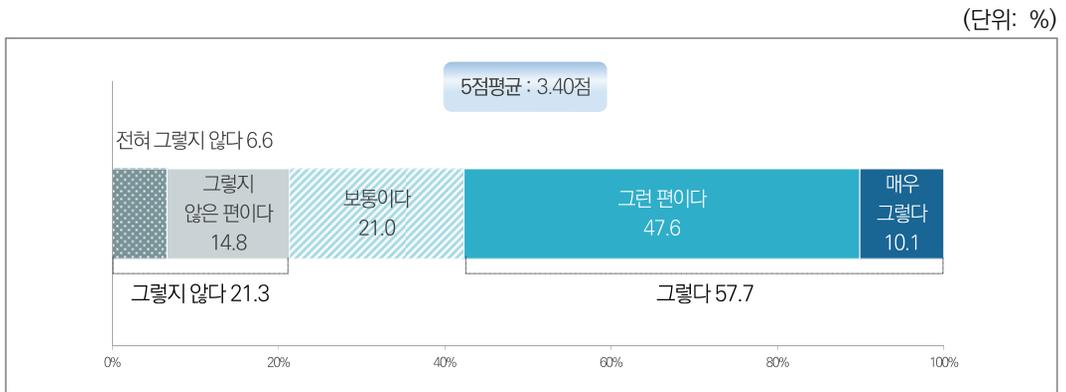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성격’(1순위: 59.6%, 1+2순위: 79.6%)을 최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제력’(1순위: 19.8%, 1+2순위: 53.2%)과 ‘가정환경’(1순위: 11.1%, 1+2순위: 37.3%), ‘외모’(1순위: 6.0%, 1+2순위: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배우자 선택 시 중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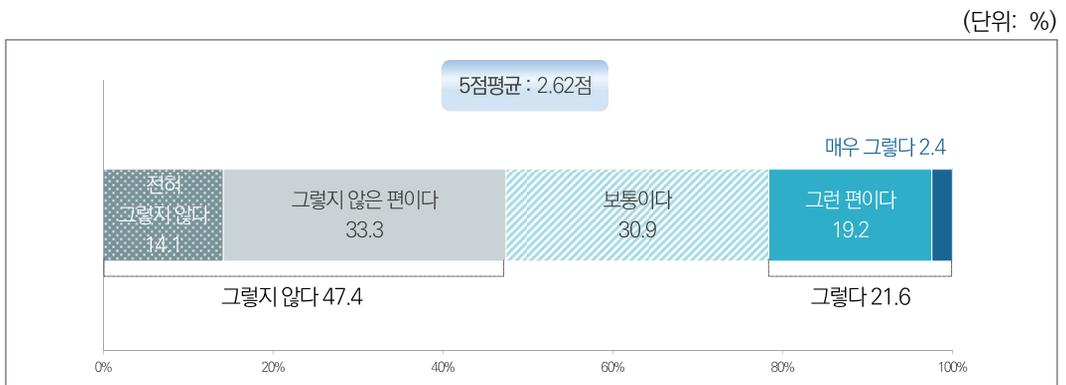
바. 가족에 대한 범주 인식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0] 가족 범주 인식 -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21.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47.4%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더 우세하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보통’ 미만의 동의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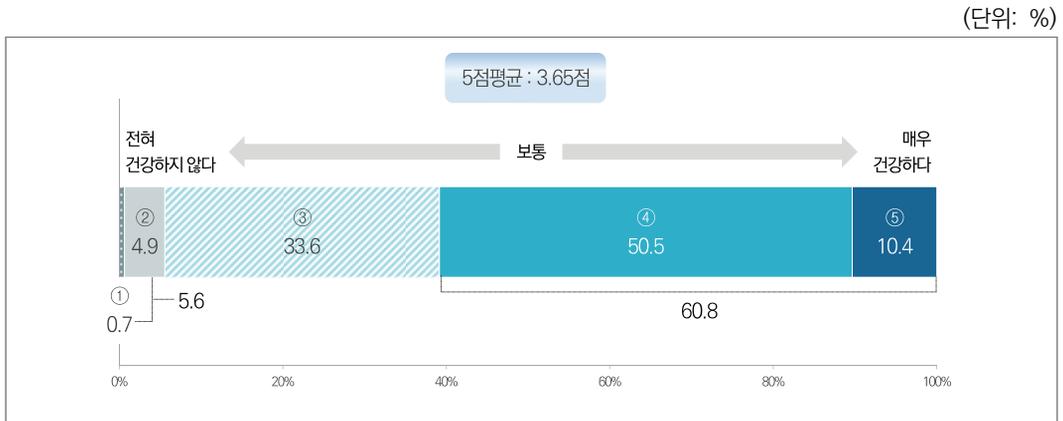


[그림 3-21] 가족 범주 인식 -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음

3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

가.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본인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건강하다(4+5점)’고 인식하는 비율은 60.8%인 반면, ‘건강하지 않다(1+2점)’는 5.6%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3.6%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5 점 만점에 3.65점이었다.



[그림 3-22]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건강하다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울, 경남권에서 높았다. 이와 달리, 강원 지역과 충청권에서 건강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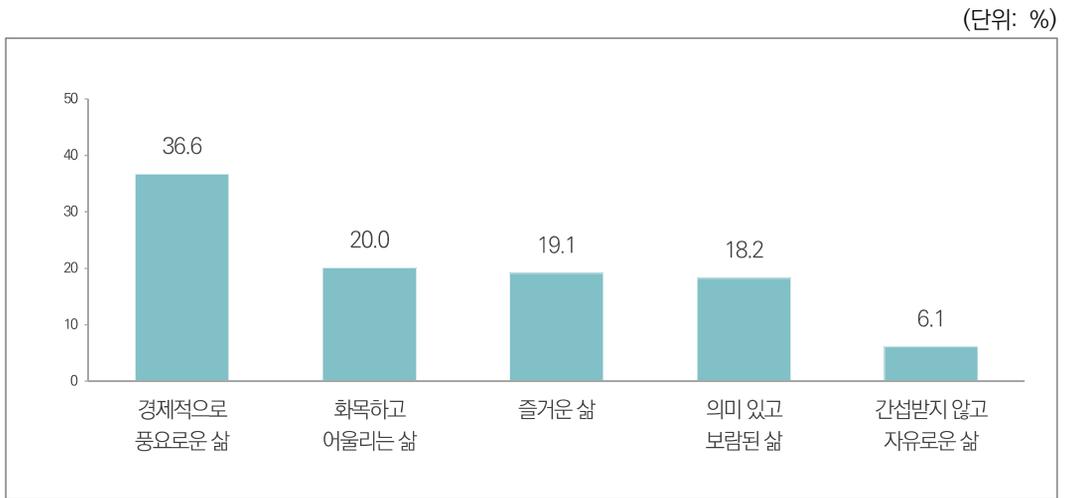
[표 3-11]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건강하지 않다 (1점) | ② (2점) | ③ 보통 (3점) | ④ (4점) | ⑤ 매우 건강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7 | 4.9 | 33.6 | 50.5 | 10.4 | (3.6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8 | 4.0 | 31.3 | 51.8 | 12.0 | (3.70) |
| 여성 | (2,677) | 0.5 | 5.8 | 35.8 | 49.1 | 8.8 | (3.6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2 | 1.8 | 19.4 | 46.4 | 32.1 | (4.08) |
| 20~29세 | (779) | 0.7 | 2.6 | 22.5 | 48.8 | 25.4 | (3.95) |
| 30~39세 | (791) | 0.3 | 1.6 | 27.5 | 57.5 | 13.1 | (3.82) |
| 40~49세 | (952) | 0.5 | 3.0 | 30.6 | 59.6 | 6.3 | (3.68) |
| 50~59세 | (992) | 0.5 | 6.0 | 42.3 | 48.9 | 2.3 | (3.47) |
| 60대 이상 | (1,414) | 1.2 | 9.4 | 43.0 | 43.5 | 2.9 | (3.38)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1.5 | 27.1 | 60.9 | 10.5 | (3.80) |
| 인천/경기 | (1,644) | 0.2 | 4.4 | 36.8 | 49.0 | 9.6 | (3.63) |
| 강원 | (162) | 3.5 | 6.7 | 48.8 | 29.7 | 11.2 | (3.3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2.7 | 7.1 | 38.4 | 45.7 | 6.1 | (3.45) |
| 광주/전북/전남 | (531) | 0.9 | 9.2 | 35.0 | 42.3 | 12.7 | (3.57) |
| 대구/경북 | (527) | 0.4 | 7.2 | 37.9 | 42.0 | 12.7 | (3.59) |
| 부산/울산/경남 | (815) | 0.1 | 3.9 | 22.3 | 62.0 | 11.8 | (3.81) |
| 제주 | (68) | 6.2 | 6.4 | 68.4 | 11.2 | 7.8 | (3.08)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8.1 | 21.5 | 51.7 | 13.1 | 5.7 | (2.8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3.1 | 18.8 | 40.4 | 34.0 | 3.8 | (3.16)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8 | 8.0 | 36.4 | 46.9 | 7.9 | (3.5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3 | 2.6 | 35.8 | 50.8 | 10.5 | (3.69)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3.0 | 32.3 | 55.6 | 8.9 | (3.7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3 | 2.7 | 28.6 | 55.4 | 13.0 | (3.78)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2.3 | 29.6 | 52.1 | 15.9 | (3.81) |

나.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본인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6.6%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20.0%), ‘즐거운 삶’(19.1%), ‘의미 있고 보람된 삶’(18.2%),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6.1%)의 순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3-23]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드러난다. 10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즐거운 삶’, ‘자유로운 삶’에 응답률이 높았고, 20대는 ‘자유로운 삶’에, 30대 이상은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제주는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 강원은 ‘보람된 삶’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3-12]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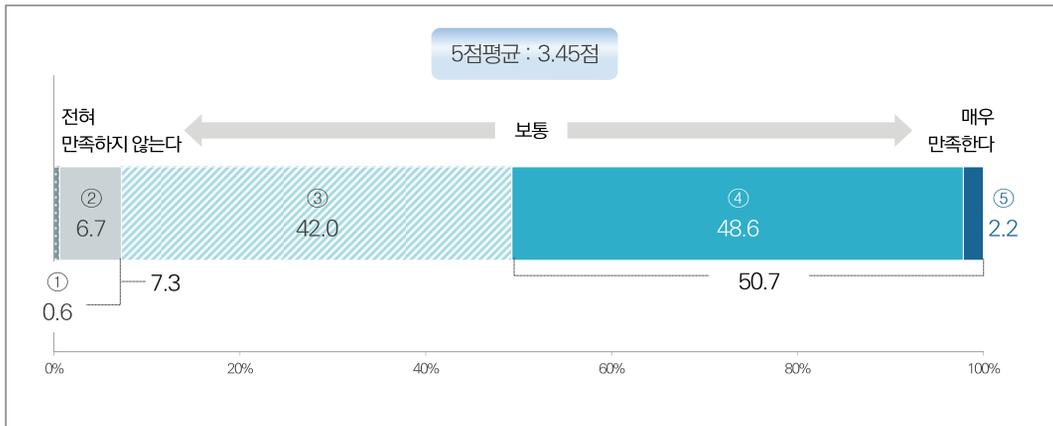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 | 즐거움 삶 | 의미 있고 보람된 삶 |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
|--------------|---------|-----------------|----------------|-------|----------------|----------------------|
| 전 체 | (5,321) | 36.6 | 20.0 | 19.1 | 18.2 | 6.1 |
| 성별 | | | | | | |
| 남성 | (2,644) | 37.2 | 18.8 | 18.7 | 18.3 | 6.9 |
| 여성 | (2,677) | 36.1 | 21.2 | 19.4 | 18.1 | 5.2 |
| 연령별 | | | | | | |
| 13~19세 | (393) | 27.7 | 9.4 | 30.6 | 21.7 | 10.6 |
| 20~29세 | (779) | 34.0 | 9.7 | 23.1 | 19.7 | 13.4 |
| 30~39세 | (791) | 38.6 | 21.8 | 17.6 | 16.1 | 5.8 |
| 40~49세 | (952) | 41.7 | 23.5 | 13.5 | 17.6 | 3.8 |
| 50~59세 | (992) | 42.1 | 21.3 | 15.1 | 18.1 | 3.4 |
| 60대 이상 | (1,414) | 32.2 | 24.4 | 21.0 | 18.1 | 4.3 |
| 권역별 | | | | | | |
| 서울 | (1,010) | 32.2 | 24.1 | 19.8 | 17.4 | 6.5 |
| 인천/경기 | (1,644) | 32.1 | 21.4 | 19.0 | 19.6 | 7.9 |
| 강원 | (162) | 24.2 | 23.2 | 17.7 | 26.9 | 8.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42.5 | 17.9 | 15.9 | 18.7 | 5.0 |
| 광주/전북/전남 | (531) | 30.0 | 22.7 | 18.8 | 21.8 | 6.7 |
| 대구/경북 | (527) | 47.7 | 16.2 | 18.3 | 13.1 | 4.6 |
| 부산/울산/경남 | (815) | 47.9 | 12.5 | 21.2 | 15.8 | 2.6 |
| 제주 | (68) | 24.6 | 34.1 | 21.0 | 14.4 | 5.8 |
| 가구소득별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41.2 | 27.8 | 14.3 | 15.0 | 1.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31.2 | 23.9 | 21.8 | 17.1 | 6.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41.9 | 18.8 | 18.7 | 14.0 | 6.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38.4 | 19.4 | 17.2 | 20.2 | 4.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36.9 | 17.6 | 18.6 | 21.1 | 5.8 |
| 500~600만원 미만 | (927) | 33.9 | 24.5 | 19.4 | 14.9 | 7.3 |
| 600만원 이상 | (714) | 32.6 | 17.9 | 22.2 | 20.3 | 6.9 |

다.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 본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4+5점)'는 인식이 50.7%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1+2점)'는 7.3%에 불과하여 편차가 컸으며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42.0%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24] 삶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 충청권, 제주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표 3-13]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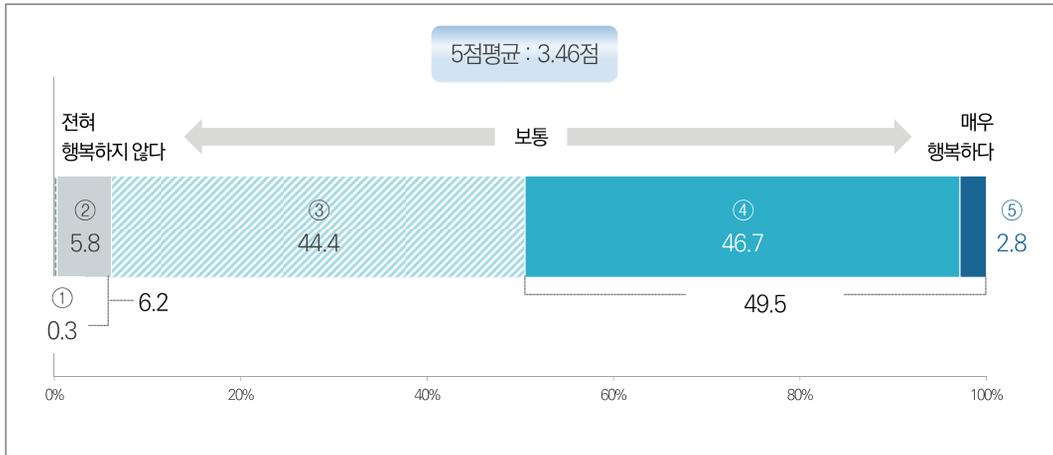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1점) | ② (2점) | ③ 보통 (3점) | ④ (4점) | ⑤ 매우 만족 한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6 | 6.7 | 42.0 | 48.6 | 2.2 | (3.4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8 | 7.4 | 41.6 | 47.7 | 2.5 | (3.44) |
| 여성 | (2,677) | 0.4 | 5.9 | 42.4 | 49.5 | 1.8 | (3.46)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5 | 3.7 | 28.6 | 64.4 | 2.9 | (3.65) |
| 20~29세 | (779) | 0.8 | 4.7 | 34.5 | 56.4 | 3.6 | (3.57) |
| 30~39세 | (791) | 0.4 | 4.8 | 37.0 | 54.9 | 2.8 | (3.55) |
| 40~49세 | (952) | 0.5 | 4.9 | 40.7 | 52.3 | 1.7 | (3.50) |
| 50~59세 | (992) | 0.4 | 7.8 | 48.5 | 41.5 | 1.9 | (3.37) |
| 60대 이상 | (1,414) | 0.9 | 10.0 | 48.9 | 38.9 | 1.3 | (3.30)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2 | 5.3 | 32.2 | 60.3 | 2.1 | (3.59) |
| 인천/경기 | (1,644) | 0.5 | 7.7 | 42.9 | 47.5 | 1.3 | (3.41) |
| 강원 | (162) | 1.4 | 9.2 | 52.1 | 34.1 | 3.2 | (3.2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8 | 7.9 | 53.6 | 33.6 | 3.3 | (3.29) |
| 광주/전북/전남 | (531) | 1.1 | 5.2 | 46.7 | 43.3 | 3.6 | (3.43) |
| 대구/경북 | (527) | 0.1 | 5.7 | 50.0 | 43.4 | 0.7 | (3.39) |
| 부산/울산/경남 | (815) | 0.1 | 6.2 | 32.8 | 58.4 | 2.5 | (3.57) |
| 제주 | (68) | 3.5 | 9.9 | 57.3 | 22.8 | 6.5 | (3.19)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3.7 | 36.5 | 39.0 | 20.5 | 0.3 | (2.7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2.0 | 13.1 | 56.7 | 25.0 | 3.3 | (3.15)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9 | 11.8 | 46.6 | 38.1 | 1.6 | (3.2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1 | 6.6 | 42.7 | 48.3 | 2.2 | (3.4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3.2 | 41.8 | 53.0 | 1.7 | (3.53)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2 | 2.8 | 38.0 | 57.3 | 1.7 | (3.58)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4.7 | 33.9 | 57.7 | 3.6 | (3.60) |

라. 행복도

현재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행복하다(4+5점)’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5%로 나타난 반면, ‘행복하지 않다(1+2점)’는 응답은 6.2%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44.4%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25]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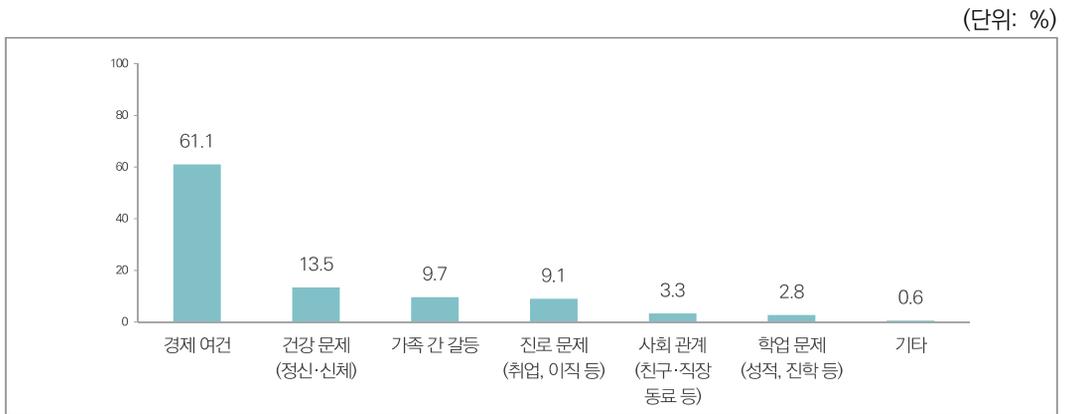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남권역에서 행복도가 높았다. 반면에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았다.

[표 3-14] 행복도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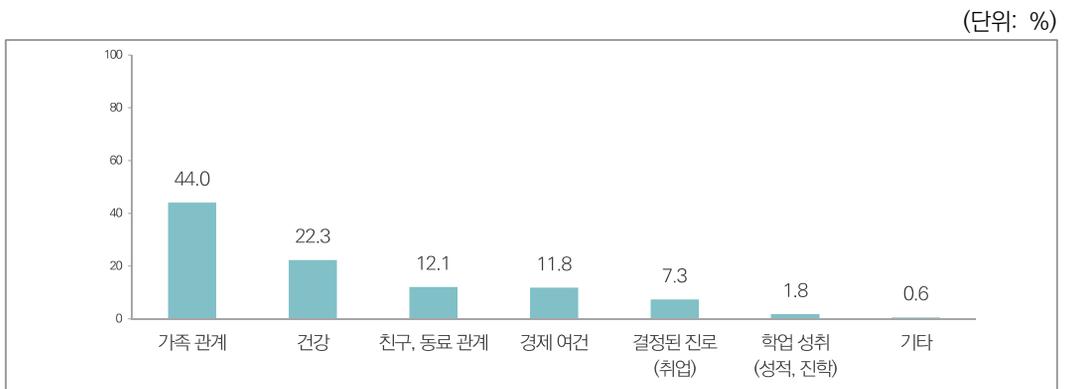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행복 하지 않다 (1점) | ② (2점) | ③ 보통 (3점) | ④ (4점) | ⑤ 매우 행복 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3 | 5.8 | 44.4 | 46.7 | 2.8 | (3.46)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4 | 6.3 | 43.9 | 46.2 | 3.2 | (3.45) |
| 여성 | (2,677) | 0.2 | 5.4 | 44.8 | 47.2 | 2.5 | (3.46)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4 | 3.1 | 33.0 | 58.9 | 4.6 | (3.64) |
| 20~29세 | (779) | 0.3 | 4.4 | 37.3 | 53.1 | 4.9 | (3.58) |
| 30~39세 | (791) | 0.3 | 4.1 | 36.5 | 55.5 | 3.6 | (3.58) |
| 40~49세 | (952) | 0.3 | 5.0 | 42.0 | 50.3 | 2.4 | (3.50) |
| 50~59세 | (992) | 0.4 | 6.5 | 52.9 | 38.3 | 1.8 | (3.35) |
| 60대 이상 | (1,414) | 0.3 | 8.5 | 51.4 | 38.2 | 1.6 | (3.32)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1 | 4.6 | 37.1 | 54.2 | 4.0 | (3.57) |
| 인천/경기 | (1,644) | 0.1 | 7.8 | 44.7 | 45.3 | 2.1 | (3.41) |
| 강원 | (162) | 2.6 | 6.4 | 47.3 | 40.1 | 3.6 | (3.36)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1 | 8.2 | 57.4 | 30.4 | 2.9 | (3.26) |
| 광주/전북/전남 | (531) | 0.3 | 3.7 | 48.9 | 43.3 | 3.7 | (3.46) |
| 대구/경북 | (527) | 0.0 | 4.1 | 52.9 | 41.4 | 1.6 | (3.41)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3.8 | 34.2 | 59.7 | 2.3 | (3.61) |
| 제주 | (68) | 1.3 | 10.7 | 48.9 | 30.3 | 8.8 | (3.3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7 | 31.3 | 44.8 | 19.9 | 1.2 | (2.8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1 | 10.1 | 62.7 | 23.5 | 2.6 | (3.16)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6 | 12.1 | 46.8 | 38.5 | 2.1 | (3.30)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6.5 | 45.3 | 44.7 | 3.5 | (3.45)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2.0 | 45.8 | 49.5 | 2.5 | (3.52)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2 | 2.2 | 40.1 | 55.1 | 2.4 | (3.57)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3.6 | 33.8 | 58.7 | 3.8 | (3.63) |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327명을 대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여건'(61.1%)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건강문제(정신·신체)'(13.5%), '가족 간 갈등'(9.7%), '진로 문제(취업, 이직 등)'(9.1%), '사회관계(친구, 직장동료 등)'(3.3%), '학업문제(성적, 진학 등)'(2.8%) 등의 순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꼽았다.



[그림 3-26]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2,633명을 대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관계'(44.0%)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건강'(22.3%), '친구와 동료 관계'(12.1%), '경제여건'(11.8%), '결정된 진로(취업)'(7.3%), '학업 성취(성적, 진학 등)'(1.8%) 등의 순으로 행복한 이유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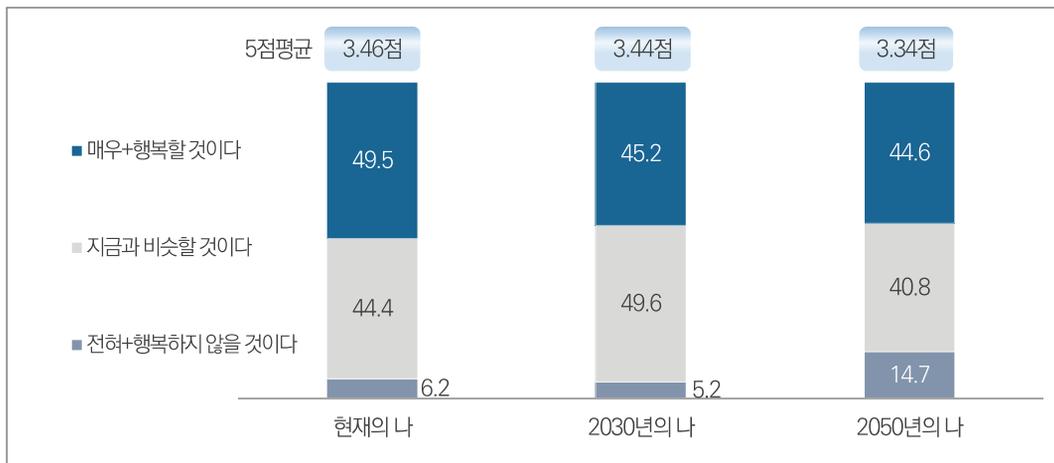


[그림 3-27]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나의 행복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고,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나타났다. 30년 후 나의 행복에 대해서는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와 비슷한 응답률로 나타난다. 반면에, 3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에 비해 다소 줄고,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5점 만점에 ‘현재 나의 행복’이 3.46점, ‘2030년 나의 행복’은 3.44점, ‘2050년 나의 행복’은 3.34점으로 현재와 10년 후의 행복은 서로 비슷하게 평가한 반면, 30년 후에는 행복 수준이 현재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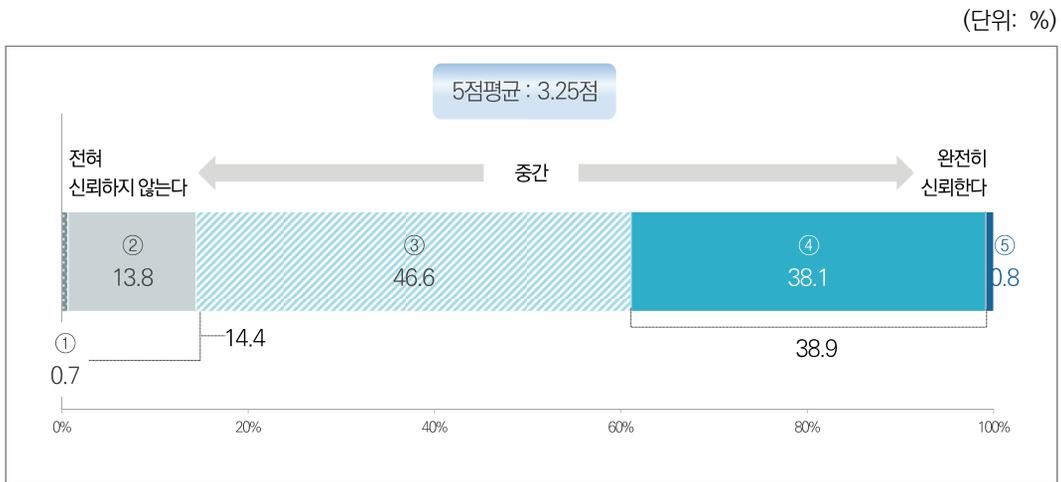


[그림 3-28] 미래의 나의 행복

4 사회와 가치관

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중간’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8.9%가 ‘신뢰한다(4+5점)’고 응답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1+2점)’는 의견은 1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수치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25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9] 타인에 대한 신뢰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집단은 만 13~19세, 경남 권역이었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경북권역과 제주 지역,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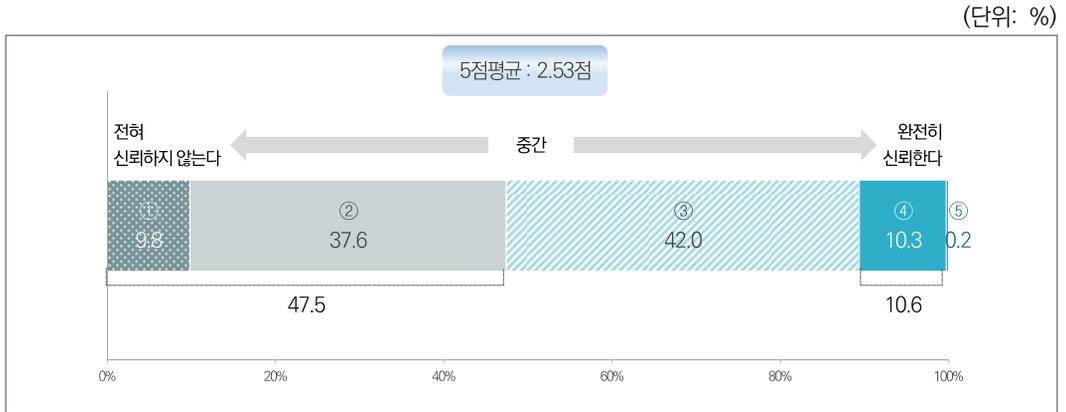
[표 3-15] 타인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완전히 신뢰 한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7 | 13.8 | 46.6 | 38.1 | 0.8 | (3.2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1 | 13.5 | 46.3 | 38.5 | 0.7 | (3.24) |
| 여성 | (2,677) | 0.3 | 14.1 | 47.0 | 37.7 | 1.0 | (3.25)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6 | 10.6 | 40.1 | 46.0 | 2.7 | (3.40) |
| 20~29세 | (779) | 0.9 | 16.8 | 40.7 | 40.5 | 1.0 | (3.24) |
| 30~39세 | (791) | 0.6 | 12.2 | 45.4 | 40.8 | 1.0 | (3.29) |
| 40~49세 | (952) | 1.0 | 13.1 | 48.6 | 36.9 | 0.4 | (3.23) |
| 50~59세 | (992) | 0.5 | 15.3 | 49.2 | 34.5 | 0.5 | (3.19) |
| 60대 이상 | (1,414) | 0.5 | 13.2 | 49.3 | 36.4 | 0.6 | (3.23)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4 | 11.7 | 42.4 | 44.5 | 1.1 | (3.34) |
| 인천/경기 | (1,644) | 0.5 | 14.8 | 50.2 | 33.6 | 0.9 | (3.20) |
| 강원 | (162) | 0.6 | 9.4 | 62.9 | 26.6 | 0.5 | (3.17)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2.1 | 13.5 | 49.6 | 34.3 | 0.5 | (3.17) |
| 광주/전북/전남 | (531) | 0.5 | 13.4 | 43.3 | 40.6 | 2.2 | (3.30) |
| 대구/경북 | (527) | 0.9 | 27.4 | 41.9 | 29.5 | 0.3 | (3.01) |
| 부산/울산/경남 | (815) | 0.1 | 7.2 | 42.7 | 49.8 | 0.1 | (3.43) |
| 제주 | (68) | 2.1 | 9.4 | 69.4 | 16.8 | 2.4 | (3.08)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7 | 17.6 | 50.7 | 30.1 | 0.9 | (3.13)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9 | 20.8 | 45.1 | 31.7 | 1.4 | (3.12)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6 | 15.5 | 45.5 | 36.8 | 0.6 | (3.19)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4 | 14.3 | 45.1 | 39.4 | 0.9 | (3.2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6 | 11.2 | 46.8 | 40.5 | 0.9 | (3.3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3 | 13.0 | 48.0 | 38.0 | 0.6 | (3.26) |
| 600만원 이상 | (714) | 0.5 | 12.3 | 48.7 | 37.6 | 0.9 | (3.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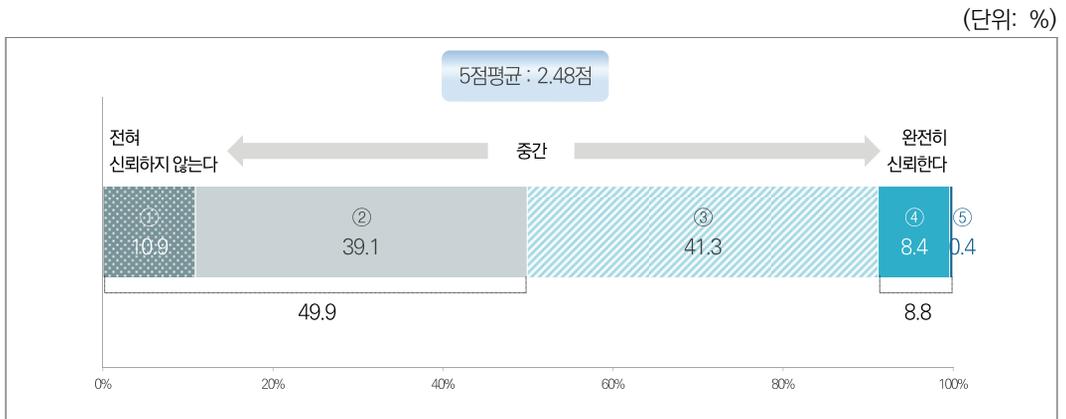
나. 특정 집단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6%만이 ‘신뢰한다(4+5점)’고 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1+2점)’는 의견이 47.5%로 크게 우세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2.0%로 나왔으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2.5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외국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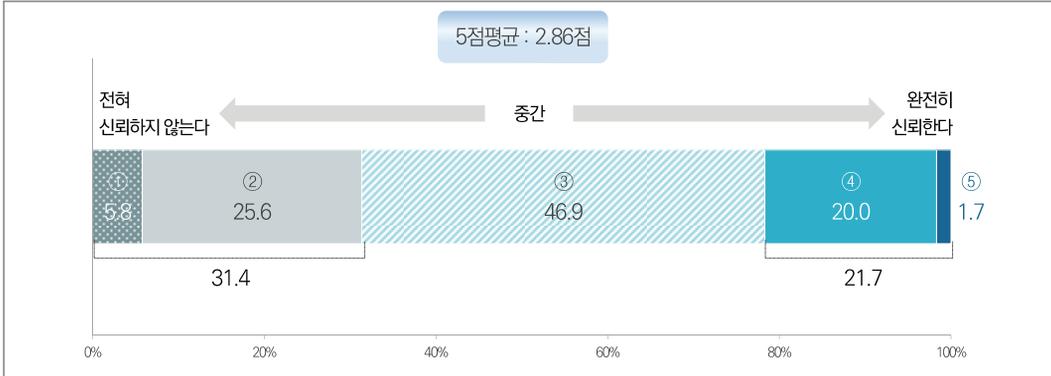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응답자의 8.8%만이 ‘신뢰한다(4+5점)’고 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1+2점)’는 의견이 49.9%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41.3%로 나왔다.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2.48점이다.



[그림 3-31]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북한이탈주민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응답자의 21.7%가 ‘신뢰한다(4+5점)’고 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1+2점)’는 의견은 31.4%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6.9%로 나타났다.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2.86점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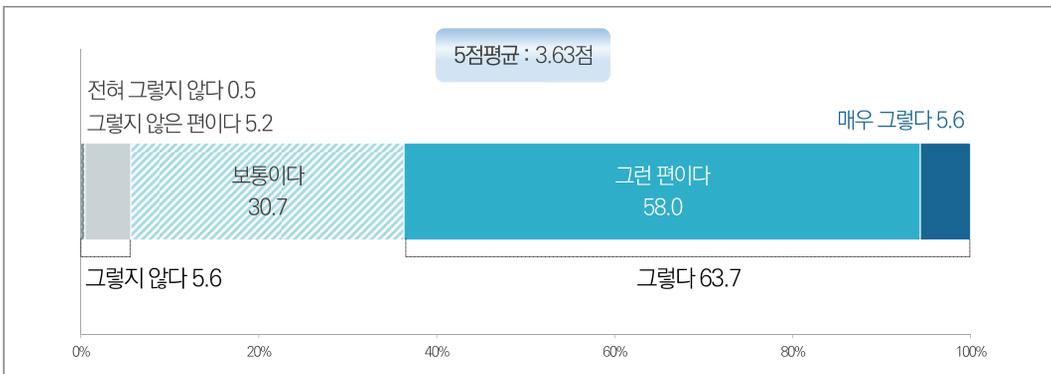


[그림 3-32] 사람과 대상에 대한 신뢰도 - 인공지능

다. 사회/집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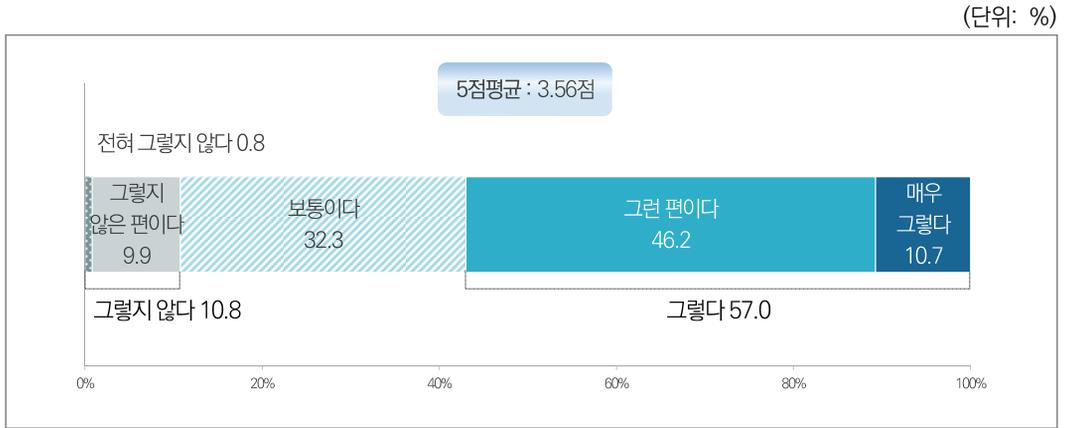
‘사회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5.6%로 나타났다. 또한,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63점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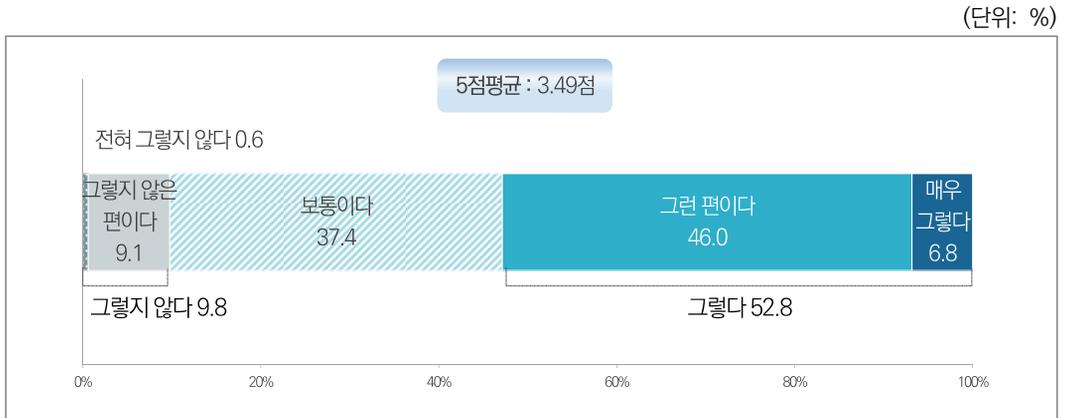
[그림 3-33] 사회와 집단 인식 - 사회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57.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선택은 10.8%로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56점으로 나왔다.



[그림 3-34] 사회와 집단 인식 -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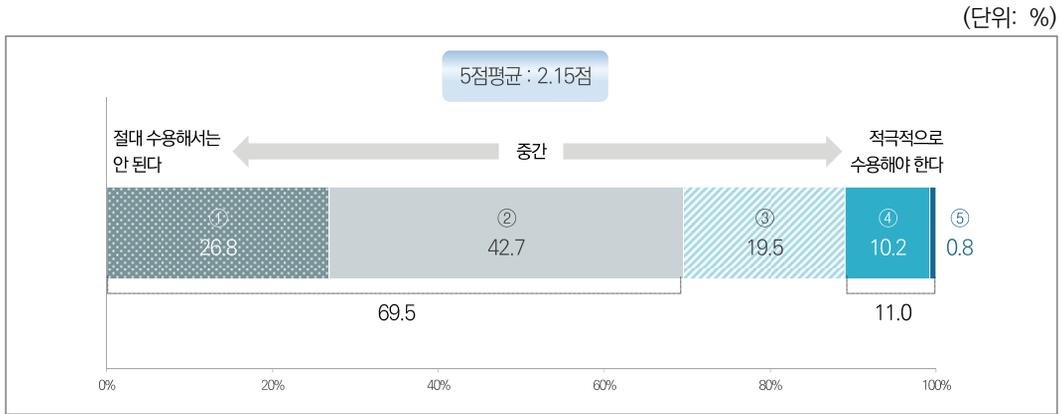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수치화한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3.49점이었다.



[그림 3-35] 사회와 집단 인식 -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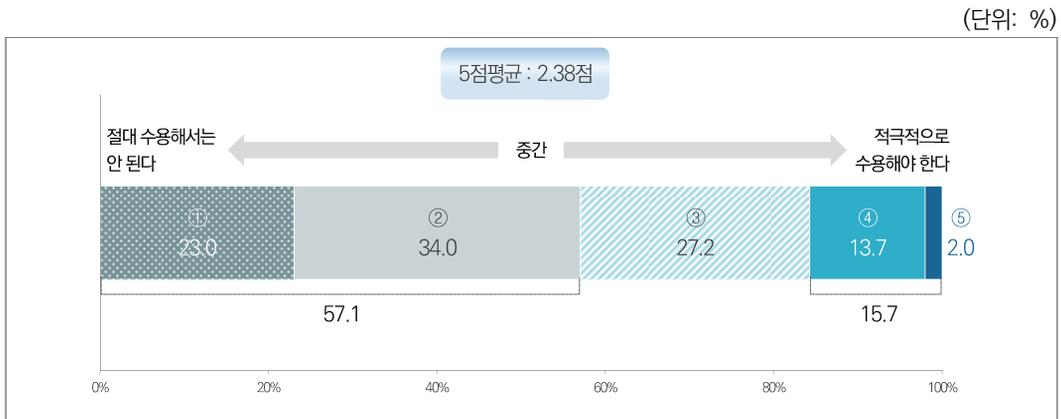
라. 사회의 수용 범위에 대한 인식

‘세금 안낸 사람이 국가에 혜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만이 ‘수용해야 한다(4+5점)’고 한 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1+2점)’는 응답률은 69.5%로 높았으며,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2.15점으로 나왔다.



[그림 3-36]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세금 안낸 사람이 국가에 혜택을 요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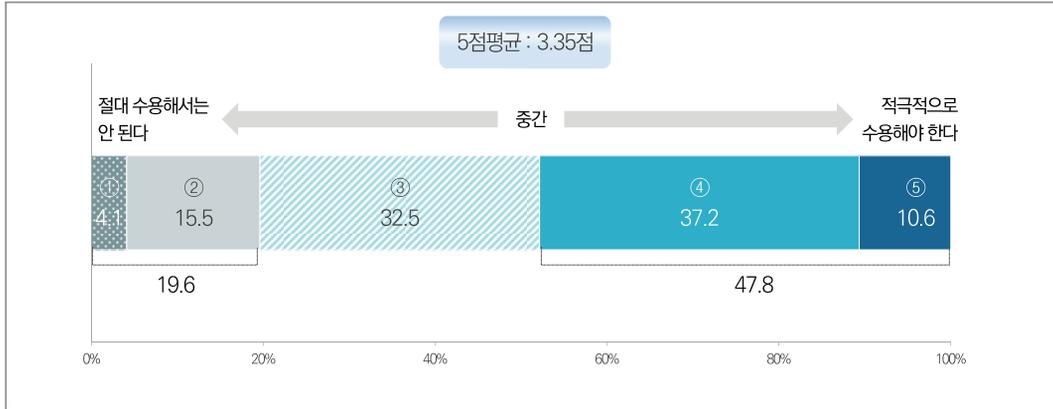
‘동성애’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5.7%만이 ‘수용해야 한다(4+5점)’고 한 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1+2점)’는 의견은 57.1%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38점이었다.



[그림 3-37]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동성애

‘안락사’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수용해야 한다(4+5점)’고 답한 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1+2점)’는 의견은 19.6%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35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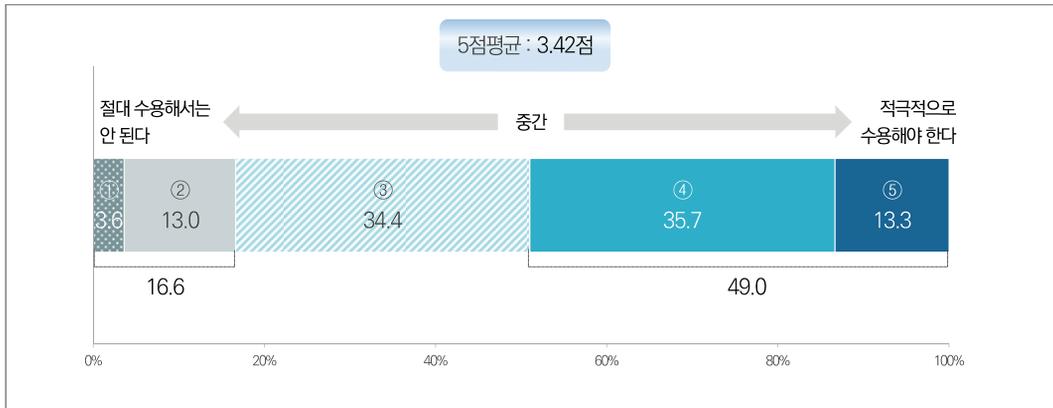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38]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안락사

‘사형제도’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9.0%가 ‘수용해야 한다(4+5점)’고 한 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1+2점)’는 의견은 16.6%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2점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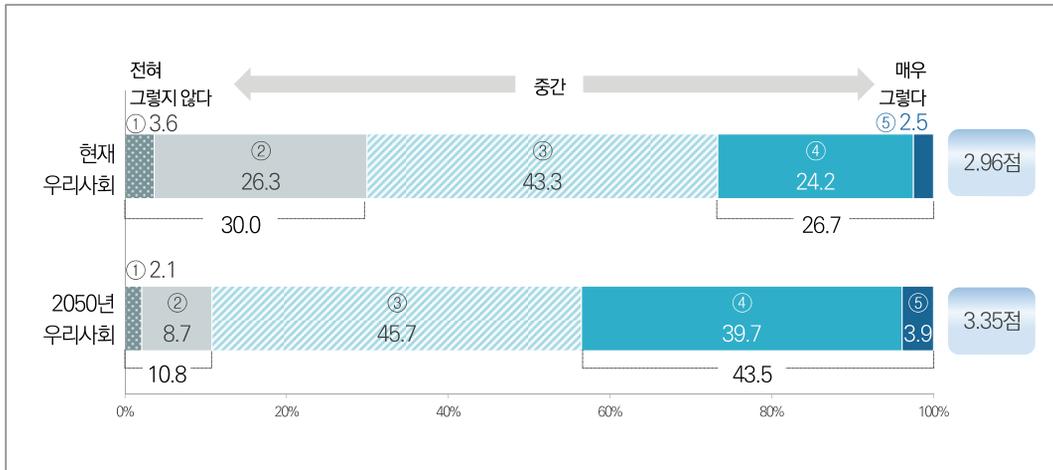
[그림 3-39] 사회의 수용 범위 인식 - 사형제도

마. 다양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회인가’에 응답자의 26.7%만이 ‘그렇다(4+5점)’고 하였고, 30.0%는 ‘그렇지 않다(1+2점)’고 해 동의하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년 후 우리사회가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5%가 ‘그렇다(4+5점)’고 한 반면, 10.8%만이 ‘그렇지 않다(1+2점)’고 해 30년 후에는 현재보다 더욱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에 포용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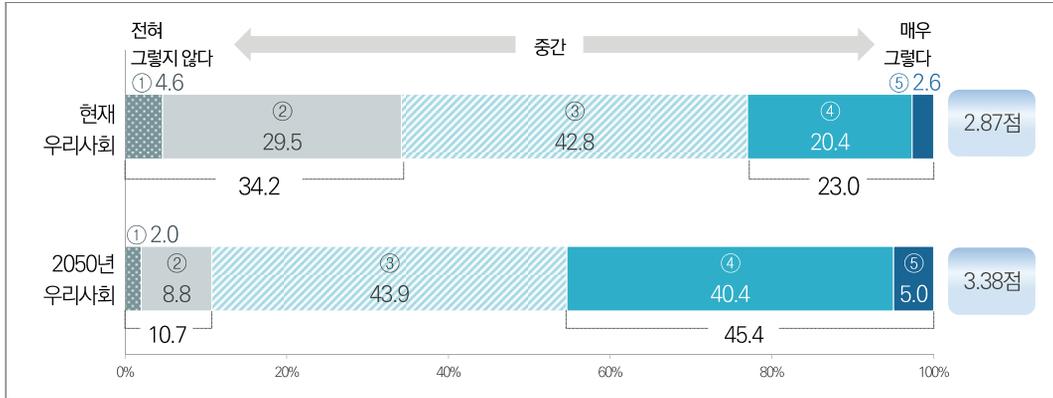


[그림 3-40] 우리사회의 다양성 인식 및 전망 -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회

‘현재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0%만이 ‘그렇다(4+5점)’고 하였고, 34.2%는 ‘그렇지 않다(1+2점)’고 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1%가량 더 우세하였다.

이어서 ‘30년 후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그렇다(4+5점)’고 답한 반면, 10.7%만이 ‘그렇지 않다(1+2점)’고 답하여 30년 후에는 현재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대우가 더 공평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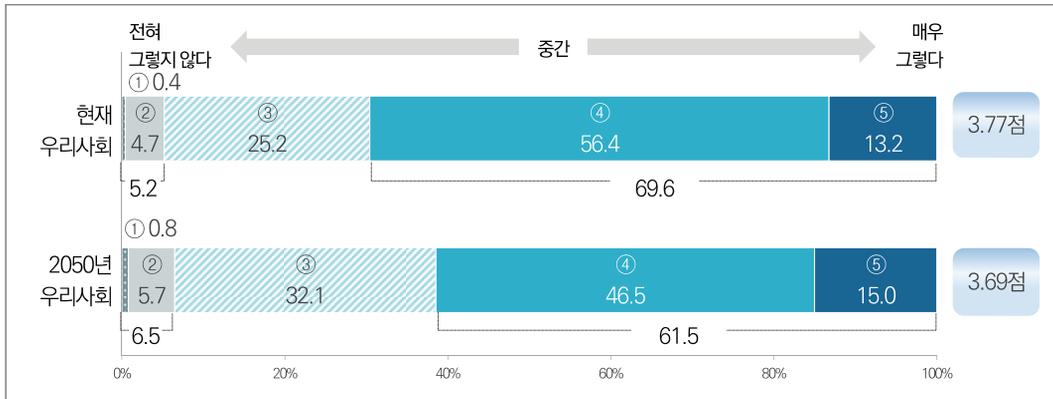
[그림 3-41] 우리사회의 다양성 인식 및 전망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공정하게 대하는 사회

바. 갈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우리사회의 갈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9.6%가 ‘그렇다(4+5점)’고 답하였고, 5.2%만이 ‘그렇지 않다(1+2점)’고 답하여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크게 앞섰다.

또한, ‘30년 후 우리사회의 빈부격차 심각성’에는 응답자의 61.5%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6.5%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하여 빈부격차가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 7.9% 감소하였다.

(단위: %)



[그림 3-42]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

현재 우리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71.0%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5.6%만이 '그렇지 않다(1+2점)'고 하여 심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또한, '30년 후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 갈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0%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7.8%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하여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 13.0% 감소하였다.



[그림 3-43]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

'현재 우리사회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2%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7.7%만이 '그렇지 않다(1+2점)'고 응
답해 심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30년 후 우리사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6%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9.1%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하여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이 소폭(5.6%) 감
소하였다.

(단위: %)



[그림 3-44] 우리사회의 갈등 인식 및 전망 -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심각

사. 공정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현재 우리사회가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32.6%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32.3%가 ‘그렇지 않다(1+2점)’고 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동의하는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30년 후 우리사회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49.0%가 ‘그럴 것이다(4+5 점)’고 한 반면, 9.9%만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답하였다. 즉,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견이 16.4% 증가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2.4% 감소하여 공정성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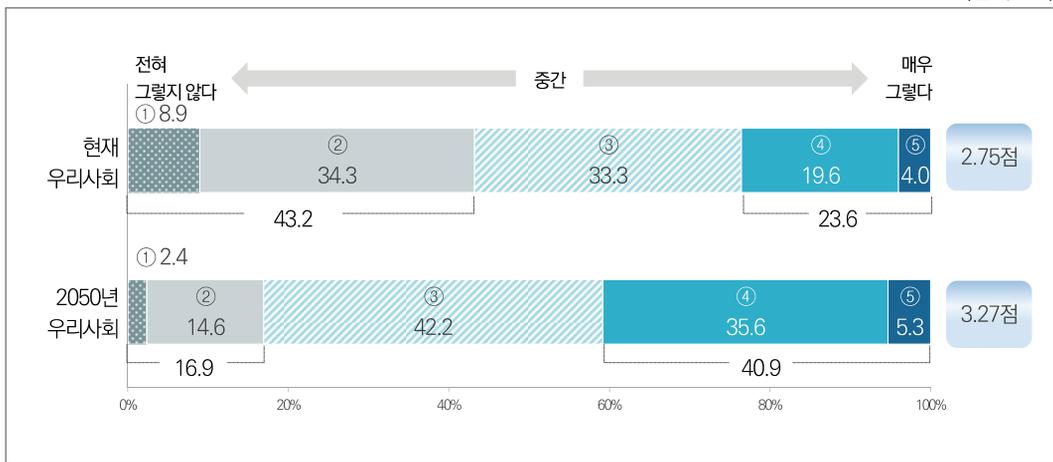


[그림 3-45]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

‘현재 우리사회의 언론은 공정한 태도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23.6%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43.2%가 ‘그렇지 않다(1+2점)’고 해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이어서 ‘30년 후 우리사회의 언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9%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16.9%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답하여, 언론의 태도가 공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17.3% 증가하고 부정적 의견은 26.3%가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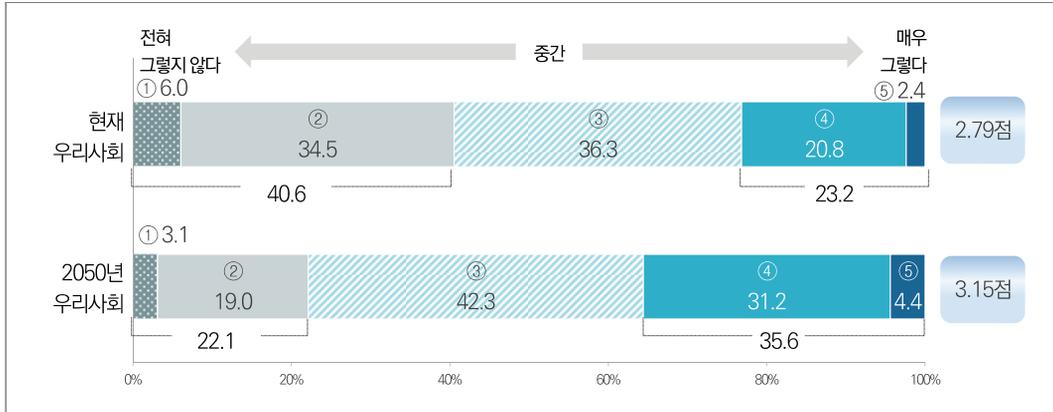


[그림 3-46]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언론은 공정한 태도로 정보를 제공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23.2%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40.6%가 ‘그렇지 않다(1+2점)’고 하여 경제적 부의 분배의 공정성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였다.

‘30년 후 우리사회의 분배 공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6%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22.1%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답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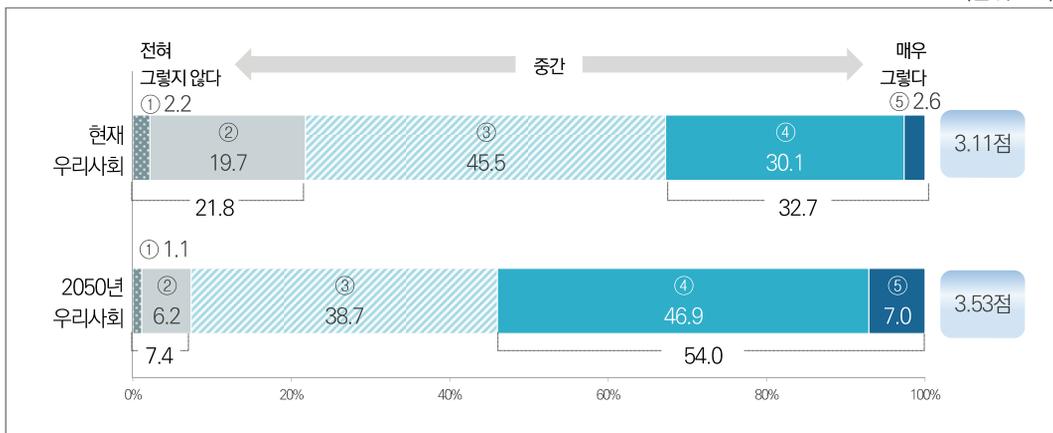


[그림 3-47]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그렇다(4+5점)’고 하였고, 21.8%가 ‘그렇지 않다(1+2점)’고 답해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에는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어서 ‘30년 후, 성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에는 응답자의 54.0%가 ‘그럴 것이다(4+5점)’고 한 반면, 7.4%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1+2점)’고 답해 성별 대우가 공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21.3% 증가하고 부정 의견은 14.4%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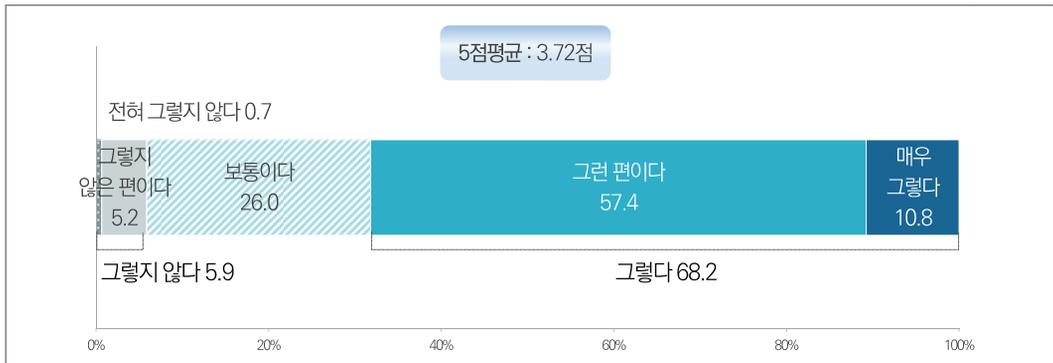


[그림 3-48] 우리사회의 공정성 인식 및 전망 -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

아.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5.9%에 불과하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2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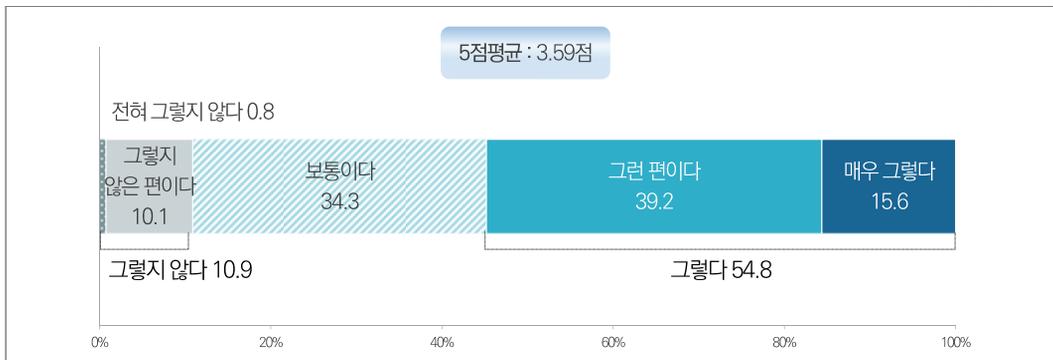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49] 환경에 대한 가치관 - 자연환경 보존이 도시개발보다 중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5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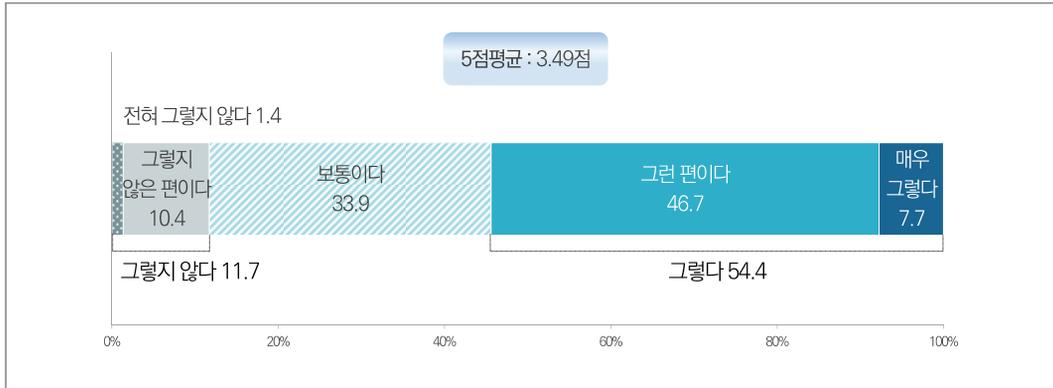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50] 환경에 대한 가치관 -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환경보호가 우선

‘내가 낸 돈이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소득의 일부를 내놓을 것이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4.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1.7%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9점이었다.

(단위: %)



[그림 3-51]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면 소득의 일부를 내놓겠음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7%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5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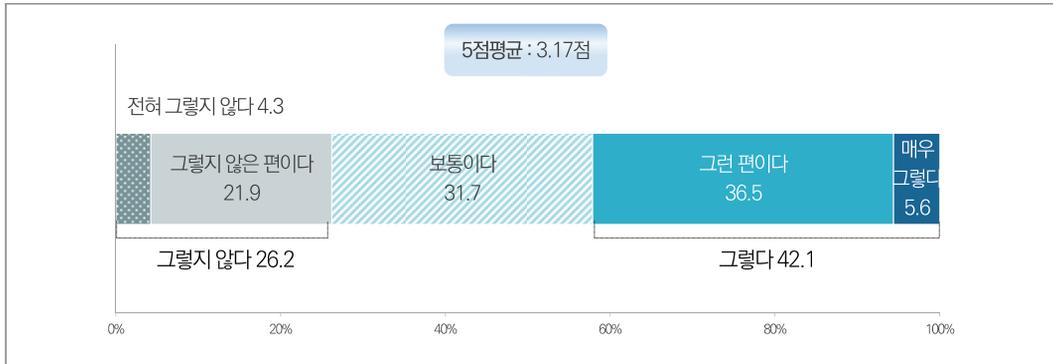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52]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보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존재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에 동의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42.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6.2%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7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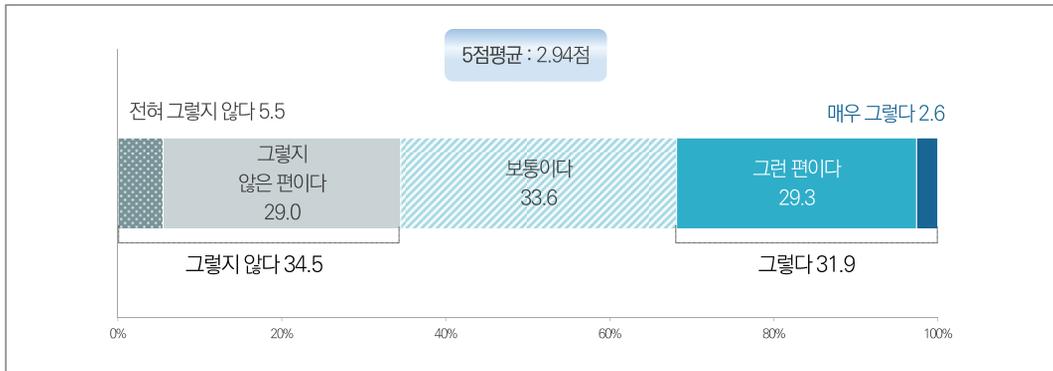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53] 환경에 대한 가치관 -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해 할 일이 없음

‘환경위협에 대한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1.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4.5%로 나타나 찬반 의견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9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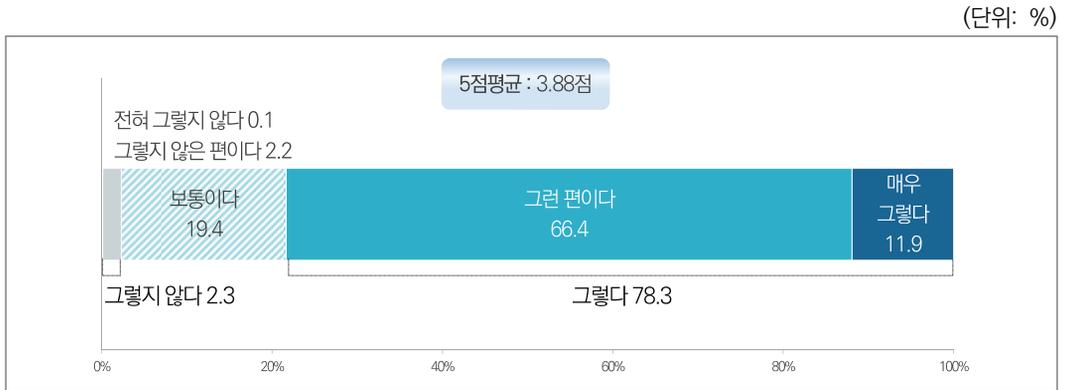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54] 환경에 대한 가치관 - 환경위협에 대한 주장은 과장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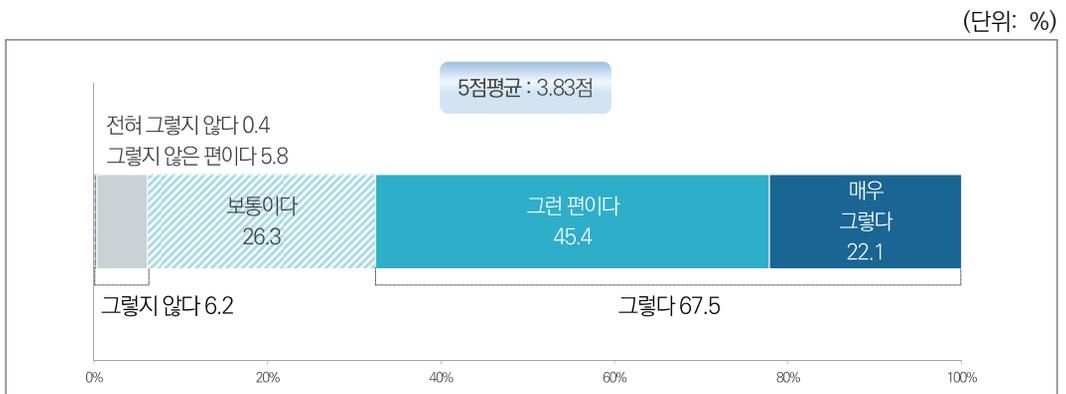
자.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정도에서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8점이었다.



[그림 3-55]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 편리하게 할 것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설문한 결과, 67.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3점이었다.



[그림 3-56]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는 의견에는 81.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11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57]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킴

‘과학기술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73.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8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58]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의 혜택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함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 서는 응답자의 69.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59]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정부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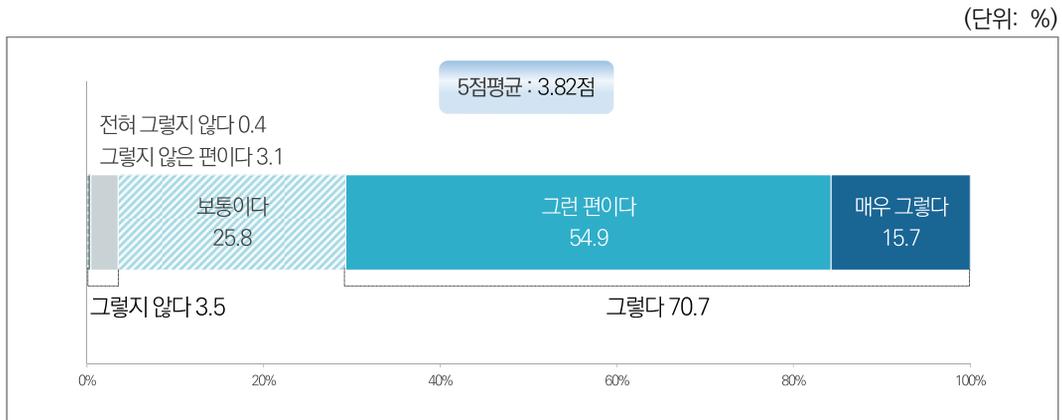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 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3.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98점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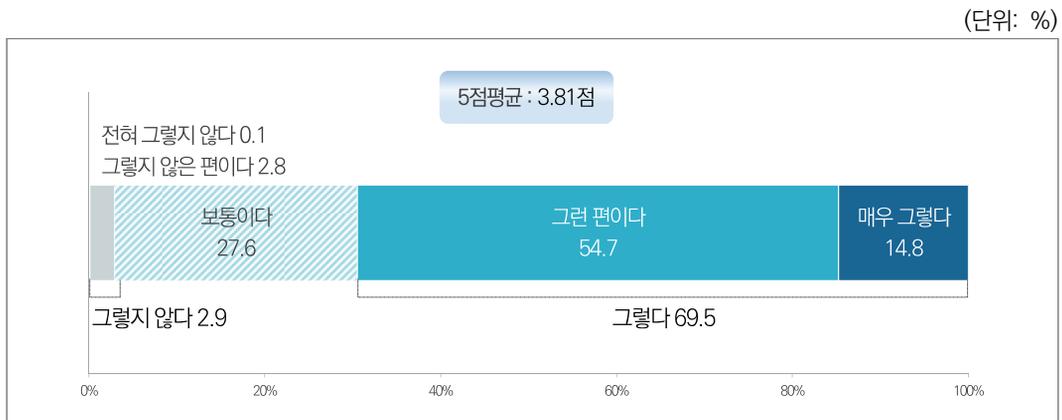
[그림 3-60]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

‘로봇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3.5%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2점이었다.



[그림 3-61]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

‘로봇은 위험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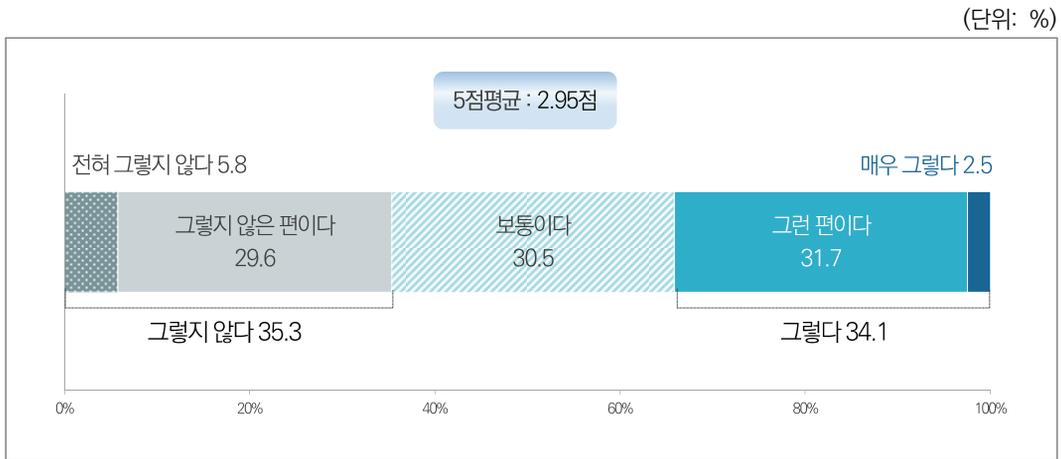


[그림 3-62]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관 - 로봇은 위험하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

5 국가와 가치관

가. 정치의식

‘나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34.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답변은 35.3%였다. 즉,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95점이었다.



[그림 3-63] 정치의식 - 나는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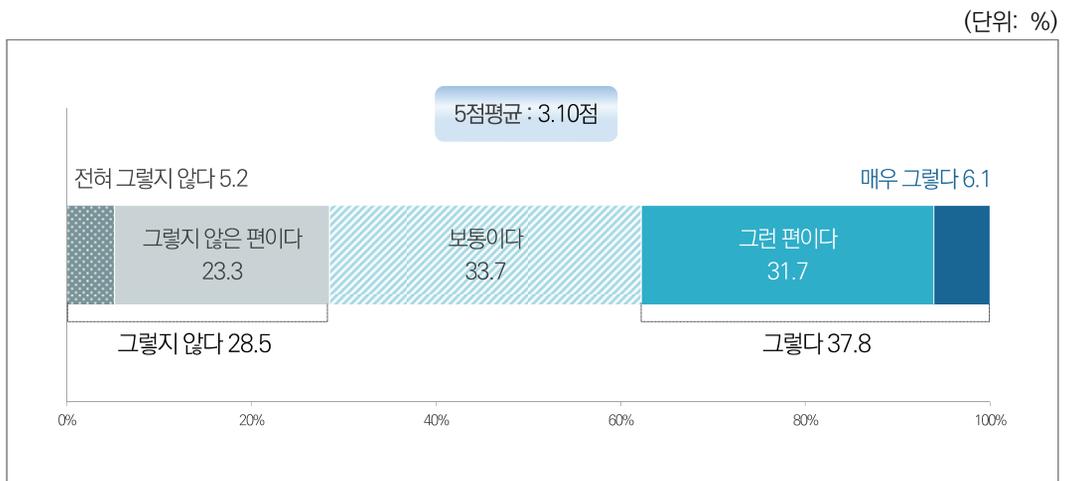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 수준이 높은 반면에,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지역별로는 경북권역에서,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각각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6] 정치의식 - 나는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음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5.8 | 29.6 | 30.5 | 31.7 | 2.5 | (2.9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4.5 | 23.8 | 31.3 | 36.7 | 3.7 | (3.11) |
| 여성 | (2,677) | 7.0 | 35.2 | 29.7 | 26.7 | 1.3 | (2.8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7.9 | 42.7 | 18.1 | 19.1 | 2.1 | (2.45) |
| 20~29세 | (779) | 7.4 | 37.4 | 30.5 | 23.6 | 1.1 | (2.74) |
| 30~39세 | (791) | 3.7 | 28.4 | 35.6 | 30.6 | 1.8 | (2.99) |
| 40~49세 | (952) | 3.1 | 26.1 | 35.2 | 33.4 | 2.3 | (3.06) |
| 50~59세 | (992) | 5.3 | 25.0 | 29.3 | 37.1 | 3.3 | (3.08) |
| 60대 이상 | (1,414) | 4.8 | 27.9 | 28.8 | 35.3 | 3.2 | (3.04)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4.4 | 31.3 | 31.3 | 31.1 | 1.9 | (2.95) |
| 인천/경기 | (1,644) | 5.2 | 31.5 | 29.2 | 31.9 | 2.2 | (2.94) |
| 강원 | (162) | 6.4 | 38.1 | 26.6 | 23.3 | 5.7 | (2.8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3.9 | 23.5 | 36.0 | 34.3 | 2.2 | (3.07) |
| 광주/전북/전남 | (531) | 7.9 | 26.3 | 30.7 | 28.4 | 6.8 | (3.00) |
| 대구/경북 | (527) | 14.1 | 31.5 | 30.2 | 23.0 | 1.2 | (2.66) |
| 부산/울산/경남 | (815) | 3.0 | 26.4 | 29.2 | 40.5 | 0.9 | (3.10) |
| 제주 | (68) | 4.7 | 37.3 | 32.0 | 18.9 | 7.2 | (2.87)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6.4 | 45.7 | 25.6 | 21.4 | 1.0 | (2.65) |
| 100~200만원 미만 | (360) | 4.2 | 40.3 | 22.8 | 29.8 | 3.0 | (2.8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7.1 | 33.6 | 26.6 | 30.8 | 2.0 | (2.87)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5.7 | 26.8 | 34.2 | 30.7 | 2.6 | (2.9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6.6 | 25.7 | 31.3 | 33.6 | 2.8 | (3.0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5.3 | 30.7 | 31.8 | 30.7 | 1.6 | (2.93) |
| 600만원 이상 | (714) | 4.2 | 27.4 | 30.5 | 34.5 | 3.4 | (3.05) |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3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8.5%로 나타나 정치가 자신의 삶에 영향력이 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0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4] 정치의식 -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대하여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주로 남성, 경남권역, 높은 연령층에서였다. 반면에, 제주 지역과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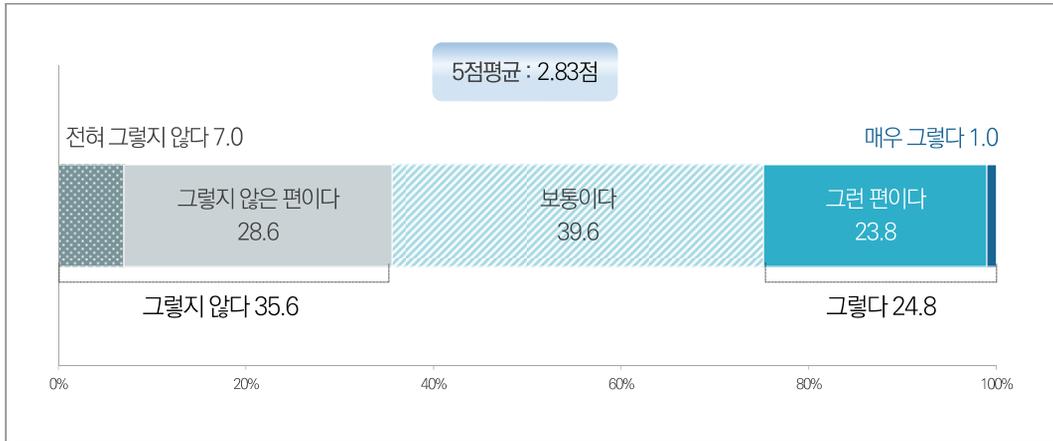
[표 3-17] 정치의식 -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5.2 | 23.3 | 33.7 | 31.7 | 6.1 | (3.1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4.1 | 20.7 | 32.7 | 35.1 | 7.3 | (3.21) |
| 여성 | (2,677) | 6.2 | 25.8 | 34.8 | 28.3 | 4.9 | (3.0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3.5 | 28.6 | 33.7 | 20.4 | 3.8 | (2.72) |
| 20~29세 | (779) | 7.3 | 23.3 | 37.1 | 28.4 | 4.0 | (2.99) |
| 30~39세 | (791) | 4.3 | 24.3 | 35.1 | 30.5 | 5.8 | (3.09) |
| 40~49세 | (952) | 3.5 | 20.7 | 35.9 | 33.7 | 6.3 | (3.19) |
| 50~59세 | (992) | 4.4 | 19.9 | 33.6 | 34.4 | 7.6 | (3.21) |
| 60대 이상 | (1,414) | 3.8 | 25.4 | 29.8 | 34.1 | 6.8 | (3.15)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4.7 | 29.3 | 28.4 | 30.1 | 7.6 | (3.07) |
| 인천/경기 | (1,644) | 5.3 | 23.9 | 33.9 | 30.8 | 6.0 | (3.08) |
| 강원 | (162) | 4.9 | 25.7 | 34.4 | 28.6 | 6.3 | (3.06)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4.4 | 18.9 | 45.5 | 26.8 | 4.4 | (3.08) |
| 광주/전북/전남 | (531) | 7.9 | 23.6 | 24.5 | 32.6 | 11.4 | (3.16) |
| 대구/경북 | (527) | 8.0 | 22.2 | 30.9 | 35.1 | 3.7 | (3.04) |
| 부산/울산/경남 | (815) | 2.6 | 16.6 | 39.2 | 38.2 | 3.4 | (3.23) |
| 제주 | (68) | 2.3 | 36.1 | 39.2 | 15.0 | 7.4 | (2.89)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5.0 | 37.9 | 21.6 | 27.3 | 8.2 | (2.9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3.6 | 27.3 | 32.8 | 31.2 | 5.1 | (3.0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5.8 | 24.1 | 35.1 | 31.3 | 3.7 | (3.0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5.3 | 20.6 | 35.4 | 32.6 | 6.1 | (3.14)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5.5 | 21.1 | 32.4 | 34.2 | 6.9 | (3.16) |
| 500~600만원 미만 | (927) | 5.2 | 24.8 | 33.0 | 29.8 | 7.2 | (3.09) |
| 600만원 이상 | (714) | 4.4 | 24.9 | 34.6 | 29.8 | 6.3 | (3.09)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4.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5.6%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이다.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83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65] 정치의식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됨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남권역의 동의성이 높았으며, 제주 지역과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동의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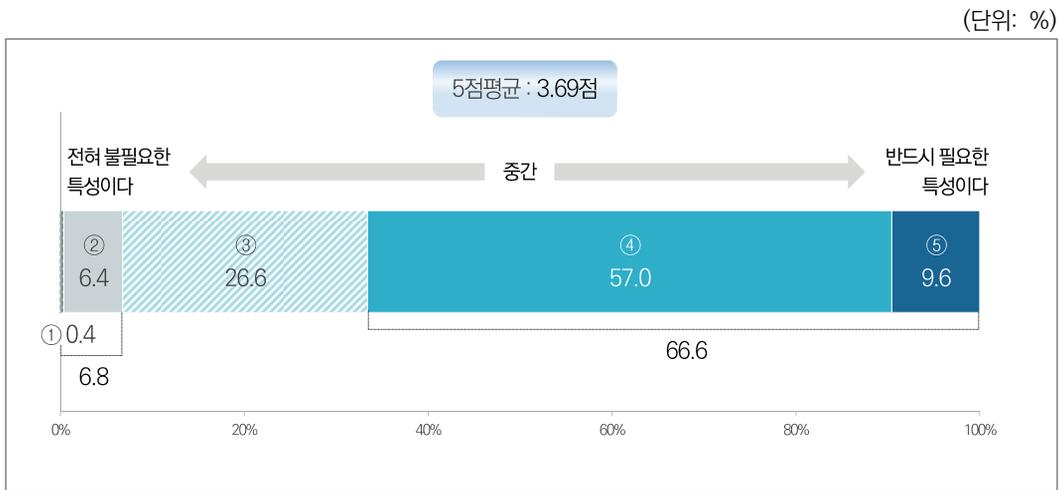
[표 3-18] 정치의식 -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 의견이 반영됨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7.0 | 28.6 | 39.6 | 23.8 | 1.0 | (2.83)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7.3 | 28.3 | 38.2 | 24.9 | 1.3 | (2.85) |
| 여성 | (2,677) | 6.7 | 28.9 | 41.0 | 22.7 | 0.7 | (2.82)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5.3 | 30.5 | 39.9 | 23.1 | 1.2 | (2.84) |
| 20~29세 | (779) | 5.8 | 26.1 | 43.3 | 23.8 | 1.0 | (2.88) |
| 30~39세 | (791) | 6.4 | 27.7 | 38.7 | 25.9 | 1.3 | (2.88) |
| 40~49세 | (952) | 5.2 | 28.6 | 40.8 | 24.0 | 1.3 | (2.88) |
| 50~59세 | (992) | 8.6 | 28.8 | 37.5 | 24.2 | 0.9 | (2.80) |
| 60대 이상 | (1,414) | 8.5 | 29.8 | 38.8 | 22.3 | 0.7 | (2.77)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5.5 | 28.8 | 36.6 | 28.2 | 0.9 | (2.90) |
| 인천/경기 | (1,644) | 6.6 | 34.6 | 40.3 | 17.2 | 1.2 | (2.72) |
| 강원 | (162) | 8.5 | 31.1 | 47.3 | 12.6 | 0.5 | (2.65)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6.9 | 29.2 | 42.0 | 21.9 | 0.0 | (2.79) |
| 광주/전북/전남 | (531) | 10.6 | 20.9 | 33.9 | 31.5 | 3.2 | (2.96) |
| 대구/경북 | (527) | 13.2 | 30.0 | 36.6 | 19.8 | 0.3 | (2.64) |
| 부산/울산/경남 | (815) | 2.5 | 18.4 | 44.5 | 34.0 | 0.6 | (3.12) |
| 제주 | (68) | 11.0 | 42.0 | 39.5 | 6.2 | 1.3 | (2.4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10.8 | 27.5 | 45.9 | 15.5 | 0.2 | (2.6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7.7 | 34.9 | 38.1 | 18.9 | 0.5 | (2.70) |
| 200~300만원 미만 | (832) | 7.1 | 27.8 | 41.1 | 23.8 | 0.2 | (2.82)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6.7 | 28.9 | 37.8 | 24.6 | 1.9 | (2.8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7.5 | 25.4 | 41.0 | 25.3 | 0.9 | (2.87) |
| 500~600만원 미만 | (927) | 6.7 | 27.7 | 41.1 | 23.7 | 0.9 | (2.84) |
| 600만원 이상 | (714) | 6.2 | 32.4 | 36.8 | 23.4 | 1.2 | (2.81) |

나. 민주주의 특성에 대한 인식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인지에 대한 물음에 66.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6.8%에 불과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한 부자 과세를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보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66]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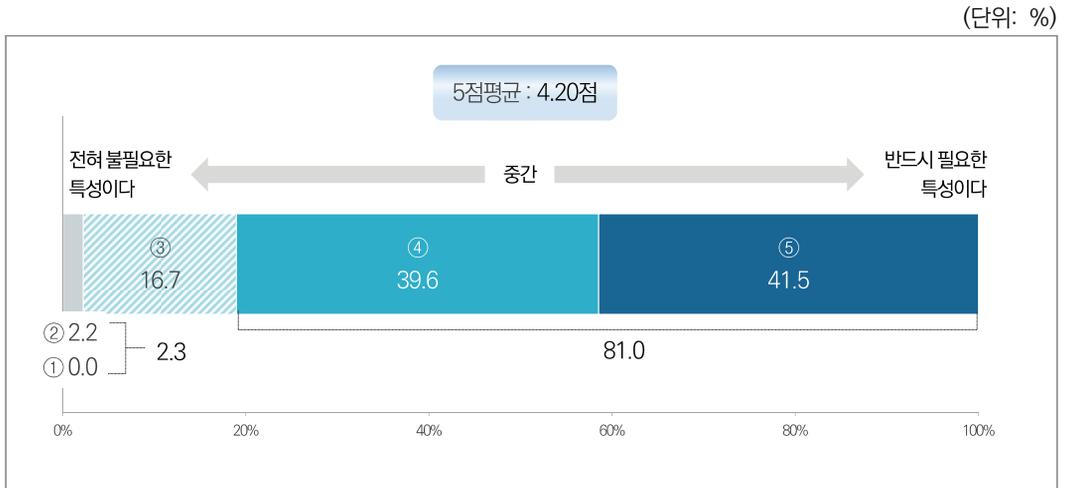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른 집단 간에는 수치상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 보면, 전라권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부자 과세’에 가장 높은 동의성을 나타냈다.

[표 3-1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에 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4 | 6.4 | 26.6 | 57.0 | 9.6 | (3.6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6 | 5.5 | 25.8 | 58.7 | 9.4 | (3.71) |
| 여성 | (2,677) | 0.2 | 7.3 | 27.5 | 55.3 | 9.8 | (3.67)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4 | 5.5 | 24.6 | 57.1 | 12.3 | (3.75) |
| 20~29세 | (779) | 0.3 | 4.9 | 29.9 | 55.0 | 9.9 | (3.69) |
| 30~39세 | (791) | 0.3 | 6.0 | 29.9 | 55.0 | 8.8 | (3.66) |
| 40~49세 | (952) | 0.5 | 8.3 | 23.0 | 59.8 | 8.4 | (3.67) |
| 50~59세 | (992) | 0.4 | 6.2 | 25.2 | 57.9 | 10.2 | (3.71) |
| 60대 이상 | (1,414) | 0.3 | 6.6 | 26.9 | 56.6 | 9.5 | (3.68)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3 | 8.3 | 28.6 | 56.1 | 6.6 | (3.60) |
| 인천/경기 | (1,644) | 0.0 | 6.0 | 25.2 | 59.9 | 8.9 | (3.72) |
| 강원 | (162) | 0.6 | 4.3 | 26.6 | 61.5 | 6.9 | (3.7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5 | 6.0 | 30.7 | 50.5 | 12.2 | (3.68)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6.2 | 16.7 | 52.3 | 24.6 | (3.95) |
| 대구/경북 | (527) | 1.6 | 6.2 | 25.8 | 60.4 | 6.0 | (3.63)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5.1 | 30.9 | 58.5 | 5.2 | (3.64) |
| 제주 | (68) | 2.8 | 13.4 | 29.9 | 35.9 | 18.0 | (3.53)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5.1 | 41.7 | 41.4 | 11.8 | (3.60)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3 | 5.5 | 20.9 | 62.5 | 10.8 | (3.78)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8 | 7.5 | 30.2 | 49.7 | 11.7 | (3.64)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3 | 5.9 | 28.2 | 55.9 | 9.7 | (3.69)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3 | 7.4 | 23.6 | 59.9 | 8.9 | (3.7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2 | 5.5 | 28.0 | 59.4 | 7.0 | (3.68) |
| 600만원 이상 | (714) | 0.4 | 6.2 | 24.2 | 58.5 | 10.7 | (3.73)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인지에 대한 물음에, 81.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요한 특성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20점이었다.



[그림 3-67]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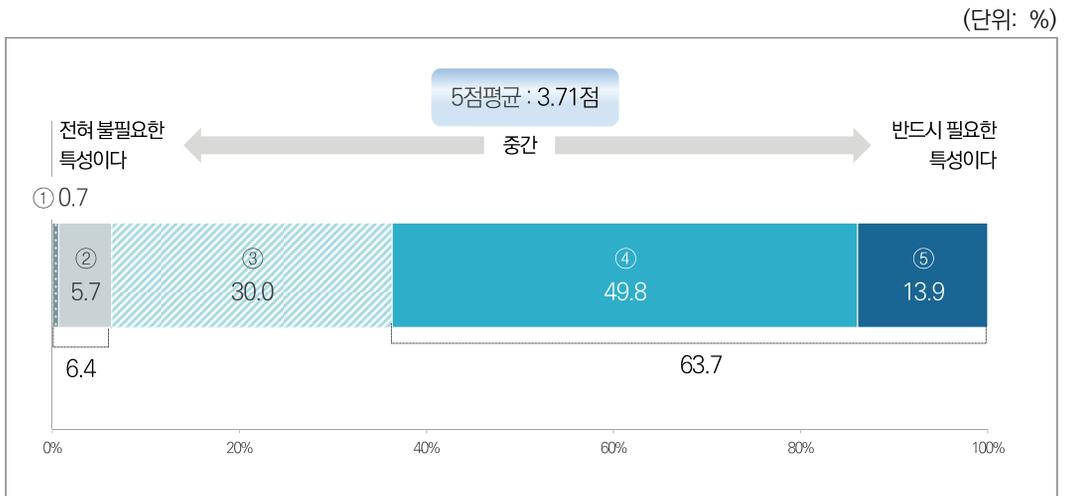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특성이라는 데 높은 동의성을 나타낸 집단은 서울 지역과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이며, 낮은 동의성을 나타낸 집단은 경남권역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20]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에 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0 | 2.2 | 16.7 | 39.6 | 41.5 | (4.2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0 | 2.3 | 17.1 | 38.9 | 41.6 | (4.20) |
| 여성 | (2,677) | 0.1 | 2.1 | 16.3 | 40.2 | 41.3 | (4.2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2.4 | 17.3 | 42.0 | 38.3 | (4.16) |
| 20~29세 | (779) | 0.2 | 1.4 | 19.1 | 40.6 | 38.7 | (4.16) |
| 30~39세 | (791) | 0.0 | 1.6 | 14.2 | 40.5 | 43.7 | (4.26) |
| 40~49세 | (952) | 0.1 | 2.0 | 18.3 | 37.8 | 41.8 | (4.19) |
| 50~59세 | (992) | 0.0 | 2.5 | 18.2 | 39.9 | 39.5 | (4.16) |
| 60대 이상 | (1,414) | 0.0 | 2.9 | 14.6 | 38.7 | 43.8 | (4.24)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1.6 | 11.5 | 35.7 | 51.2 | (4.37) |
| 인천/경기 | (1,644) | 0.0 | 2.0 | 15.6 | 35.9 | 46.5 | (4.27) |
| 강원 | (162) | 0.0 | 0.1 | 12.4 | 63.7 | 23.8 | (4.11)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2.9 | 17.9 | 49.4 | 29.8 | (4.06) |
| 광주/전북/전남 | (531) | 0.2 | 1.5 | 16.5 | 27.8 | 54.0 | (4.34) |
| 대구/경북 | (527) | 0.3 | 4.0 | 17.6 | 38.7 | 39.5 | (4.13)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2.3 | 24.8 | 49.3 | 23.5 | (3.94) |
| 제주 | (68) | 0.0 | 6.1 | 19.0 | 27.8 | 47.1 | (4.16)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6.8 | 19.2 | 42.0 | 31.9 | (3.99)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3.2 | 17.4 | 35.8 | 43.7 | (4.20)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0 | 2.2 | 17.3 | 40.2 | 40.3 | (4.19)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1 | 2.3 | 19.5 | 40.9 | 37.3 | (4.13)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1 | 2.5 | 15.6 | 40.7 | 41.1 | (4.2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1.6 | 16.9 | 39.5 | 42.0 | (4.22)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1.5 | 12.3 | 36.4 | 49.7 | (4.34) |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인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63.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하였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에 크게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68]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이라는 데 높은 동의성을 보인 집단은 20대 이하의 연령층이며,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강원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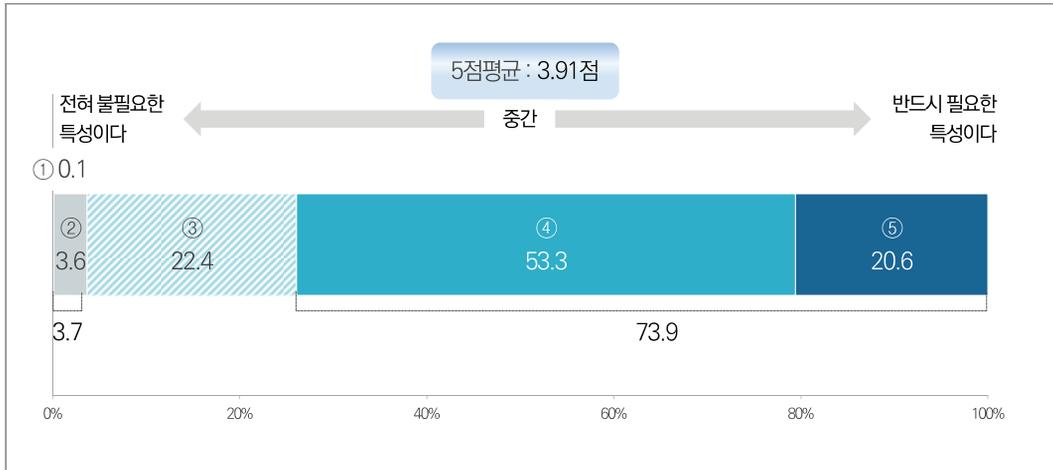
[표 3-21]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 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7 | 5.7 | 30.0 | 49.8 | 13.9 | (3.7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1 | 5.3 | 28.9 | 51.0 | 13.8 | (3.71) |
| 여성 | (2,677) | 0.3 | 6.1 | 31.0 | 48.6 | 14.0 | (3.7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6 | 4.4 | 24.6 | 49.6 | 20.8 | (3.86) |
| 20~29세 | (779) | 0.0 | 5.4 | 25.9 | 51.7 | 17.0 | (3.80) |
| 30~39세 | (791) | 0.2 | 6.9 | 30.4 | 50.1 | 12.4 | (3.68) |
| 40~49세 | (952) | 0.7 | 6.0 | 31.0 | 49.3 | 13.1 | (3.68) |
| 50~59세 | (992) | 0.8 | 6.8 | 28.8 | 51.3 | 12.3 | (3.68) |
| 60대 이상 | (1,414) | 1.3 | 4.5 | 33.6 | 47.8 | 12.7 | (3.66)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1 | 7.6 | 30.6 | 48.1 | 12.6 | (3.64) |
| 인천/경기 | (1,644) | 0.2 | 4.4 | 27.7 | 55.2 | 12.6 | (3.75) |
| 강원 | (162) | 1.2 | 5.6 | 40.2 | 42.2 | 10.8 | (3.56)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8 | 3.9 | 30.0 | 51.7 | 13.6 | (3.73) |
| 광주/전북/전남 | (531) | 0.8 | 5.8 | 25.5 | 44.2 | 23.8 | (3.84) |
| 대구/경북 | (527) | 1.9 | 6.7 | 27.4 | 51.5 | 12.5 | (3.66)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6.1 | 35.9 | 45.6 | 12.5 | (3.65) |
| 제주 | (68) | 2.3 | 10.4 | 34.5 | 27.1 | 25.7 | (3.63)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1.4 | 40.0 | 48.1 | 10.5 | (3.68)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3 | 4.7 | 42.8 | 39.5 | 12.7 | (3.60)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7 | 5.4 | 29.7 | 49.5 | 14.7 | (3.72)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6 | 5.6 | 30.2 | 49.5 | 14.0 | (3.71)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6 | 5.3 | 28.8 | 52.1 | 13.2 | (3.72)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7 | 5.8 | 31.0 | 50.2 | 12.3 | (3.68) |
| 600만원 이상 | (714) | 1.0 | 7.6 | 22.8 | 51.5 | 17.1 | (3.76) |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인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73.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7%에 불과하였다.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에 크게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6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른 집단 간에는 수치상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라권에서는 ‘시민권을 통한 보호’에 대한 동의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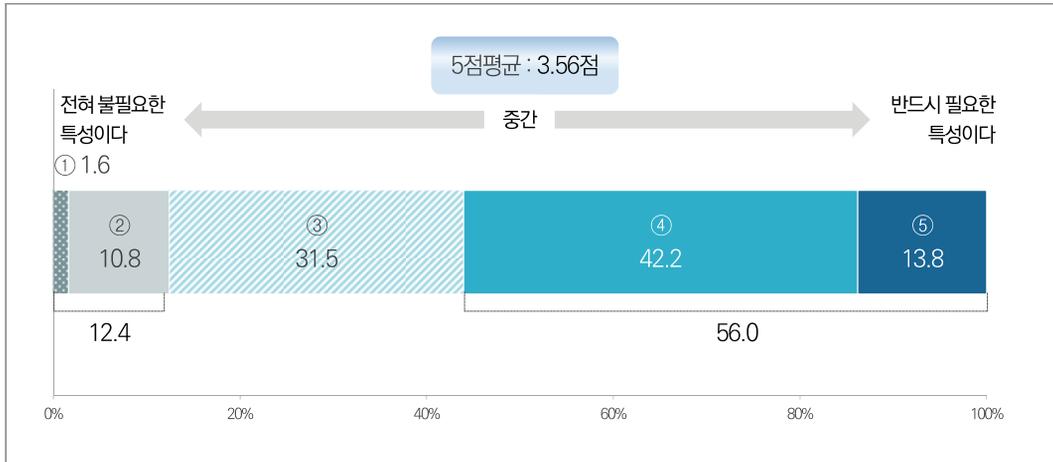
[표 3-22]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3.6 | 22.4 | 53.3 | 20.6 | (3.9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1 | 3.9 | 22.5 | 52.6 | 20.9 | (3.90) |
| 여성 | (2,677) | 0.1 | 3.3 | 22.3 | 54.1 | 20.3 | (3.9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2 | 3.9 | 18.9 | 54.9 | 22.0 | (3.94) |
| 20~29세 | (779) | 0.0 | 3.1 | 21.5 | 54.0 | 21.4 | (3.94) |
| 30~39세 | (791) | 0.2 | 4.3 | 22.1 | 54.9 | 18.5 | (3.87) |
| 40~49세 | (952) | 0.1 | 4.5 | 21.4 | 53.8 | 20.2 | (3.90) |
| 50~59세 | (992) | 0.2 | 3.3 | 22.7 | 50.7 | 23.0 | (3.93) |
| 60대 이상 | (1,414) | 0.0 | 2.9 | 24.4 | 53.2 | 19.5 | (3.89)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2 | 3.7 | 20.7 | 54.9 | 20.7 | (3.92) |
| 인천/경기 | (1,644) | 0.1 | 3.1 | 20.1 | 54.9 | 21.8 | (3.95) |
| 강원 | (162) | 0.3 | 4.0 | 26.4 | 54.3 | 15.1 | (3.8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3 | 5.4 | 24.4 | 52.4 | 17.5 | (3.81)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1.5 | 23.4 | 47.1 | 27.9 | (4.01) |
| 대구/경북 | (527) | 0.0 | 4.2 | 22.8 | 52.0 | 20.9 | (3.90)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3.8 | 25.1 | 54.9 | 16.2 | (3.83) |
| 제주 | (68) | 0.0 | 5.7 | 34.0 | 39.2 | 21.0 | (3.76)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5.8 | 26.3 | 52.7 | 15.3 | (3.7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2 | 0.8 | 29.5 | 51.6 | 17.9 | (3.86)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0 | 4.1 | 21.9 | 52.5 | 21.5 | (3.91)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3.7 | 23.2 | 53.3 | 19.9 | (3.89)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3 | 3.9 | 21.0 | 54.6 | 20.3 | (3.91)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3.5 | 21.2 | 53.2 | 22.0 | (3.94)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3.5 | 21.4 | 53.6 | 21.4 | (3.93) |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56.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2.4%로 나타났다. 즉, 국가가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보다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단위: %)



[그림 3-70]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특성이라는 의견에 높은 동의성을 보인 집단은 만 13~19세의 연령층과 전라권이였다. 반면에, 제주 지역과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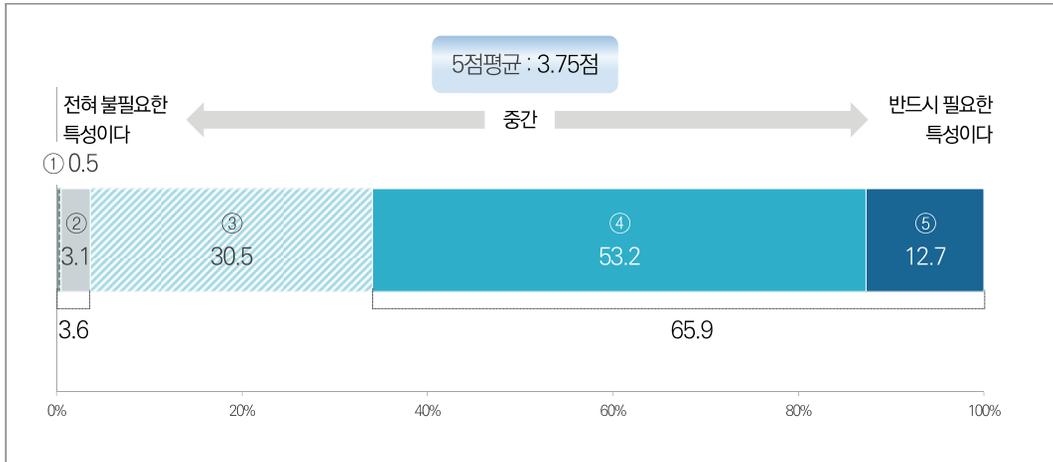
[표 3-23]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가가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 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1.6 | 10.8 | 31.5 | 42.2 | 13.8 | (3.56)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9 | 10.4 | 29.8 | 43.2 | 14.8 | (3.59) |
| 여성 | (2,677) | 1.4 | 11.2 | 33.3 | 41.3 | 12.9 | (3.53)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0 | 8.7 | 23.2 | 47.2 | 19.9 | (3.76) |
| 20~29세 | (779) | 1.6 | 9.7 | 30.4 | 44.2 | 14.2 | (3.60) |
| 30~39세 | (791) | 2.1 | 12.0 | 29.6 | 43.5 | 12.8 | (3.53) |
| 40~49세 | (952) | 2.3 | 12.1 | 31.0 | 41.2 | 13.5 | (3.51) |
| 50~59세 | (992) | 2.1 | 10.0 | 31.9 | 41.7 | 14.3 | (3.56) |
| 60대 이상 | (1,414) | 0.8 | 11.0 | 35.6 | 40.2 | 12.4 | (3.52)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7 | 14.3 | 29.0 | 39.1 | 15.9 | (3.53) |
| 인천/경기 | (1,644) | 1.0 | 14.3 | 27.9 | 43.3 | 13.4 | (3.54) |
| 강원 | (162) | 4.8 | 14.9 | 35.8 | 36.0 | 8.5 | (3.2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2.4 | 5.4 | 36.5 | 45.1 | 10.5 | (3.56) |
| 광주/전북/전남 | (531) | 1.5 | 5.9 | 28.4 | 43.0 | 21.2 | (3.77) |
| 대구/경북 | (527) | 3.2 | 8.9 | 37.5 | 39.4 | 11.0 | (3.46) |
| 부산/울산/경남 | (815) | 0.1 | 6.4 | 35.5 | 45.5 | 12.5 | (3.64) |
| 제주 | (68) | 7.1 | 12.3 | 36.0 | 29.9 | 14.6 | (3.33)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3.3 | 14.1 | 38.1 | 32.7 | 11.9 | (3.3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7 | 8.6 | 40.0 | 40.4 | 10.3 | (3.5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6 | 9.6 | 36.0 | 39.4 | 13.3 | (3.5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3 | 9.6 | 31.9 | 44.5 | 12.7 | (3.5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0 | 10.7 | 28.3 | 45.0 | 15.0 | (3.62) |
| 500~600만원 미만 | (927) | 2.0 | 9.8 | 31.5 | 43.0 | 13.8 | (3.57) |
| 600만원 이상 | (714) | 3.1 | 16.3 | 26.1 | 38.0 | 16.5 | (3.48) |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하였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크게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71]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특성이라는 데 동의성이 높은 지역은 전라권이었으며, 반면에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동의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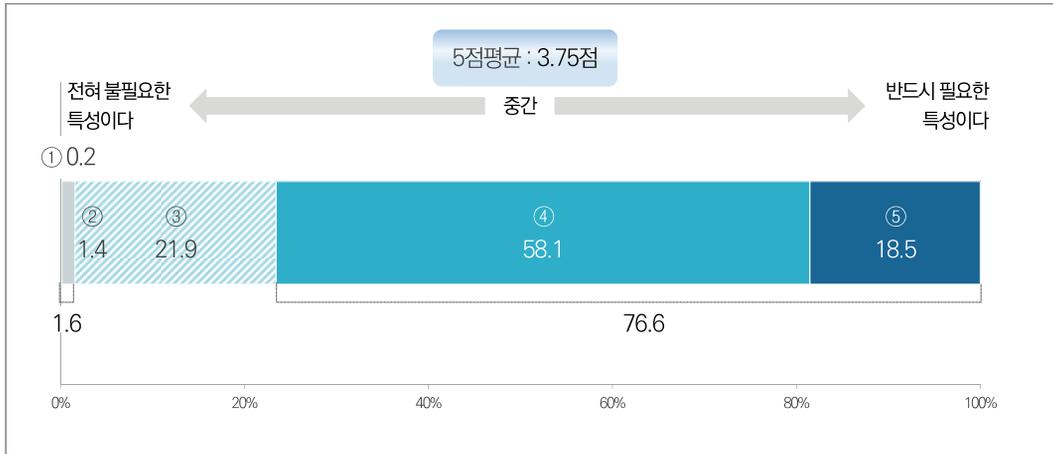
[표 3-24]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 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5 | 3.1 | 30.5 | 53.2 | 12.7 | (3.7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6 | 3.2 | 29.0 | 55.1 | 12.1 | (3.75) |
| 여성 | (2,677) | 0.4 | 3.1 | 31.9 | 51.3 | 13.3 | (3.74)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1.2 | 3.1 | 27.3 | 54.5 | 13.9 | (3.77) |
| 20~29세 | (779) | 0.8 | 4.1 | 30.9 | 51.7 | 12.5 | (3.71) |
| 30~39세 | (791) | 0.3 | 3.4 | 31.4 | 54.0 | 10.9 | (3.72) |
| 40~49세 | (952) | 0.5 | 4.0 | 30.6 | 53.9 | 11.0 | (3.71) |
| 50~59세 | (992) | 0.3 | 3.6 | 30.1 | 53.0 | 13.0 | (3.75) |
| 60대 이상 | (1,414) | 0.5 | 1.5 | 30.7 | 52.8 | 14.5 | (3.79)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4.0 | 28.4 | 53.6 | 14.1 | (3.78) |
| 인천/경기 | (1,644) | 0.4 | 2.6 | 34.1 | 53.0 | 10.0 | (3.70) |
| 강원 | (162) | 1.2 | 3.1 | 42.8 | 47.9 | 5.0 | (3.52)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8 | 2.5 | 33.4 | 54.7 | 8.6 | (3.68) |
| 광주/전북/전남 | (531) | 0.9 | 2.5 | 24.2 | 45.5 | 26.9 | (3.95) |
| 대구/경북 | (527) | 0.0 | 3.1 | 22.4 | 56.5 | 18.0 | (3.89) |
| 부산/울산/경남 | (815) | 1.1 | 3.2 | 28.9 | 58.4 | 8.5 | (3.70) |
| 제주 | (68) | 1.6 | 12.6 | 48.4 | 25.9 | 11.5 | (3.33)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7 | 6.2 | 47.7 | 42.4 | 3.0 | (3.41)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7 | 1.1 | 34.4 | 51.4 | 12.4 | (3.74)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9 | 2.4 | 33.1 | 51.6 | 12.1 | (3.71)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3 | 2.8 | 29.7 | 54.6 | 12.8 | (3.77)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6 | 3.4 | 30.5 | 51.9 | 13.6 | (3.74)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4 | 4.1 | 26.4 | 55.0 | 14.1 | (3.78) |
| 600만원 이상 | (714) | 0.2 | 3.5 | 30.0 | 54.9 | 11.4 | (3.74)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하였다. 상당수의 응답자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민주주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치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75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72]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의견에는 여성과 전라권,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인 집단의 동의성이 높았으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60대 이상의 연령층과 경남·경북권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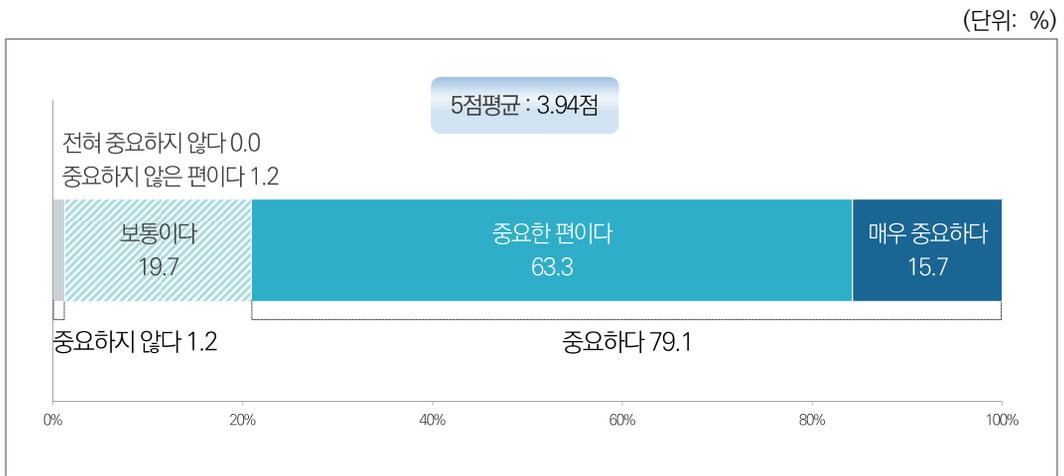
[표 3-25]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민주주의 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민주주의 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2 | 1.4 | 21.9 | 58.1 | 18.5 | (3.93)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3 | 2.0 | 23.7 | 60.0 | 14.0 | (3.86) |
| 여성 | (2,677) | 0.0 | 0.9 | 20.1 | 56.1 | 22.9 | (4.0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1 | 1.7 | 19.7 | 53.6 | 24.9 | (4.01) |
| 20~29세 | (779) | 0.1 | 1.0 | 19.0 | 59.9 | 20.0 | (3.99) |
| 30~39세 | (791) | 0.1 | 0.7 | 19.5 | 58.9 | 20.7 | (3.99) |
| 40~49세 | (952) | 0.1 | 1.7 | 21.1 | 57.7 | 19.4 | (3.95) |
| 50~59세 | (992) | 0.0 | 1.3 | 24.5 | 55.1 | 19.1 | (3.92) |
| 60대 이상 | (1,414) | 0.4 | 1.8 | 24.1 | 60.1 | 13.6 | (3.85)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1 | 1.7 | 17.5 | 59.3 | 21.5 | (4.01) |
| 인천/경기 | (1,644) | 0.0 | 0.9 | 17.7 | 62.3 | 19.1 | (4.00) |
| 강원 | (162) | 0.0 | 2.7 | 17.3 | 62.5 | 17.5 | (3.95)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3 | 0.5 | 31.2 | 48.4 | 19.6 | (3.87)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1.1 | 17.8 | 55.4 | 25.7 | (4.06) |
| 대구/경북 | (527) | 1.0 | 2.9 | 29.7 | 47.8 | 18.6 | (3.80)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2.0 | 26.4 | 64.7 | 6.9 | (3.77) |
| 제주 | (68) | 1.1 | 0.7 | 37.0 | 27.2 | 34.0 | (3.92)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4.0 | 24.2 | 56.1 | 15.8 | (3.84)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6 | 2.8 | 21.2 | 55.8 | 18.5 | (3.8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1 | 1.8 | 26.9 | 56.0 | 15.2 | (3.84)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1.5 | 24.1 | 58.4 | 16.0 | (3.89)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0.8 | 21.2 | 56.7 | 21.3 | (3.98)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1 | 1.0 | 20.3 | 61.1 | 17.5 | (3.95)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1.4 | 15.5 | 59.5 | 23.6 | (4.05) |

다. 국가의 일에 대한 중요도 인식

‘국민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그렇다(매우 중요하다+그런 편이다)’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국가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94점이다.



[그림 3-73]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적 불평등 해소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중요하다는 데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경인권역과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계층이었으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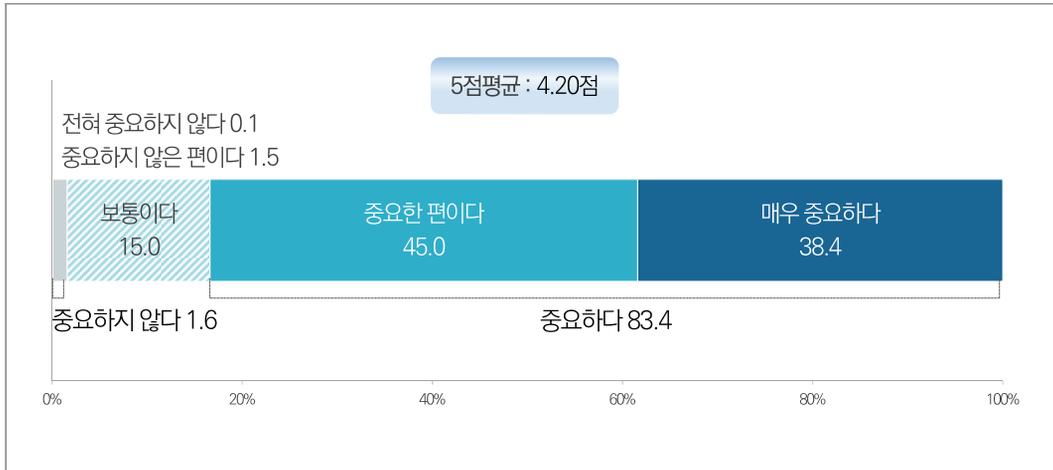
[표 3-26]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중요한 편이다 (4점) | ⑤ 매우 중요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0 | 1.2 | 19.7 | 63.3 | 15.7 | (3.94)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0 | 1.3 | 18.4 | 64.1 | 16.1 | (3.95) |
| 여성 | (2,677) | 0.0 | 1.1 | 20.9 | 62.5 | 15.4 | (3.92)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1.4 | 16.9 | 64.1 | 17.6 | (3.98) |
| 20~29세 | (779) | 0.1 | 1.6 | 20.7 | 61.8 | 15.8 | (3.92) |
| 30~39세 | (791) | 0.0 | 1.1 | 17.4 | 66.1 | 15.4 | (3.96) |
| 40~49세 | (952) | 0.0 | 1.7 | 19.4 | 63.4 | 15.6 | (3.93) |
| 50~59세 | (992) | 0.0 | 1.2 | 19.2 | 62.6 | 17.0 | (3.95) |
| 60대 이상 | (1,414) | 0.0 | 0.8 | 21.7 | 62.9 | 14.6 | (3.91)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1.9 | 20.5 | 62.4 | 15.2 | (3.91) |
| 인천/경기 | (1,644) | 0.0 | 0.3 | 12.7 | 70.0 | 17.0 | (4.04) |
| 강원 | (162) | 0.0 | 2.4 | 39.3 | 50.4 | 7.9 | (3.6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1.7 | 26.4 | 61.9 | 9.9 | (3.80)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1.5 | 18.6 | 55.5 | 24.3 | (4.02) |
| 대구/경북 | (527) | 0.0 | 1.5 | 20.1 | 68.9 | 9.5 | (3.86)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1.2 | 22.9 | 57.9 | 18.0 | (3.93) |
| 제주 | (68) | 0.0 | 3.5 | 42.4 | 40.1 | 13.9 | (3.6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0.0 | 31.1 | 54.0 | 14.9 | (3.84)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0.9 | 24.9 | 63.7 | 10.5 | (3.84)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0 | 1.2 | 22.6 | 59.4 | 16.7 | (3.92)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1.2 | 22.9 | 61.3 | 14.5 | (3.89)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2.1 | 17.8 | 65.2 | 14.9 | (3.93)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0.7 | 16.2 | 67.3 | 15.8 | (3.98)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0.7 | 14.6 | 63.9 | 20.7 | (4.04) |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음식, 주택, 의복, 교육, 건강 등) 보장’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83.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가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20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74]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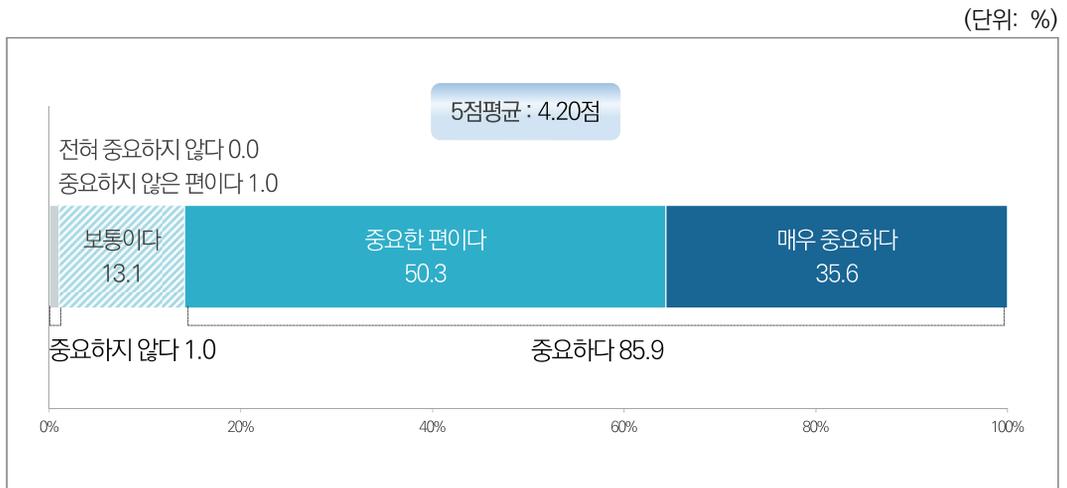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음식, 주택, 의복, 교육, 건강 등) 보장’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중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성을 보이는 집단은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계층이었으며 낮은 동의성을 보이는 지역은 충청권과 제주 지역이었다.

[표 3-27]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중요한 편이다 (4점) | ⑤ 매우 중요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1.5 | 15.0 | 45.0 | 38.4 | (4.2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0 | 1.7 | 15.8 | 43.9 | 38.6 | (4.19) |
| 여성 | (2,677) | 0.2 | 1.4 | 14.2 | 46.0 | 38.2 | (4.21)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3 | 1.5 | 12.0 | 46.0 | 40.3 | (4.25) |
| 20~29세 | (779) | 0.1 | 1.7 | 16.5 | 41.0 | 40.7 | (4.20) |
| 30~39세 | (791) | 0.0 | 0.9 | 15.3 | 45.8 | 38.1 | (4.21) |
| 40~49세 | (952) | 0.0 | 2.1 | 12.9 | 47.9 | 37.1 | (4.20) |
| 50~59세 | (992) | 0.3 | 0.8 | 14.1 | 45.8 | 39.0 | (4.23) |
| 60대 이상 | (1,414) | 0.0 | 1.9 | 16.9 | 43.9 | 37.3 | (4.17)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2.0 | 9.6 | 41.9 | 46.4 | (4.33) |
| 인천/경기 | (1,644) | 0.1 | 1.0 | 9.2 | 48.2 | 41.5 | (4.30) |
| 강원 | (162) | 0.0 | 0.6 | 20.9 | 60.0 | 18.4 | (3.96)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1.8 | 30.5 | 46.9 | 20.7 | (3.87)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2.2 | 9.5 | 43.2 | 45.1 | (4.31) |
| 대구/경북 | (527) | 0.0 | 1.8 | 18.3 | 38.8 | 41.1 | (4.19) |
| 부산/울산/경남 | (815) | 0.4 | 1.1 | 21.7 | 43.5 | 33.3 | (4.08) |
| 제주 | (68) | 0.0 | 3.3 | 29.6 | 39.8 | 27.2 | (3.91)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0.0 | 15.4 | 52.6 | 32.0 | (4.1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2.6 | 18.1 | 44.0 | 35.3 | (4.12)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3 | 1.5 | 19.7 | 43.3 | 35.2 | (4.12)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1.8 | 17.1 | 45.9 | 35.2 | (4.14)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1 | 2.3 | 12.0 | 46.2 | 39.4 | (4.23)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0.6 | 12.2 | 45.5 | 41.6 | (4.28) |
| 600만원 이상 | (714) | 0.2 | 0.6 | 12.9 | 42.2 | 44.2 | (4.30) |

‘경제 성장’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5.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단 1.0%에 불과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 성장을 국가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계량화하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20점이었다.



[그림 3-75]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 성장

응답자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전라도와 경북 지역과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응답자로 나타났다.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제주와 강원 지역이다.

[표 3-28]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경제 성장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점) | ②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중요한 편이다 (4점) | ⑤ 매우 중요 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0 | 1.0 | 13.1 | 50.3 | 35.6 | (4.2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0 | 1.0 | 12.9 | 50.5 | 35.6 | (4.21) |
| 여성 | (2,677) | 0.0 | 1.0 | 13.3 | 50.1 | 35.6 | (4.2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0.8 | 10.3 | 49.7 | 39.2 | (4.27) |
| 20~29세 | (779) | 0.2 | 0.7 | 14.9 | 51.4 | 32.9 | (4.16) |
| 30~39세 | (791) | 0.0 | 0.3 | 11.7 | 54.5 | 33.6 | (4.21) |
| 40~49세 | (952) | 0.0 | 1.0 | 11.4 | 52.6 | 34.9 | (4.21) |
| 50~59세 | (992) | 0.0 | 0.9 | 15.5 | 47.6 | 36.1 | (4.19) |
| 60대 이상 | (1,414) | 0.0 | 1.7 | 13.0 | 47.8 | 37.4 | (4.21)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0.8 | 11.3 | 51.9 | 36.0 | (4.23) |
| 인천/경기 | (1,644) | 0.1 | 0.9 | 9.4 | 58.5 | 31.0 | (4.19) |
| 강원 | (162) | 0.0 | 2.1 | 24.6 | 50.4 | 22.9 | (3.9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0.2 | 15.3 | 55.0 | 29.5 | (4.14)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0.5 | 12.3 | 40.1 | 47.0 | (4.34) |
| 대구/경북 | (527) | 0.0 | 1.6 | 14.2 | 35.8 | 48.4 | (4.31)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1.7 | 16.4 | 45.1 | 36.7 | (4.17) |
| 제주 | (68) | 0.0 | 0.4 | 39.3 | 38.2 | 22.0 | (3.82)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4.1 | 19.1 | 38.0 | 38.8 | (4.11)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1.7 | 21.4 | 44.9 | 31.9 | (4.0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1 | 1.7 | 13.4 | 51.8 | 33.0 | (4.1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0.8 | 15.7 | 50.7 | 32.8 | (4.15)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0.7 | 13.4 | 50.7 | 35.2 | (4.2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0.8 | 8.4 | 51.3 | 39.5 | (4.29)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0.5 | 8.9 | 49.8 | 40.7 | (4.31) |

‘국민 안전’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0.4%에 불과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안전을 국가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계량화해 보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38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76]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안전

응답자별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국민 안전’이 국가의 목표와 업무로서 중요하다는 데에 높은 동의성을 나타낸 집단은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계층이고,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경남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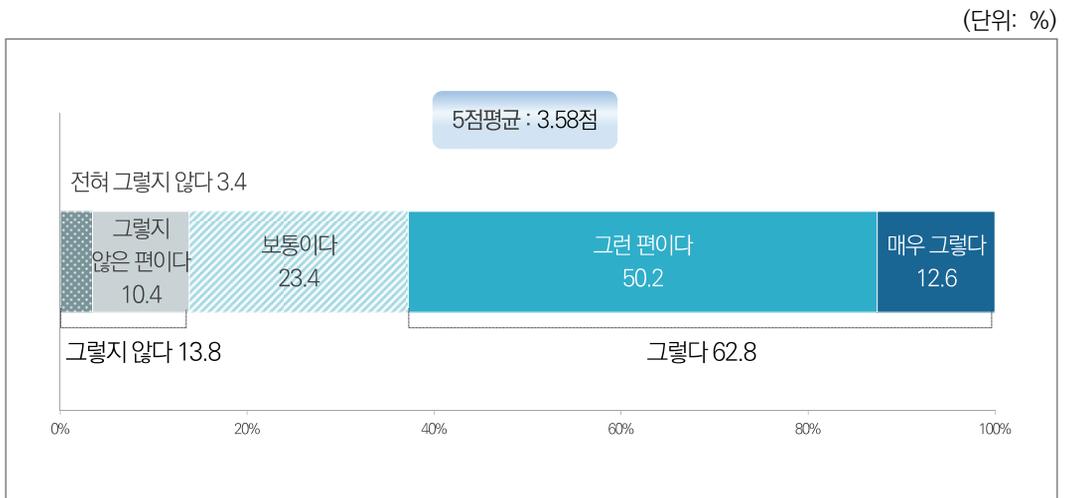
[표 3-29] 항목별 국가 업무 중요도 - 국민 안전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중요한 편이다 (4점) | ⑤ 매우 중요하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4 | 11.8 | 36.9 | 50.9 | (4.38) |
| 성별 | | | | | | |
| 남성 | (2,644) | 0.3 | 12.4 | 37.2 | 50.1 | (4.37) |
| 여성 | (2,677) | 0.4 | 11.2 | 36.7 | 51.7 | (4.40) |
| 연령별 | | | | | | |
| 13~19세 | (393) | 0.6 | 10.8 | 36.2 | 52.4 | (4.40) |
| 20~29세 | (779) | 0.3 | 11.4 | 39.6 | 48.7 | (4.37) |
| 30~39세 | (791) | 0.4 | 9.8 | 36.1 | 53.7 | (4.43) |
| 40~49세 | (952) | 0.3 | 10.1 | 38.3 | 51.3 | (4.41) |
| 50~59세 | (992) | 0.6 | 10.6 | 36.4 | 52.4 | (4.41) |
| 60대 이상 | (1,414) | 0.2 | 15.6 | 35.5 | 48.8 | (4.33) |
| 권역별 | | | | | | |
| 서울 | (1,010) | 0.3 | 9.0 | 36.0 | 54.7 | (4.45) |
| 인천/경기 | (1,644) | 0.1 | 8.3 | 35.5 | 56.2 | (4.48) |
| 강원 | (162) | 0.9 | 14.3 | 45.7 | 39.1 | (4.23)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3 | 17.6 | 42.7 | 39.4 | (4.21)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8.2 | 30.7 | 61.0 | (4.53) |
| 대구/경북 | (527) | 0.6 | 7.6 | 35.9 | 55.9 | (4.47) |
| 부산/울산/경남 | (815) | 1.1 | 23.0 | 39.7 | 36.3 | (4.11) |
| 제주 | (68) | 0.7 | 15.0 | 38.1 | 46.1 | (4.30) |
| 가구소득별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14.4 | 40.4 | 45.2 | (4.31)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4 | 20.0 | 36.2 | 42.5 | (4.20)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5 | 13.4 | 39.2 | 46.9 | (4.3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2 | 14.5 | 37.0 | 48.3 | (4.33)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5 | 11.0 | 39.9 | 48.7 | (4.37)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2 | 8.6 | 35.8 | 55.5 | (4.47)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6.9 | 30.7 | 62.4 | (4.55) |

라.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 인식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CCTV로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62.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공익 목적의 CCTV 감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8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7]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공공장소에서 CCTV 감시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CCTV로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성을 나타낸 집단은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이고, 낮은 동의성을 나타낸 집단은 충청권과 제주 지역이다.

[표 3-30]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공공장소에서 CCTV로 감시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3.4 | 10.4 | 23.4 | 50.2 | 12.6 | (3.58)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3.3 | 10.5 | 23.8 | 51.1 | 11.2 | (3.56) |
| 여성 | (2,677) | 3.5 | 10.2 | 23.1 | 49.2 | 14.0 | (3.6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5.4 | 11.3 | 21.3 | 50.2 | 11.8 | (3.52) |
| 20~29세 | (779) | 5.0 | 9.6 | 25.7 | 48.1 | 11.6 | (3.52) |
| 30~39세 | (791) | 4.6 | 10.8 | 23.3 | 49.7 | 11.6 | (3.53) |
| 40~49세 | (952) | 3.4 | 10.6 | 23.0 | 50.7 | 12.2 | (3.58) |
| 50~59세 | (992) | 2.3 | 10.2 | 22.4 | 52.4 | 12.7 | (3.63) |
| 60대 이상 | (1,414) | 2.3 | 10.2 | 23.9 | 49.6 | 14.0 | (3.63)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5.7 | 11.6 | 19.0 | 53.7 | 9.8 | (3.50) |
| 인천/경기 | (1,644) | 3.6 | 8.2 | 18.7 | 50.3 | 19.2 | (3.73) |
| 강원 | (162) | 0.4 | 8.7 | 35.9 | 38.5 | 16.5 | (3.62)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3.2 | 14.2 | 30.4 | 46.3 | 5.9 | (3.37) |
| 광주/전북/전남 | (531) | 1.3 | 7.4 | 25.8 | 51.7 | 13.9 | (3.69) |
| 대구/경북 | (527) | 4.0 | 15.3 | 24.4 | 41.8 | 14.5 | (3.48) |
| 부산/울산/경남 | (815) | 2.1 | 9.1 | 28.6 | 55.6 | 4.7 | (3.52) |
| 제주 | (68) | 4.3 | 15.7 | 27.1 | 43.1 | 9.8 | (3.38)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7 | 5.2 | 31.9 | 29.5 | 30.6 | (3.80) |
| 100~200만원 미만 | (360) | 2.3 | 7.2 | 29.6 | 51.1 | 9.8 | (3.59)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1 | 9.3 | 22.7 | 54.5 | 12.4 | (3.68)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3.7 | 9.5 | 25.0 | 50.7 | 11.0 | (3.5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3.9 | 12.4 | 23.7 | 49.5 | 10.6 | (3.51) |
| 500~600만원 미만 | (927) | 4.6 | 8.9 | 24.2 | 49.5 | 12.8 | (3.57) |
| 600만원 이상 | (714) | 4.2 | 13.7 | 16.0 | 48.2 | 17.8 | (3.62) |

국가가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모든 이메일과 정보를 모니터링(검열)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8.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40.2%로 조사되었다. 공익 목적의 이메일과 정보 검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찬성에 비하여 우세하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75점이었다.

(단위: %)



[그림 3-78]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인터넷의 이메일과 정보 모니터링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모든 이메일과 정보를 모니터링(검열)할 권리가 있다’는 데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동의성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라권역의 동의성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동의성은 높은 경향을 보이며, 경인권의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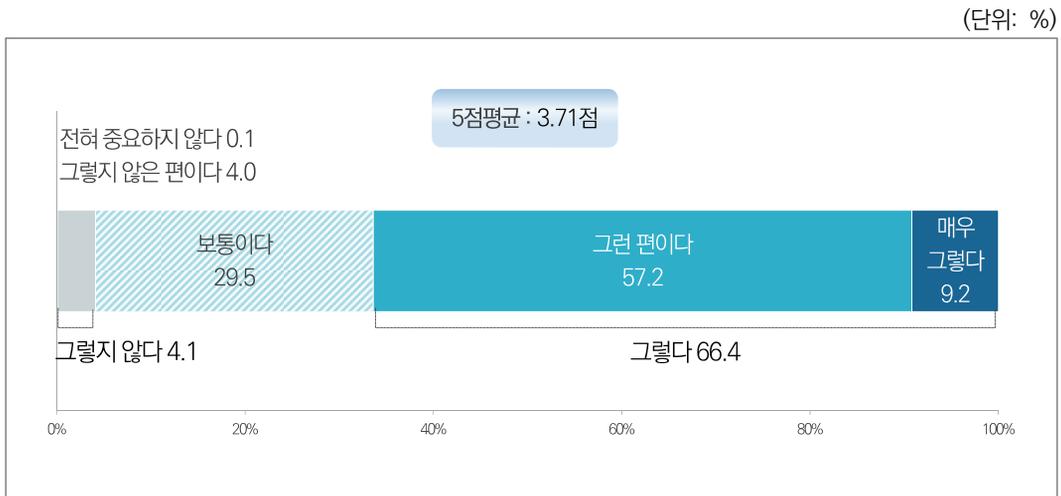
[표 3-31] 공익을 위한 국가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 인터넷의 모든 이메일과 정보 모니터링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16.1 | 24.0 | 31.1 | 26.4 | 2.3 | (2.75)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7.4 | 24.6 | 31.0 | 24.7 | 2.3 | (2.70) |
| 여성 | (2,677) | 14.9 | 23.4 | 31.2 | 28.1 | 2.3 | (2.8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21.0 | 25.9 | 25.1 | 24.6 | 3.3 | (2.63) |
| 20~29세 | (779) | 18.7 | 23.1 | 32.1 | 22.4 | 3.8 | (2.70) |
| 30~39세 | (791) | 17.7 | 25.7 | 32.0 | 23.3 | 1.3 | (2.65) |
| 40~49세 | (952) | 15.7 | 23.5 | 32.5 | 26.6 | 1.7 | (2.75) |
| 50~59세 | (992) | 15.3 | 25.1 | 32.0 | 25.5 | 2.0 | (2.74) |
| 60대 이상 | (1,414) | 13.4 | 22.6 | 30.2 | 31.5 | 2.4 | (2.87)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5.6 | 24.6 | 34.8 | 22.6 | 2.5 | (2.72) |
| 인천/경기 | (1,644) | 21.6 | 29.3 | 28.4 | 19.8 | 0.9 | (2.49) |
| 강원 | (162) | 15.3 | 33.0 | 21.2 | 19.5 | 11.1 | (2.7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6.3 | 21.5 | 32.7 | 26.6 | 3.0 | (2.79) |
| 광주/전북/전남 | (531) | 9.3 | 19.4 | 32.7 | 33.7 | 5.0 | (3.06) |
| 대구/경북 | (527) | 16.8 | 18.4 | 27.9 | 35.2 | 1.6 | (2.87) |
| 부산/울산/경남 | (815) | 9.8 | 18.9 | 34.4 | 35.4 | 1.5 | (3.00) |
| 제주 | (68) | 18.0 | 29.5 | 24.4 | 25.6 | 2.6 | (2.6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6.7 | 23.9 | 24.3 | 33.8 | 11.3 | (3.19) |
| 100~200만원 미만 | (360) | 6.4 | 23.2 | 29.6 | 39.4 | 1.4 | (3.06)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4.9 | 19.6 | 31.5 | 30.4 | 3.6 | (2.88)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7.6 | 23.2 | 30.9 | 26.5 | 1.9 | (2.72)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6.8 | 24.0 | 33.2 | 23.9 | 2.1 | (2.7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16.4 | 25.5 | 33.5 | 22.6 | 2.0 | (2.68) |
| 600만원 이상 | (714) | 19.8 | 29.0 | 26.0 | 23.4 | 1.8 | (2.58) |

바. 국가관 및 정치의식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66.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4.1%였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식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1점이었다.



[그림 3-79]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이에 대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롭다’에 높은 동의성을 보인 지역은 전라권이였다.

[표 3-32]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움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4.0 | 29.5 | 57.2 | 9.2 | (3.7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1 | 4.7 | 29.9 | 56.6 | 8.8 | (3.69) |
| 여성 | (2,677) | 0.1 | 3.4 | 29.1 | 57.9 | 9.5 | (3.73)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4 | 5.4 | 27.7 | 54.3 | 12.2 | (3.73) |
| 20~29세 | (779) | 0.1 | 5.8 | 32.7 | 53.1 | 8.2 | (3.64) |
| 30~39세 | (791) | 0.0 | 3.6 | 34.7 | 54.9 | 6.7 | (3.65) |
| 40~49세 | (952) | 0.0 | 4.4 | 33.1 | 54.9 | 7.5 | (3.66) |
| 50~59세 | (992) | 0.1 | 4.0 | 25.3 | 62.1 | 8.5 | (3.75) |
| 60대 이상 | (1,414) | 0.1 | 2.7 | 25.8 | 59.7 | 11.7 | (3.80)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1 | 6.0 | 34.3 | 52.9 | 6.8 | (3.60) |
| 인천/경기 | (1,644) | 0.0 | 3.7 | 26.4 | 60.7 | 9.1 | (3.75) |
| 강원 | (162) | 0.0 | 1.5 | 53.6 | 34.0 | 10.9 | (3.5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3.6 | 31.4 | 59.5 | 5.5 | (3.67)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1.5 | 21.4 | 56.2 | 20.9 | (3.97) |
| 대구/경북 | (527) | 0.2 | 5.5 | 29.4 | 58.4 | 6.5 | (3.66)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3.3 | 29.3 | 59.7 | 7.6 | (3.72) |
| 제주 | (68) | 0.8 | 11.4 | 24.5 | 42.2 | 21.0 | (3.71)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7 | 3.8 | 27.8 | 48.7 | 19.1 | (3.82)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2.7 | 28.5 | 59.5 | 9.3 | (3.75)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3 | 6.7 | 27.5 | 54.2 | 11.3 | (3.70)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1 | 3.6 | 33.4 | 54.3 | 8.7 | (3.6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3.9 | 30.7 | 57.7 | 7.6 | (3.69)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3.0 | 30.3 | 59.0 | 7.7 | (3.71)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4.0 | 22.7 | 62.6 | 10.7 | (3.80)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3.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9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80] 국가관 및 정치의식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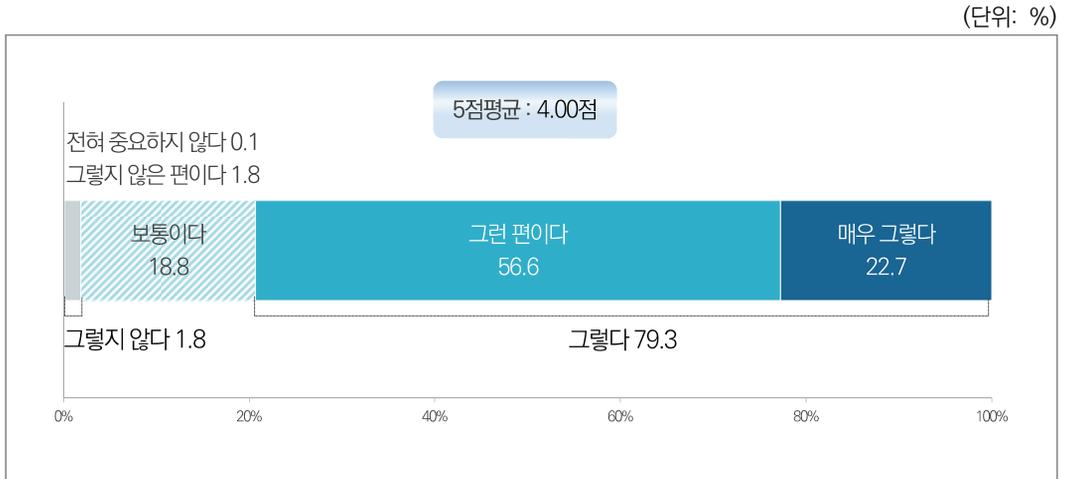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한다’는 데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의 그룹이었으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충청과 경남, 강원 지역이었다.

[표 3-33] 국가관 및 정치의식 -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함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3.7 | 22.7 | 53.7 | 19.8 | (3.8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1 | 3.7 | 22.2 | 53.1 | 20.9 | (3.91) |
| 여성 | (2,677) | 0.1 | 3.7 | 23.2 | 54.4 | 18.6 | (3.88)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4 | 2.1 | 20.7 | 54.1 | 22.7 | (3.97) |
| 20~29세 | (779) | 0.0 | 3.0 | 22.6 | 52.6 | 21.8 | (3.93) |
| 30~39세 | (791) | 0.0 | 3.4 | 20.9 | 57.9 | 17.8 | (3.90) |
| 40~49세 | (952) | 0.2 | 3.5 | 23.9 | 53.5 | 18.9 | (3.88) |
| 50~59세 | (992) | 0.3 | 3.5 | 22.9 | 53.0 | 20.3 | (3.90) |
| 60대 이상 | (1,414) | 0.0 | 5.1 | 23.3 | 52.5 | 19.0 | (3.86)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4.2 | 19.6 | 53.8 | 22.5 | (3.95) |
| 인천/경기 | (1,644) | 0.1 | 2.8 | 19.2 | 58.7 | 19.2 | (3.94) |
| 강원 | (162) | 0.0 | 5.5 | 28.0 | 48.2 | 18.3 | (3.7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4 | 6.4 | 24.7 | 54.9 | 13.5 | (3.75)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3.4 | 22.5 | 45.3 | 28.6 | (3.99) |
| 대구/경북 | (527) | 0.0 | 2.3 | 24.1 | 55.5 | 18.1 | (3.89)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3.4 | 31.1 | 49.1 | 16.3 | (3.78) |
| 제주 | (68) | 1.5 | 10.1 | 12.2 | 43.0 | 33.2 | (3.96)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12.5 | 25.2 | 41.3 | 21.0 | (3.71)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3 | 7.7 | 35.1 | 44.9 | 11.9 | (3.6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1 | 4.5 | 26.2 | 50.8 | 18.4 | (3.83)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2 | 4.6 | 23.0 | 54.8 | 17.3 | (3.84)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0 | 2.4 | 19.1 | 58.4 | 20.1 | (3.96)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1 | 3.0 | 21.3 | 55.7 | 19.9 | (3.92)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1.5 | 19.2 | 50.7 | 28.5 | (4.06) |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79.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평화시위의 보장에 동의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0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81]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합법적, 민주적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함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역별로는 경인권의 동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동의성은 낮게 나타났다.

[표 3-34]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합법적, 민주적 평화 시위는 보장되어야 함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1.8 | 18.8 | 56.6 | 22.7 | (4.0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1 | 1.7 | 18.6 | 56.0 | 23.6 | (4.01) |
| 여성 | (2,677) | 0.0 | 1.9 | 19.1 | 57.1 | 21.9 | (3.99)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2.1 | 18.4 | 54.9 | 24.5 | (4.02) |
| 20~29세 | (779) | 0.0 | 1.5 | 17.4 | 58.2 | 22.9 | (4.03) |
| 30~39세 | (791) | 0.0 | 1.6 | 16.2 | 60.5 | 21.6 | (4.02) |
| 40~49세 | (952) | 0.2 | 1.9 | 18.2 | 56.8 | 22.9 | (4.00) |
| 50~59세 | (992) | 0.2 | 1.8 | 19.5 | 53.8 | 24.7 | (4.01) |
| 60대 이상 | (1,414) | 0.0 | 1.8 | 21.2 | 55.7 | 21.3 | (3.96)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1 | 1.9 | 20.3 | 57.1 | 20.7 | (3.96) |
| 인천/경기 | (1,644) | 0.0 | 1.3 | 14.1 | 57.6 | 27.1 | (4.10) |
| 강원 | (162) | 0.0 | 1.0 | 19.0 | 68.9 | 11.0 | (3.90)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2.9 | 24.4 | 53.9 | 18.8 | (3.89) |
| 광주/전북/전남 | (531) | 0.2 | 1.3 | 20.0 | 52.1 | 26.4 | (4.03) |
| 대구/경북 | (527) | 0.0 | 2.0 | 20.5 | 56.0 | 21.4 | (3.97)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1.8 | 21.4 | 57.6 | 19.3 | (3.94) |
| 제주 | (68) | 2.3 | 6.4 | 13.1 | 45.6 | 32.7 | (4.00)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1.5 | 21.3 | 51.2 | 26.0 | (4.02)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1.6 | 26.8 | 56.2 | 15.4 | (3.85)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0 | 2.2 | 19.0 | 59.7 | 19.1 | (3.9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1 | 2.1 | 20.6 | 55.7 | 21.5 | (3.9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1 | 2.2 | 17.2 | 57.7 | 22.8 | (4.01)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1 | 0.6 | 16.3 | 57.5 | 25.5 | (4.08)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1.7 | 17.4 | 52.1 | 28.8 | (4.08) |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이다’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3.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투표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19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82]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이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와,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성이 높았으며, 충청권에서 동의성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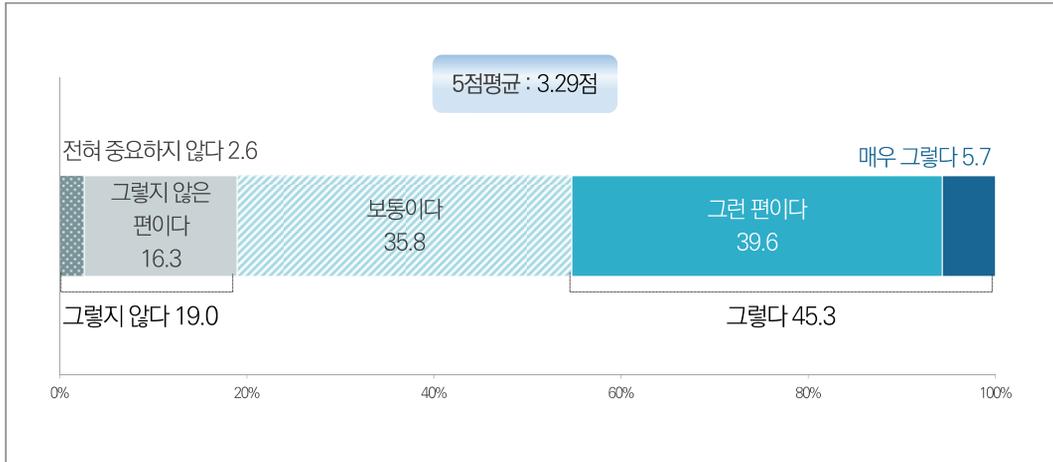
[표 3-35] 국가관 및 정치의식 -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1 | 1.4 | 14.9 | 46.9 | 36.6 | (4.1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1 | 1.3 | 14.6 | 47.4 | 36.6 | (4.19) |
| 여성 | (2,677) | 0.1 | 1.5 | 15.3 | 46.5 | 36.7 | (4.18)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0 | 1.1 | 21.1 | 46.1 | 31.8 | (4.09) |
| 20~29세 | (779) | 0.1 | 0.9 | 17.8 | 48.9 | 32.3 | (4.12) |
| 30~39세 | (791) | 0.3 | 1.6 | 15.8 | 45.5 | 36.8 | (4.17) |
| 40~49세 | (952) | 0.1 | 0.9 | 13.9 | 49.1 | 36.0 | (4.20) |
| 50~59세 | (992) | 0.2 | 1.0 | 13.5 | 48.1 | 37.2 | (4.21) |
| 60대 이상 | (1,414) | 0.0 | 2.3 | 12.9 | 44.5 | 40.3 | (4.23)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1.1 | 10.3 | 46.5 | 42.0 | (4.29) |
| 인천/경기 | (1,644) | 0.1 | 0.6 | 13.0 | 45.6 | 40.7 | (4.26) |
| 강원 | (162) | 0.0 | 0.0 | 13.2 | 68.0 | 18.8 | (4.06)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0 | 1.7 | 22.9 | 53.6 | 21.7 | (3.95)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0.5 | 11.8 | 37.2 | 50.4 | (4.37) |
| 대구/경북 | (527) | 0.0 | 3.4 | 16.7 | 47.6 | 32.3 | (4.09)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2.4 | 20.9 | 48.1 | 28.6 | (4.03) |
| 제주 | (68) | 3.0 | 6.2 | 7.6 | 34.6 | 48.6 | (4.19)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0 | 5.8 | 14.5 | 38.2 | 41.5 | (4.15)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0 | 1.4 | 14.6 | 52.5 | 31.5 | (4.14)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1 | 1.2 | 18.9 | 47.3 | 32.4 | (4.11)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1 | 2.0 | 18.0 | 46.7 | 33.3 | (4.11)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2 | 0.9 | 15.2 | 44.8 | 39.0 | (4.22)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1.7 | 11.9 | 48.5 | 37.9 | (4.23) |
| 600만원 이상 | (714) | 0.1 | 0.7 | 8.8 | 46.6 | 43.8 | (4.33) |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45.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9.0%로 나타났다. 타 조사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성은 높지 않았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9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83]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정당,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항목에 대하여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경남권역이었으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제주 지역과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계층이었다.

[표 3-36] 국가관 및 정치의식 - 정당,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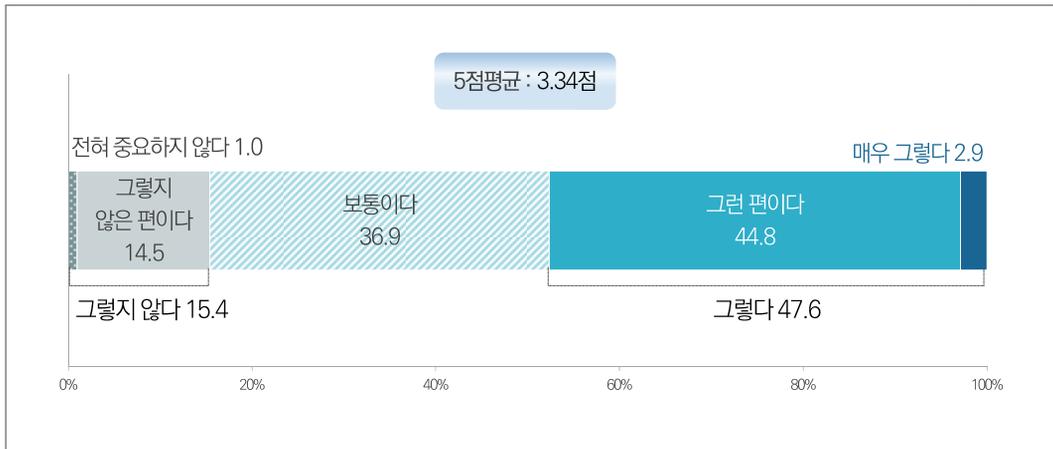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2.6 | 16.3 | 35.8 | 39.6 | 5.7 | (3.2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2.3 | 15.5 | 36.1 | 40.0 | 6.1 | (3.32) |
| 여성 | (2,677) | 2.9 | 17.1 | 35.4 | 39.2 | 5.3 | (3.27)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3.3 | 13.4 | 34.5 | 41.0 | 7.7 | (3.37) |
| 20~29세 | (779) | 3.7 | 16.5 | 33.3 | 40.9 | 5.5 | (3.28) |
| 30~39세 | (791) | 2.7 | 16.8 | 35.3 | 41.5 | 3.7 | (3.27) |
| 40~49세 | (952) | 2.1 | 14.5 | 37.2 | 41.2 | 4.9 | (3.32) |
| 50~59세 | (992) | 1.1 | 18.2 | 37.3 | 38.1 | 5.4 | (3.28) |
| 60대 이상 | (1,414) | 3.3 | 16.7 | 35.7 | 37.4 | 7.0 | (3.28)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2.0 | 18.9 | 35.8 | 38.2 | 5.1 | (3.25) |
| 인천/경기 | (1,644) | 3.6 | 19.1 | 33.7 | 37.3 | 6.3 | (3.23) |
| 강원 | (162) | 1.1 | 14.6 | 41.6 | 39.3 | 3.4 | (3.2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2.1 | 12.2 | 43.7 | 37.5 | 4.6 | (3.30) |
| 광주/전북/전남 | (531) | 5.9 | 14.7 | 33.6 | 37.4 | 8.5 | (3.28) |
| 대구/경북 | (527) | 2.2 | 13.3 | 41.2 | 37.4 | 5.8 | (3.31)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12.8 | 31.3 | 51.7 | 4.0 | (3.46) |
| 제주 | (68) | 2.9 | 28.9 | 32.6 | 24.2 | 11.4 | (3.12)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1.3 | 18.5 | 59.0 | 15.9 | 5.4 | (3.0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7.3 | 19.3 | 41.1 | 29.1 | 3.2 | (3.02) |
| 200~300만원 미만 | (832) | 3.6 | 19.4 | 33.6 | 36.7 | 6.8 | (3.24)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0 | 12.9 | 38.4 | 42.9 | 4.8 | (3.38)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2.2 | 13.8 | 35.1 | 42.1 | 6.9 | (3.38) |
| 500~600만원 미만 | (927) | 1.7 | 17.3 | 33.6 | 41.6 | 5.8 | (3.33) |
| 600만원 이상 | (714) | 4.1 | 19.8 | 32.3 | 38.9 | 5.0 | (3.21) |

바. 세계시민, 통일에 대한 인식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47.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5.4%로 나타났다.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그림 3-84] 세계시민, 통일 의식 -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이 우선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에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만 13~19세의 연령층이었으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제주 지역이었다.

[표 3-37] 세계시민, 통일 의식 -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이 우선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1.0 | 14.5 | 36.9 | 44.8 | 2.9 | (3.34)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2 | 13.4 | 37.1 | 44.8 | 3.6 | (3.36) |
| 여성 | (2,677) | 0.7 | 15.6 | 36.8 | 44.8 | 2.2 | (3.32)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2 | 11.3 | 32.9 | 52.8 | 2.8 | (3.47) |
| 20~29세 | (779) | 1.0 | 11.8 | 37.4 | 47.1 | 2.8 | (3.39) |
| 30~39세 | (791) | 0.9 | 14.6 | 39.6 | 41.8 | 3.2 | (3.32) |
| 40~49세 | (952) | 1.7 | 15.3 | 37.8 | 43.1 | 2.1 | (3.29) |
| 50~59세 | (992) | 0.8 | 15.0 | 35.4 | 45.4 | 3.3 | (3.35) |
| 60대 이상 | (1,414) | 0.8 | 15.8 | 36.8 | 43.6 | 3.0 | (3.32)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6 | 16.4 | 38.0 | 42.0 | 2.9 | (3.30) |
| 인천/경기 | (1,644) | 1.5 | 14.9 | 37.4 | 44.7 | 1.5 | (3.30) |
| 강원 | (162) | 0.6 | 18.6 | 55.2 | 23.9 | 1.8 | (3.08)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9 | 12.1 | 38.4 | 45.0 | 3.5 | (3.38) |
| 광주/전북/전남 | (531) | 0.4 | 17.2 | 35.1 | 42.1 | 5.2 | (3.34) |
| 대구/경북 | (527) | 1.3 | 16.9 | 33.4 | 44.1 | 4.3 | (3.33)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7.6 | 33.1 | 56.0 | 3.1 | (3.54) |
| 제주 | (68) | 4.8 | 27.8 | 41.0 | 25.1 | 1.4 | (2.91)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2.5 | 11.5 | 47.8 | 36.6 | 1.6 | (3.23)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6 | 17.4 | 39.8 | 40.6 | 1.6 | (3.25)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4 | 15.7 | 35.7 | 43.4 | 3.7 | (3.32)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6 | 14.3 | 35.5 | 47.1 | 2.5 | (3.37)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7 | 11.2 | 38.4 | 46.1 | 3.6 | (3.41)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9 | 12.6 | 37.3 | 46.6 | 2.6 | (3.37) |
| 600만원 이상 | (714) | 1.4 | 20.0 | 35.1 | 40.9 | 2.5 | (3.23) |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71.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그림 3-85]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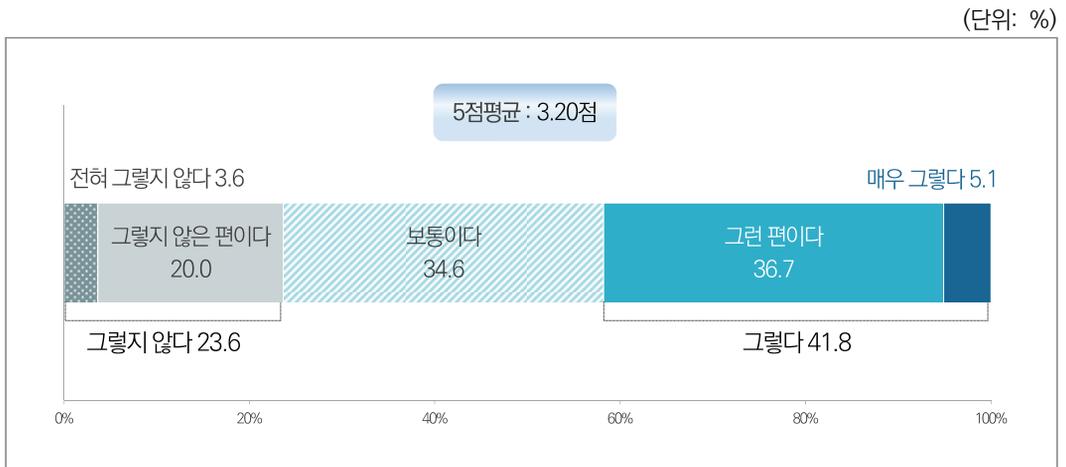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3-38]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2 | 3.2 | 24.9 | 57.4 | 14.3 | (3.82)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3 | 3.5 | 24.8 | 56.1 | 15.3 | (3.83) |
| 여성 | (2,677) | 0.1 | 2.9 | 25.0 | 58.7 | 13.3 | (3.82)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1 | 3.3 | 23.3 | 57.6 | 15.7 | (3.85) |
| 20~29세 | (779) | 0.3 | 3.4 | 26.0 | 54.9 | 15.5 | (3.82) |
| 30~39세 | (791) | 0.0 | 3.5 | 25.0 | 57.0 | 14.6 | (3.83) |
| 40~49세 | (952) | 0.0 | 4.3 | 25.2 | 57.0 | 13.4 | (3.80) |
| 50~59세 | (992) | 0.1 | 3.1 | 25.2 | 56.0 | 15.6 | (3.84) |
| 60대 이상 | (1,414) | 0.4 | 2.4 | 24.2 | 60.2 | 12.8 | (3.83)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0 | 3.1 | 17.9 | 62.1 | 16.8 | (3.93) |
| 인천/경기 | (1,644) | 0.4 | 2.8 | 24.0 | 60.2 | 12.6 | (3.82) |
| 강원 | (162) | 0.0 | 0.9 | 35.8 | 54.6 | 8.7 | (3.71)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2 | 2.9 | 33.6 | 53.2 | 10.1 | (3.70) |
| 광주/전북/전남 | (531) | 0.0 | 3.6 | 20.9 | 54.4 | 21.0 | (3.93) |
| 대구/경북 | (527) | 0.4 | 8.2 | 26.6 | 50.1 | 14.7 | (3.70) |
| 부산/울산/경남 | (815) | 0.0 | 1.2 | 28.1 | 56.9 | 13.7 | (3.83) |
| 제주 | (68) | 0.8 | 5.6 | 28.8 | 46.9 | 17.8 | (3.75)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7 | 4.8 | 46.1 | 34.0 | 14.5 | (3.5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4 | 3.9 | 24.7 | 56.5 | 14.6 | (3.8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7 | 3.4 | 27.1 | 55.7 | 13.2 | (3.77)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0 | 4.1 | 26.7 | 57.6 | 11.6 | (3.77)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1 | 2.5 | 23.4 | 59.4 | 14.7 | (3.86)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0 | 2.8 | 22.9 | 57.2 | 17.1 | (3.88) |
| 600만원 이상 | (714) | 0.0 | 2.8 | 22.0 | 59.4 | 15.8 | (3.88) |

‘북한은 우리나라의 협력 대상이다’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41.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3.6%로 조사되었다. 북한을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였으나 전체적인 동의성은 높지 않았고,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0점이었다.



[그림 3-86] 세계시민, 통일 의식 -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

‘북한은 우리나라의 협력 대상이다’는 문항의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라권에서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지역별로는 제주·경북·강원권에서,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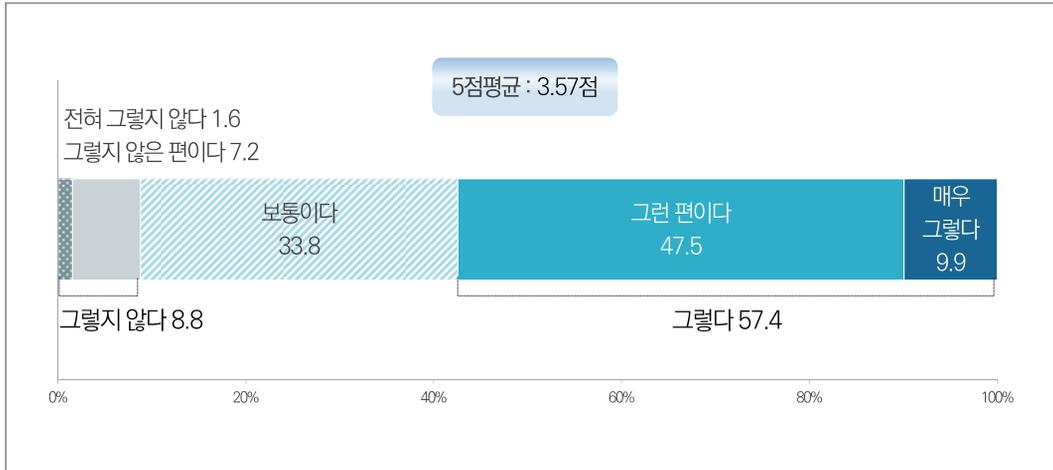
[표 3-39] 세계시민, 통일 의식 -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3.6 | 20.0 | 34.6 | 36.7 | 5.1 | (3.20)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4.5 | 18.2 | 34.6 | 36.9 | 5.8 | (3.21) |
| 여성 | (2,677) | 2.8 | 21.8 | 34.5 | 36.5 | 4.4 | (3.18)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2.2 | 20.2 | 35.7 | 36.4 | 5.5 | (3.23) |
| 20~29세 | (779) | 3.5 | 16.7 | 36.3 | 37.2 | 6.2 | (3.26) |
| 30~39세 | (791) | 3.3 | 19.7 | 34.4 | 36.9 | 5.7 | (3.22) |
| 40~49세 | (952) | 3.5 | 19.7 | 34.5 | 37.5 | 4.8 | (3.20) |
| 50~59세 | (992) | 3.3 | 19.0 | 35.5 | 37.4 | 4.9 | (3.22) |
| 60대 이상 | (1,414) | 4.7 | 22.8 | 32.8 | 35.3 | 4.4 | (3.12)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8 | 20.5 | 33.3 | 38.3 | 6.2 | (3.27) |
| 인천/경기 | (1,644) | 3.1 | 19.0 | 39.2 | 34.3 | 4.4 | (3.18) |
| 강원 | (162) | 10.3 | 23.6 | 33.4 | 32.2 | 0.5 | (2.8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4.6 | 19.3 | 30.4 | 41.0 | 4.8 | (3.22) |
| 광주/전북/전남 | (531) | 4.2 | 13.3 | 27.4 | 44.6 | 10.6 | (3.44) |
| 대구/경북 | (527) | 7.7 | 27.7 | 38.9 | 22.7 | 3.0 | (2.85) |
| 부산/울산/경남 | (815) | 1.1 | 20.3 | 32.2 | 42.1 | 4.4 | (3.28) |
| 제주 | (68) | 16.0 | 23.9 | 30.9 | 26.0 | 3.1 | (2.76)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12.0 | 36.0 | 22.1 | 20.8 | 9.2 | (2.79) |
| 100~200만원 미만 | (360) | 3.9 | 24.9 | 32.6 | 36.0 | 2.5 | (3.08) |
| 200~300만원 미만 | (832) | 6.5 | 21.8 | 35.2 | 32.2 | 4.2 | (3.0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3.6 | 18.6 | 36.9 | 35.3 | 5.4 | (3.20)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5 | 18.7 | 35.7 | 39.1 | 4.9 | (3.27) |
| 500~600만원 미만 | (927) | 3.0 | 15.4 | 35.0 | 41.5 | 5.0 | (3.30) |
| 600만원 이상 | (714) | 3.5 | 23.9 | 29.7 | 36.0 | 6.9 | (3.19) |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7.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8.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점이었다.

(단위: %)



[그림 3-87]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통일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될 것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는 항목에 동의성이 높은 집단은 전라권이며, 동의성이 낮은 집단은 경북지역과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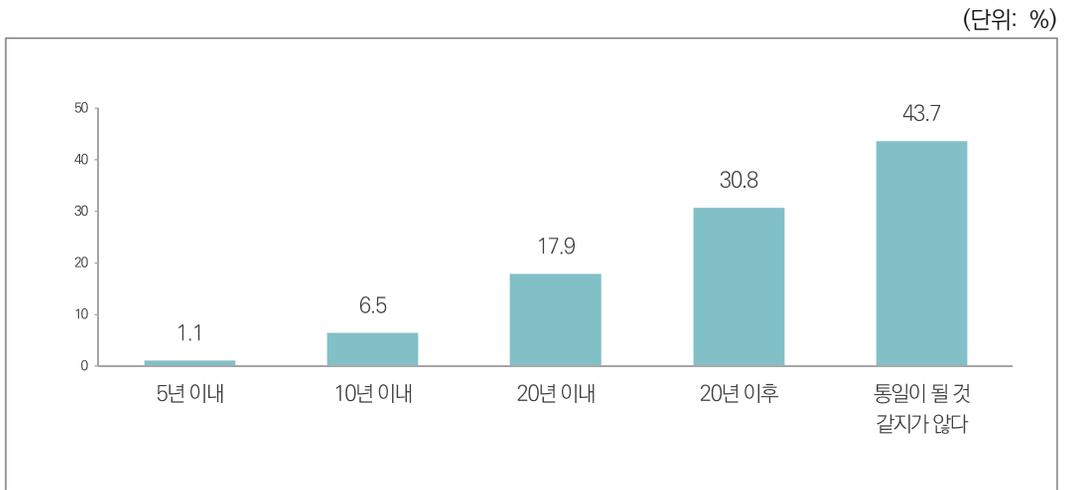
[표 3-40] 세계시민, 통일 의식 - 통일 후 통일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될 것임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 ③ 보통 이다 (3점) | ④ 그런 편이다 (4점) | ⑤ 매우 그렇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1.6 | 7.2 | 33.8 | 47.5 | 9.9 | (3.57)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1.7 | 7.1 | 31.2 | 49.5 | 10.5 | (3.60) |
| 여성 | (2,677) | 1.4 | 7.3 | 36.4 | 45.5 | 9.4 | (3.54)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8 | 6.2 | 32.2 | 52.0 | 8.8 | (3.62) |
| 20~29세 | (779) | 1.4 | 6.6 | 34.7 | 50.0 | 7.3 | (3.55) |
| 30~39세 | (791) | 1.7 | 6.6 | 34.6 | 47.6 | 9.4 | (3.56) |
| 40~49세 | (952) | 1.8 | 6.4 | 32.5 | 48.5 | 10.8 | (3.60) |
| 50~59세 | (992) | 0.6 | 8.8 | 30.9 | 47.1 | 12.6 | (3.62) |
| 60대 이상 | (1,414) | 2.2 | 7.7 | 36.2 | 44.4 | 9.5 | (3.51)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1.5 | 5.3 | 31.9 | 49.9 | 11.4 | (3.64) |
| 인천/경기 | (1,644) | 1.0 | 5.4 | 34.2 | 49.5 | 9.8 | (3.62) |
| 강원 | (162) | 5.6 | 18.2 | 18.9 | 41.0 | 16.4 | (3.4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2.8 | 7.6 | 36.0 | 44.2 | 9.4 | (3.50) |
| 광주/전북/전남 | (531) | 0.7 | 8.1 | 26.2 | 48.5 | 16.5 | (3.72) |
| 대구/경북 | (527) | 3.3 | 14.6 | 34.1 | 41.1 | 6.9 | (3.34) |
| 부산/울산/경남 | (815) | 0.1 | 5.5 | 41.4 | 48.6 | 4.4 | (3.52) |
| 제주 | (68) | 7.6 | 6.6 | 34.8 | 34.0 | 17.1 | (3.46)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7.6 | 13.1 | 29.2 | 34.3 | 15.7 | (3.37)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4 | 12.0 | 32.1 | 47.6 | 6.9 | (3.47) |
| 200~300만원 미만 | (832) | 2.7 | 6.4 | 40.1 | 42.7 | 8.1 | (3.47)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1 | 7.6 | 33.9 | 49.1 | 8.3 | (3.56)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2 | 7.1 | 32.9 | 48.2 | 10.6 | (3.6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1.3 | 5.7 | 29.6 | 51.1 | 12.3 | (3.67) |
| 600만원 이상 | (714) | 1.2 | 6.7 | 34.7 | 45.9 | 11.5 | (3.60) |

사. 남북통일 예측 시기

남북통일 시기에 대하여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년 후’(30.8%), ‘20년 이내’(17.9%), ‘10년 이내’(6.5%), ‘5년 이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이 되더라도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림 3-88] 남북통일 예측 시기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북통일 시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50대 이상, 경상 권역,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20년 이내’와 ‘20년 이후’, 충청권에서는 ‘20년 이후’, 전라권에서는 ‘20년 이내’의 시기로 예측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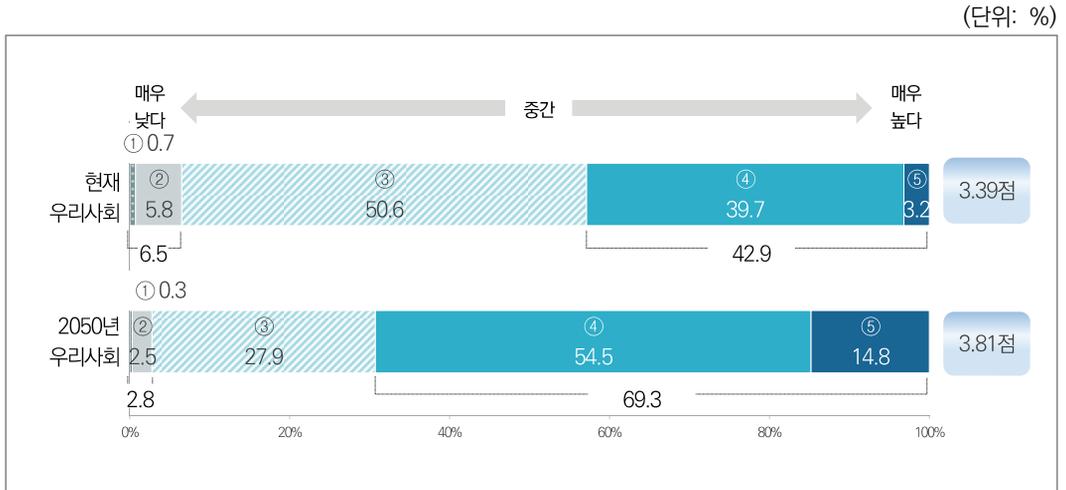
[표 3-41] 남북통일 시기 예측

(단위: 명, %)

| 구분 | 사례수 | 5년 이내 | 10년 이내 | 20년 이내 | 20년 이후 | 통일이 될 것 같지가 않다 |
|--------------|---------|----------|-----------|-----------|-----------|----------------------|
| 전 체 | (5,321) | 1.1 | 6.5 | 17.9 | 30.8 | 43.7 |
| 성별 | | | | | | |
| 남성 | (2,644) | 0.8 | 6.8 | 19.2 | 31.8 | 41.5 |
| 여성 | (2,677) | 1.4 | 6.1 | 16.7 | 29.8 | 45.9 |
| 연령별 | | | | | | |
| 13~19세 | (393) | 0.7 | 8.3 | 18.8 | 32.1 | 40.1 |
| 20~29세 | (779) | 1.3 | 5.1 | 15.7 | 36.0 | 41.8 |
| 30~39세 | (791) | 1.3 | 8.0 | 18.0 | 32.1 | 40.5 |
| 40~49세 | (952) | 0.9 | 5.6 | 19.8 | 32.0 | 41.8 |
| 50~59세 | (992) | 0.8 | 7.0 | 20.5 | 26.0 | 45.7 |
| 60대 이상 | (1,414) | 1.3 | 6.1 | 15.8 | 29.3 | 47.4 |
| 권역별 | | | | | | |
| 서울 | (1,010) | 1.5 | 7.6 | 20.2 | 38.2 | 32.6 |
| 인천/경기 | (1,644) | 0.4 | 5.9 | 27.0 | 35.1 | 31.6 |
| 강원 | (162) | 3.0 | 11.3 | 8.2 | 20.6 | 56.9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9 | 3.9 | 7.4 | 31.6 | 56.3 |
| 광주/전북/전남 | (531) | 2.8 | 10.4 | 21.5 | 25.0 | 40.4 |
| 대구/경북 | (527) | 1.3 | 3.7 | 7.4 | 24.5 | 63.1 |
| 부산/울산/경남 | (815) | 0.3 | 5.9 | 11.0 | 23.2 | 59.6 |
| 제주 | (68) | 4.7 | 12.2 | 12.3 | 18.6 | 52.2 |
| 가구소득별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1.1 | 0.0 | 13.6 | 17.2 | 68.1 |
| 100~200만원 미만 | (360) | 1.9 | 7.1 | 10.5 | 18.7 | 61.8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2 | 4.4 | 14.9 | 32.0 | 47.5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1.0 | 8.7 | 18.1 | 31.9 | 40.3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8 | 6.1 | 20.1 | 32.9 | 40.1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4 | 5.1 | 20.6 | 30.3 | 43.6 |
| 600만원 이상 | (714) | 2.1 | 7.9 | 18.4 | 32.3 | 39.2 |

아. 우리나라의 위상 인식 및 전망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에 대하여 42.9%가 ‘높다(4+5점)’고 인식(평균 3.39점)한 반면, 30년 후에는 69.3%가 ‘높을 것이다(4+5점)’로 예측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은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미래 위상은 보다 높아질 것이라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9] 우리나라의 위상 인식 및 전망

이에 대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전라권과 강원 지역임을 알 수 있다. 30년 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게 인식한 집단은 전라권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한 집단은 경북권이였다.

[표 3-42]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매우 낮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매우 높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7 | 5.8 | 50.6 | 39.7 | 3.2 | (3.39)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7 | 6.1 | 50.9 | 38.6 | 3.7 | (3.38) |
| 여성 | (2,677) | 0.7 | 5.5 | 50.4 | 40.8 | 2.6 | (3.39)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2 | 5.4 | 49.0 | 42.0 | 3.5 | (3.43) |
| 20~29세 | (779) | 0.0 | 5.6 | 53.1 | 38.6 | 2.7 | (3.38) |
| 30~39세 | (791) | 0.8 | 5.9 | 51.9 | 38.2 | 3.3 | (3.37) |
| 40~49세 | (952) | 1.1 | 6.6 | 49.6 | 39.0 | 3.7 | (3.38) |
| 50~59세 | (992) | 1.4 | 5.9 | 49.7 | 39.5 | 3.4 | (3.38) |
| 60대 이상 | (1,414) | 0.5 | 5.3 | 50.4 | 41.0 | 2.8 | (3.40)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6 | 6.1 | 53.6 | 38.3 | 1.4 | (3.34) |
| 인천/경기 | (1,644) | 0.0 | 3.0 | 57.7 | 37.5 | 1.8 | (3.38) |
| 강원 | (162) | 1.1 | 3.0 | 32.9 | 57.7 | 5.4 | (3.63)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1.1 | 6.4 | 48.6 | 39.1 | 4.8 | (3.40) |
| 광주/전북/전남 | (531) | 0.1 | 2.9 | 37.8 | 52.9 | 6.3 | (3.62) |
| 대구/경북 | (527) | 3.2 | 16.0 | 51.4 | 24.2 | 5.3 | (3.12) |
| 부산/울산/경남 | (815) | 0.7 | 6.3 | 46.0 | 44.0 | 3.0 | (3.42) |
| 제주 | (68) | 0.8 | 8.9 | 44.7 | 39.6 | 6.0 | (3.41)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7 | 2.5 | 50.0 | 43.9 | 3.0 | (3.46)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9 | 8.0 | 44.2 | 42.8 | 4.1 | (3.41) |
| 200~300만원 미만 | (832) | 1.2 | 6.2 | 51.2 | 36.0 | 5.4 | (3.38)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5 | 5.3 | 50.0 | 40.7 | 3.5 | (3.41)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1.0 | 5.3 | 51.3 | 40.6 | 1.9 | (3.37)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3 | 4.9 | 51.9 | 40.4 | 2.5 | (3.40) |
| 600만원 이상 | (714) | 0.5 | 7.5 | 51.8 | 37.7 | 2.5 | (3.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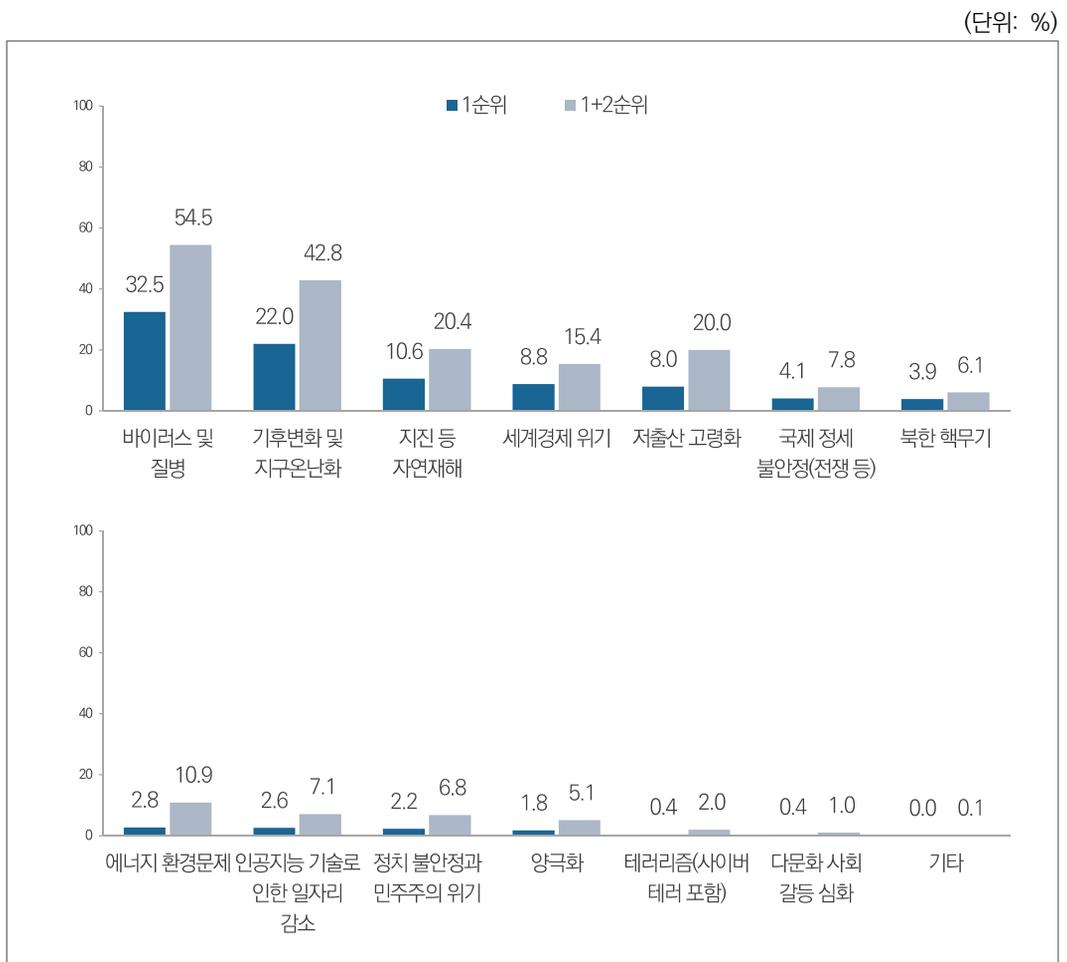
[표 3-43] 30년 후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 구분 | 사례수 | ① 매우 낮을 것이다 (1점) | ② (2점) | ③ 중간 (3점) | ④ (4점) | ⑤ 매우 높을 것이다 (5점) | 5점 평균 |
|--------------|---------|---------------------------|-----------|-----------------|-----------|---------------------------|--------|
| 전 체 | (5,321) | 0.3 | 2.5 | 27.9 | 54.5 | 14.8 | (3.81) |
| 성별 | | | | | | | |
| 남성 | (2,644) | 0.4 | 2.6 | 27.4 | 54.2 | 15.4 | (3.81) |
| 여성 | (2,677) | 0.2 | 2.3 | 28.5 | 54.8 | 14.2 | (3.80) |
| 연령별 | | | | | | | |
| 13~19세 | (393) | 0.2 | 1.7 | 22.9 | 55.1 | 20.2 | (3.93) |
| 20~29세 | (779) | 0.2 | 1.8 | 27.1 | 57.9 | 13.0 | (3.82) |
| 30~39세 | (791) | 0.4 | 1.7 | 26.0 | 57.6 | 14.3 | (3.84) |
| 40~49세 | (952) | 0.8 | 3.0 | 29.7 | 50.8 | 15.7 | (3.78) |
| 50~59세 | (992) | 0.2 | 3.0 | 27.4 | 54.3 | 15.2 | (3.81) |
| 60대 이상 | (1,414) | 0.2 | 2.8 | 30.0 | 53.4 | 13.6 | (3.77) |
| 권역별 | | | | | | | |
| 서울 | (1,010) | 0.7 | 1.7 | 23.3 | 62.4 | 12.0 | (3.83) |
| 인천/경기 | (1,644) | 0.0 | 1.5 | 26.7 | 58.9 | 13.0 | (3.83) |
| 강원 | (162) | 1.1 | 0.3 | 28.5 | 43.5 | 26.6 | (3.94) |
| 대전/세종/충북/충남 | (566) | 0.2 | 3.9 | 33.2 | 45.2 | 17.4 | (3.76) |
| 광주/전북/전남 | (531) | 0.4 | 1.0 | 20.1 | 51.4 | 27.2 | (4.04) |
| 대구/경북 | (527) | 0.6 | 7.0 | 40.3 | 43.1 | 9.0 | (3.53) |
| 부산/울산/경남 | (815) | 0.2 | 3.0 | 28.9 | 55.4 | 12.5 | (3.77) |
| 제주 | (68) | 0.3 | 1.9 | 33.1 | 39.7 | 25.0 | (3.87) |
| 가구소득별 | | | | | | | |
| 100만원 미만 | (86) | 0.2 | 1.7 | 34.3 | 42.7 | 21.1 | (3.83) |
| 100~200만원 미만 | (360) | 0.1 | 5.1 | 29.8 | 52.3 | 12.7 | (3.72) |
| 200~300만원 미만 | (832) | 0.2 | 3.6 | 30.7 | 51.0 | 14.5 | (3.76) |
| 300~400만원 미만 | (1,210) | 0.4 | 2.3 | 27.7 | 55.2 | 14.3 | (3.81) |
| 400~500만원 미만 | (1,192) | 0.1 | 2.3 | 28.9 | 55.1 | 13.7 | (3.80) |
| 500~600만원 미만 | (927) | 0.5 | 1.6 | 25.0 | 56.3 | 16.6 | (3.87) |
| 600만원 이상 | (714) | 0.5 | 1.7 | 25.6 | 56.7 | 15.5 | (3.85) |

자.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요소

30년 후 인류를 위협할 요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바이러스 및 질병’(1순위: 32.5%, 1+2순위: 54.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1순위: 22.0%, 1+2순위: 42.8%), ‘자연재해’(1순위: 10.6%, 1+2순위: 20.4%), ‘세계경제 위기’(1순위: 8.8%, 1+2순위: 15.4%), ‘저출산 고령화’(1순위: 8.0%, 1+2순위: 20.0%)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0] 30년 후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요소

제 3 절

미래세대의 가치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

여기에서는 세대별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10대와 20대(만13세-29세), 30대와 40대(만30세-49세), 50대와 60대(만50세-69세)로 구분하여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4]와 같다. 즉, 일과 여가에 대한 가치, 개인의 삶에 있어 자율성과 성취감, 새로운 가족 범주에 대한 유연성, 과학기술의 수용성 등에서 세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일과 직업관에서 50대와 60대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함’,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에 대한 동의성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아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 중에서 10대와 20대는 세 문항의 평균점수가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에서 10대와 20대는 ‘여가 생활은 내게 매우 중요’(3.96점),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받는 것 중요’(3.89점),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4.02점),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3.35점), ‘모험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중요’(3.81점),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 중요’(3.59점) 등의 문항에서 모두 동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세대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여섯 문항 모두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범주에 대한 유연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음’에 대한 평균점수가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3.88점, 2.99점), 30대와 40대(3.52점, 2.69점), 50대와 60대(3.08점, 2.40점)에 비해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50대와 60대는 가장 동의수준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족 개념을 유지하는 입장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 10대와 20대의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3.08점),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함’(3.98점),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3.93점), ‘로봇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3.90점)의 문항에서 평균점수가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과 직업관에서 50-60대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직업의 필요성에 가장 동의성이 높은 집단인 반면, 10-20대는 동의성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10-20대의 직업관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50-60대의 직업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에서 10-20대는 여가생활을 중요시하고, 자율과 성취를 중요시 여기며,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는 것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10-20대는 개인의 자율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중요시한다. 개인과 집단은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대칭축으로 다루어 지는데(Hofstede, 2001) 최근에는 기존의 이분법이 아닌 변형된 모습 가령,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수직주의, 수평주의 개념을 더하는 것처럼 세분화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riandis, 1995).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맥락과 이슈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44] 세대별 가치관 비교 분석(ANOVA) 결과

| 구분 | 종속변수 | 세대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F | Scheffe |
|--------------------------|---------------------------|------------------|-------------|-------------|------------|------------|---------|
| 일, 직업 |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10-20대(a) | 1172 | 3.66 | 0.902 | 12.819*** | a,b<c |
| | | 30-40대(b) | 1743 | 3.70 | 0.906 | | |
| | | 50-60대(c) | 2405 | 3.80 | 0.878 | | |
| 일, 직업 |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함 | 10-20대(a) | 1172 | 3.44 | 0.906 | 19.341*** | a<b<c |
| | | 30-40대(b) | 1743 | 3.55 | 0.857 | | |
| | | 50-60대(c) | 2405 | 3.63 | 0.846 | | |
| 일, 직업 |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 | 10-20대(a) | 1172 | 3.41 | 0.819 | 20.396*** | a<b<c |
| | | 30-40대(b) | 1743 | 3.49 | 0.812 | | |
| | | 50-60대(c) | 2405 | 3.59 | 0.768 | | |
| 개인의 삶 | 여가 생활은 내게 매우 중요 | 10-20대(a) | 1172 | 3.96 | 0.645 | 101.271*** | c<b<a |
| | | 30-40대(b) | 1743 | 3.79 | 0.652 | | |
| | | 50-60대(c) | 2405 | 3.61 | 0.769 | | |
| |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받는 것 중요 | 10-20대(a) | 1172 | 3.89 | 0.825 | 20.092*** | b,c<a |
| | | 30-40대(b) | 1743 | 3.74 | 0.830 | | |
| | | 50-60대(c) | 2405 | 3.70 | 0.857 | | |
| |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 | 10-20대(a) | 1172 | 4.02 | 0.723 | 33.687*** | b,c<a |
| 30-40대(b) | | 1743 | 3.85 | 0.774 | | | |
| 50-60대(c) | | 2405 | 3.81 | 0.739 | | | |
| 부유하게 사는 것 중요 | 10-20대(a) | 1172 | 3.35 | 0.985 | 60.323*** | c<b<a | |
| | 30-40대(b) | 1743 | 3.17 | 0.965 | | | |
| | 50-60대(c) | 2405 | 2.98 | 0.997 | | | |
|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중요 | 10-20대(a) | 1172 | 3.81 | 0.715 | 143.520*** | c<b<a | |
| | 30-40대(b) | 1743 | 3.53 | 0.769 | | | |
| | 50-60대(c) | 2405 | 3.34 | 0.819 | | | |
|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 | 10-20대(a) | 1172 | 3.59 | 0.753 | 18.630*** | c<b<a | |
| | 30-40대(b) | 1743 | 3.52 | 0.777 | | | |
| | 50-60대(c) | 2405 | 3.43 | 0.788 | | | |
| 가족 범주 |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 | 10-20대(a) | 1172 | 3.88 | 0.847 | 263.584*** | c<b<a |
| | | 30-40대(b) | 1743 | 3.52 | 0.967 | | |
| | | 50-60대(c) | 2405 | 3.08 | 1.118 | | |
| 가족 범주 |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음 | 10-20대(a) | 1172 | 2.99 | 0.980 | 142.907*** | c<b<a |
| | | 30-40대(b) | 1743 | 2.69 | 0.973 | | |
| | | 50-60대(c) | 2405 | 2.40 | 1.021 | | |
| 과학 기술 |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 10-20대(a) | 1172 | 3.08 | 0.881 | 96.530*** | c<b<a |
| | | 30-40대(b) | 1743 | 2.95 | 0.824 | | |
| | | 50-60대(c) | 2405 | 2.69 | 0.837 | | |
| |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안락, 편리하게 함 | 10-20대(a) | 1172 | 3.98 | 0.638 | 22.589*** | c<b<a |
| 30-40대(b) | | 1743 | 3.88 | 0.617 | | | |
| 50-60대(c) | | 2405 | 3.83 | 0.629 | | | |
|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 | 10-20대(a) | 1172 | 3.93 | 0.818 | 15.460*** | c<b<a | |
| | 30-40대(b) | 1743 | 3.85 | 0.834 | | | |
| | 50-60대(c) | 2405 | 3.77 | 0.868 | | | |
| 로봇은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 | 10-20대(a) | 1172 | 3.90 | 0.704 | 8.285*** | c,b<a | |
| | 30-40대(b) | 1743 | 3.80 | 0.733 | | | |
| | 50-60대(c) | 2405 | 3.80 | 0.76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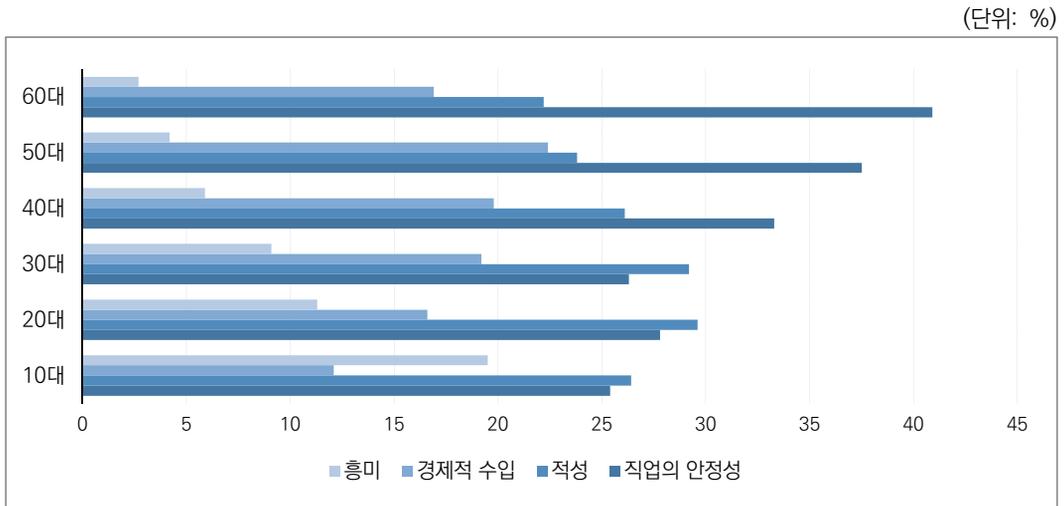
***p< .001

2 미래세대의 특성

여기에서는 미래세대 특히, 10대 청소년의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고자 한다.

가. 일과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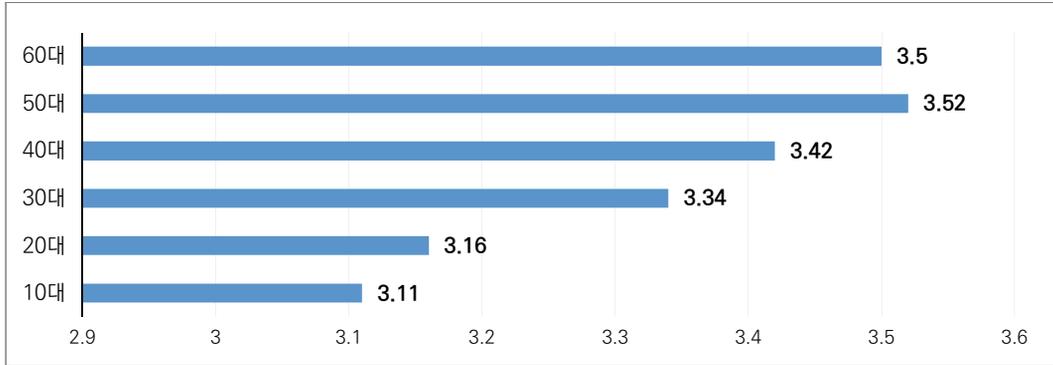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직업의 안정성’(33.7%)을 꼽았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래세대와 기성세대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 10대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직업의 안정성’(25.4%)보다 ‘적성’(26.4%)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19.6%)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의 안정성’과 ‘경제적 수입’을 꼽은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흥미’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그림 3-91]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

여가와 일에서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9.6%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10대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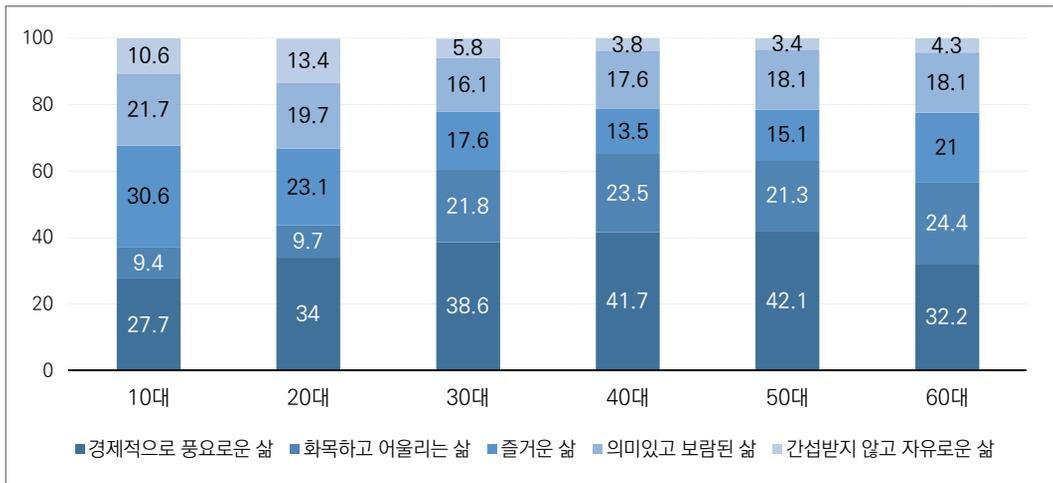
(단위: 평균점수)



[그림 3-92] 여가시간이 줄더라도 일이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삶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20.0%), ‘즐거워 삶’(19.1%), ‘의미 있고 보람된 삶’(18.2%),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6.1%)의 순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10대는 ‘즐거워 삶’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대는 ‘자유로운 삶’의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았으며, 30대 이상은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에 대한 응답 비율이 10대와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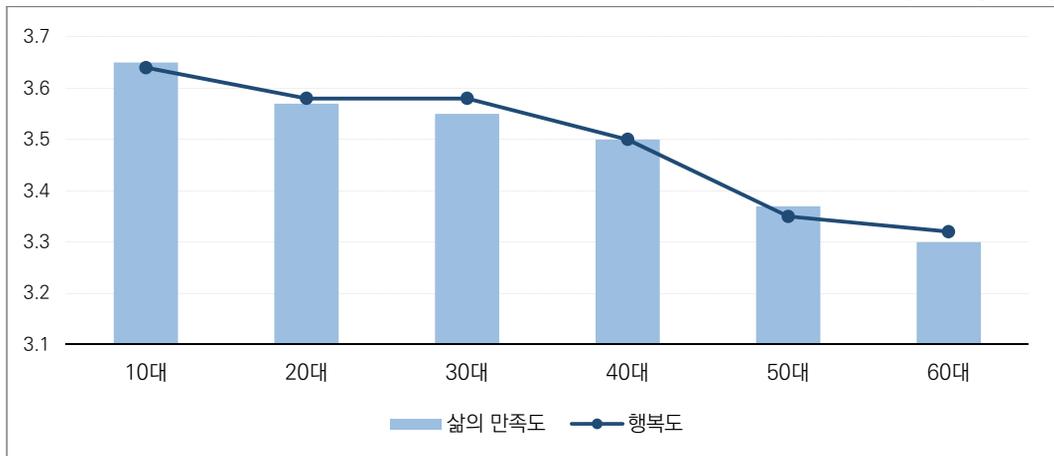
(단위: %)



[그림 3-93] 가장 희망하는 삶의 유형

현재 본인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응답자 전체 평균은 3.45점이었으며,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이 3.4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10대 3.65점, 20대 3.57점, 30대 3.55점, 40대 3.50점, 50대 3.37점, 60대 3.30점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10대 3.64점, 20대 3.58점, 30대 3.58점, 40대 3.50점, 50대 3.35점, 60대 3.32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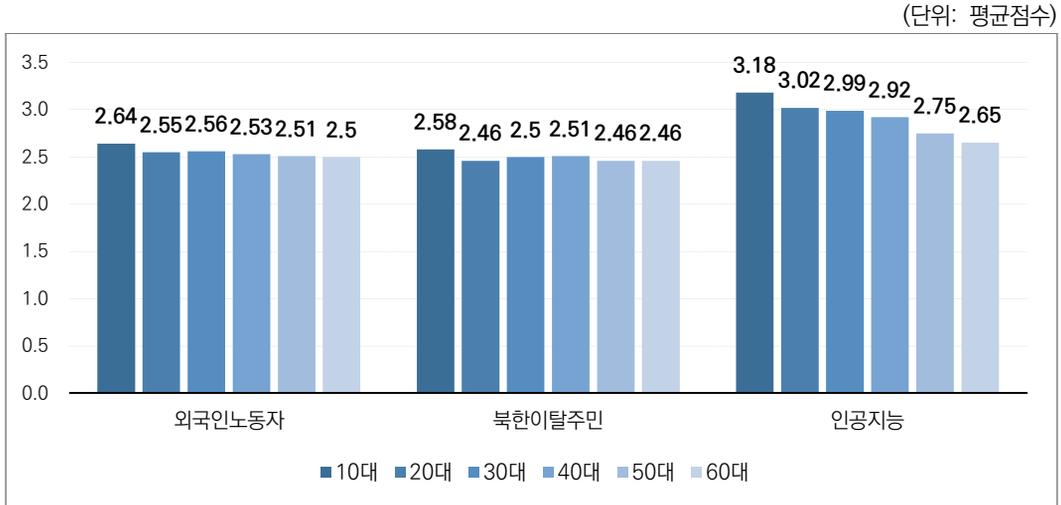
(단위: 평균점수)



[그림 3-94]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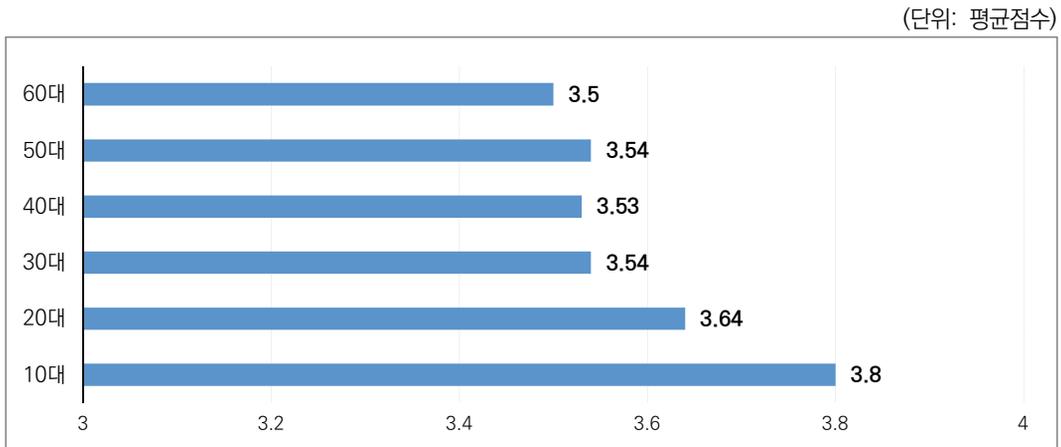
나. 신뢰와 포용

사람과 사물에 대한 신뢰도에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2.53점, ‘북한이탈주민’이 2.48점이었으며, ‘인공지능’이 이보다 약간 높은 2.86점으로 모두 보통(3점) 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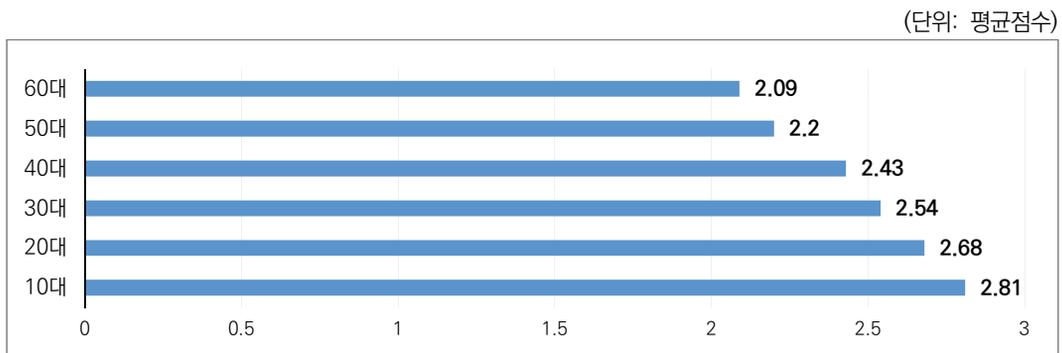
[그림 3-95] 신뢰도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57.0%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1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가장 동의성이 높아 평균점수가 3.8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96]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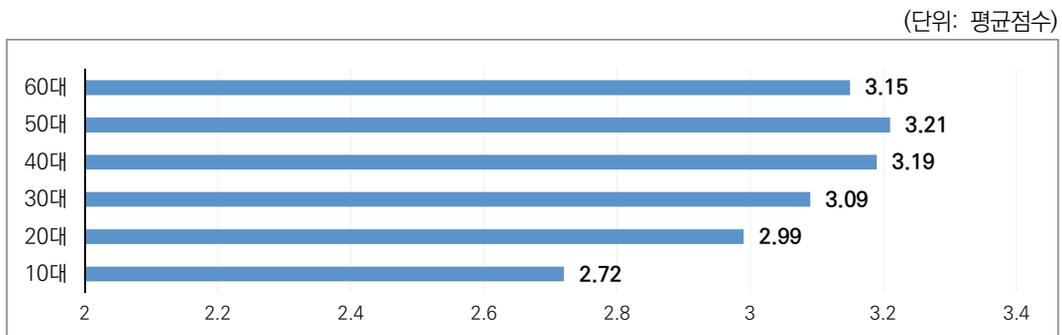
‘동성애’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15.7%만이 ‘수용해야 한다(4+5점)’고 답한 반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1+2점)’는 의견은 57.1%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38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대 2.81점, 20대 2.68점).



[그림 3-97]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수용

다. 정치와 글로벌 협력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하였고,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의견은 28.5%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0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평균점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10대의 평균점수는 2.72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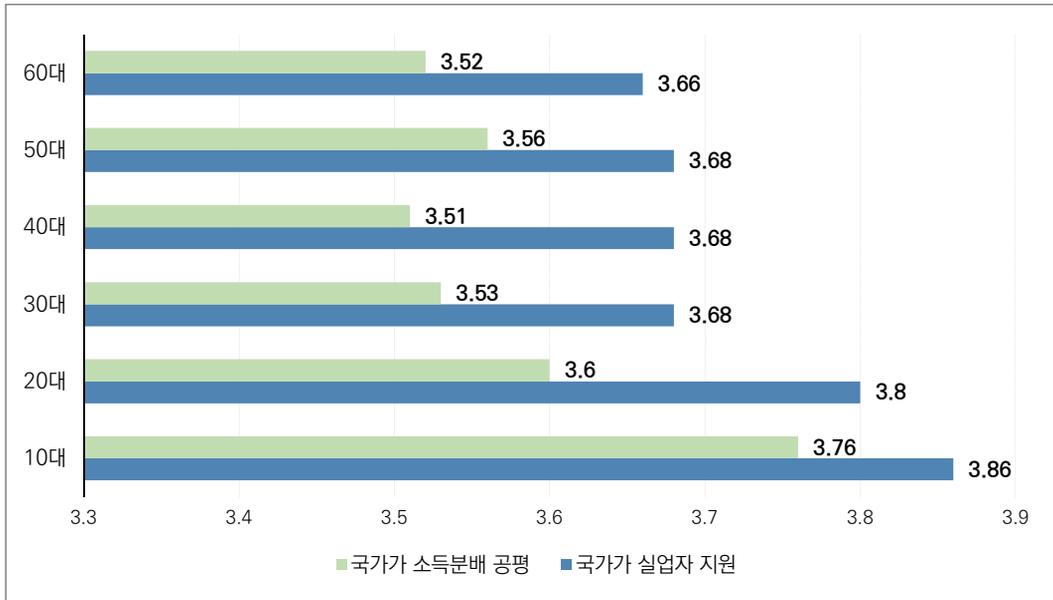


[그림 3-98]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 미침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3.86점)와 20대(3.80점)에서 동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76점으로 가장 평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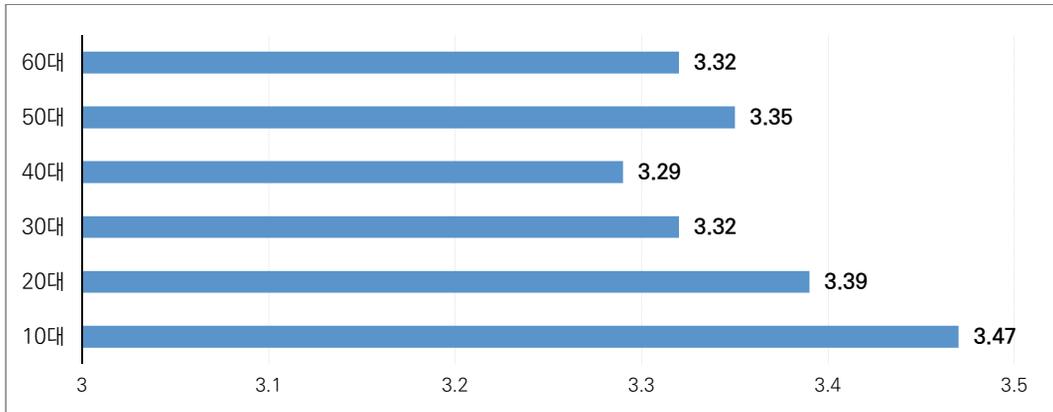
(단위: 평균점수)



[그림 3-99]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34점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평균점수가 3.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3.39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 평균점수)



[그림 3-100] 국가적 이익보다 글로벌 협력 우선

3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미래세대(10대-20대)의 가치관을 30-40대와 50-60대와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미래세대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개념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이 낮았다. 반면에 50-60대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직업의 필요성에 동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즉, 미래세대의 직업관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현재의 50-60대 직업관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는 자율성을 중요시하여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편,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즉, 미래세대는 개인주의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집단주의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중심으로 행동하고 사회적 연대가 느슨한 정도로 나타내며, 집단주의(collectivism)는 한 개인이 별다른 보상 없이 자신보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사회적 연대가 강하게 나타난다(Hofstede, 2001, p. 213). 이는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을 개인적 차원의 자아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이는지에 근거한 사회 전반의 가치성향을 의미한다. 여기

서 구분해야 할 점은, 집단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 차원의 광역사회 내에 속한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속한 특정 공동체(a particular in-group)로서, 협의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주의 점수가 53개 조사대상 국가 중 43위를 차지해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낮은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매우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Hofstede, 2001, p. 215). 이제홍(2017)은 개인주의(또는 집단주의) 지표를 사용해 한국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청년세대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종의 패거리 문화라고 불리는 청년세대의 집단적 가치와 문화를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령, 대학 내에서도 어떤 입시전형으로 입학했는지에 따라 ‘수시층’ 또는 ‘정시층’과 같은 상대평하적 용어를 사용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또래 집단에서 구분하려는 성향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대표적 사회갈등 요소로 소개한 남녀갈등이 주로 청년층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년세대가 나타내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미래세대는 동성애에 대한 포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남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Hofstede(2001)에 따르면 남성성(masculinity)은 성취지향적이며 성공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선호하므로 남성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경쟁의 가치가 우선시 된다. 여성성(femininity)은 협력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삶의 질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므로 여성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합의의 과정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Hofstede, 2001, p. 279). 즉, 미래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여성성이 강화됨에 따라 과정과 합의의 중요성, 삶의 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의 변화

제1절 위기와 가치관

제2절 가치관 변화 양상

제 1절 위기와 가치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우리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대유행병의 시대를 살고 있다. 유례없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팬데믹의 위기 상황이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렇다면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며 앞으로 미래 가치관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20세기 이후 대유행병인 스페인독감, 에이즈,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대유행병이 있었지만 창궐할 때만 관심을 갖고 잊혀지는 것이 반복되었다(Honigsbaum, 2019). 한국에서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위협 또한 잊혀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760만명 이상이 감염되고, 거의 170만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에서(2020년 12월 21일 기준), 막대한 파급력을 행사하며 코로나-19 이전(Before Corona, B.C.)사회와 코로나-19 이후(After Corona, A.C.)사회로 나누어 보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여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도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과연 어떤 세상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선진국의 감염자 및 사망자 숫자와 비교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이후 2020년 12월까지 약 5만 명이 감염되었고, 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투명한 코로나-19 현황 정보공개, 감염자 동선 공개,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알리미 앱, 차에 탄 채(drive-through) 검사를 받는 진료소 등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K-방역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부의 충실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비교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로 나타났다(Kye & Hwang, 2020). 동시에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감탄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질서를 지키며 마스크를 구입했고 마스크를 안경처럼 안면의 부착물로 늘 쓰고 다닌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한 해외의 식료품과 화장지 사재기 현상도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

국민들에게 미국은 본받아야 할 국가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은 날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 18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33만 명이 사망한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낯설었다. '왜 미국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그들 문화의 가치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의 차이가 서구와 아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많은 미디어나 학자들이 한국의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요인으로 집단주의를 빈번히 언급하고(Kang, 2020), 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다르지 않다(An & Tang, 2020).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서구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자유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고, 독립적으로 자기 신뢰를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반면, 동양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며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정부가 개인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성장률, 고용 및 산업·수출 등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과 도덕적 가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보호적 가치의 변화로 개인들이 안전, 질서, 권위, 균일성 및 순응주의에 중점을 두므로 외부집단의 신뢰나 관용, 내부집단의 연대 초월성의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계급과 민족을 불문한 인류 보편적 위협으로 인간의 일반화된 인간성, 인류애, 인간의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이로 인해 외부 집단의 신뢰, 복수, 관용, 초월적 연대의 증가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연구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일회성 조사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도덕적 가치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조사와 자료 축적을 통한 관련 분야의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위기상황에서의 가치(Values in Crisis, 이하 VIC)²⁾라는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의 조사 일부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에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차 조사는 VIC 조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 코로나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6월에 수행하였고, 2차 조사는 추가적으로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일부는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차 조사는 시점 상 정부의 코로나 정책(재난지원금, 방역조치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라 정책관에 대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여기에서는 2차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사람들의 설문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같은 문항에 대하여 코로나 확산시기의 응답과 비교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의 인식과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다.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론적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를 겪은 개인과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대응 방안 모색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표 4-1]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 개요

| | 1차 조사 | 2차 조사 |
|---------|--|--|
| 조사 기간 | 2020/05/26-06/02 (6일) | 2020/10/23-11/03 (12일) |
| 조사 수행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 마크로밀 엠브레인 |
| 조사 대상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4,000명 | 1차 조사 응답자 대상 패널 조사 |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 온라인 조사 |
| 표본 수 | 4,000명 | 3,033명 |
| 표본 유지율 | - | 75.8% |
| 가중치 |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을 이용함 | 2020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 성별, 지역을 이용함 |

2) 위기상황에서의 가치 국제 비교 조사 연구(Values in Crisis)는 17개국에서 3차례의 조사(1차: 확산 시점, 2차: 종식 시점, 3차: 종식 시점 이후 1년 후)를 수행한다. 이 조사는 코로나-19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한다(Welzel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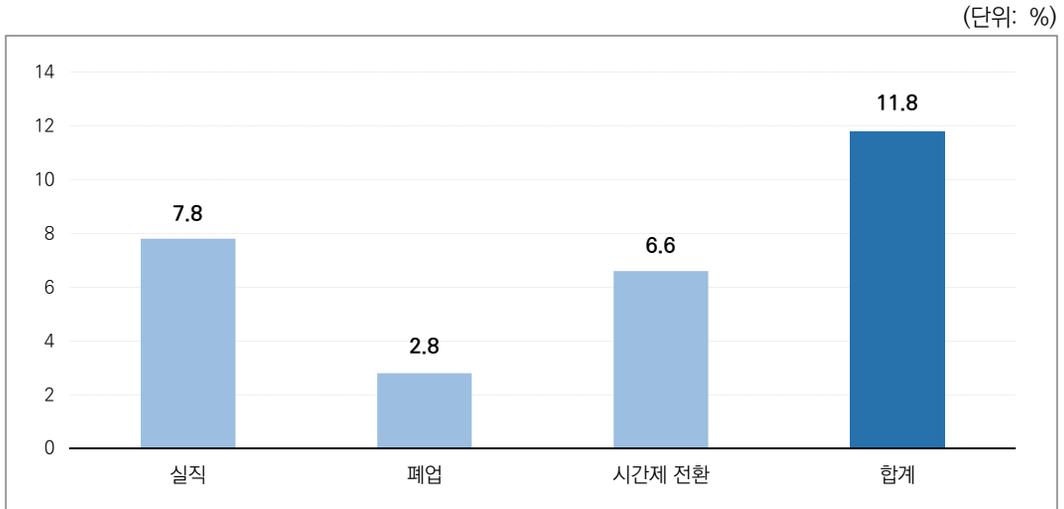
제2절 가치관 변화 양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가. 경제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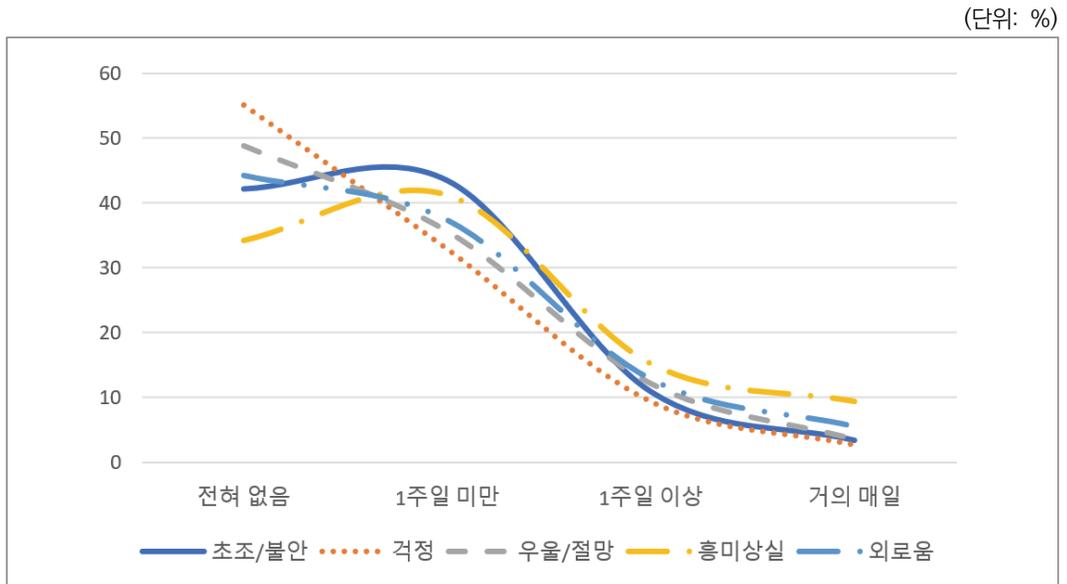
코로나-19가 일상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먼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는지 조사하였다. 실직, (자영)사업장 폐쇄, 시간제로 고용지위 하락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각각 7.8%, 2.8%, 6.6%로 나타났다.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11.8%였다. 즉, 조사 시점인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실직이나 사업장 폐쇄나 시간제로 고용지위가 전환된 경험이 있다는 의미이며 코로나-19로 발생한 직장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나. 정신건강

코로나 사태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주 동안의 경험을 물었다. 흥미와 재미 상실, 외로움, 초조/불안, 우울감/절망감, 걱정 등의 순으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은, 코로나 증상 경험자, 검사자, 양성 경험자, 걱정, 가능성 등을 겪는 사람에게서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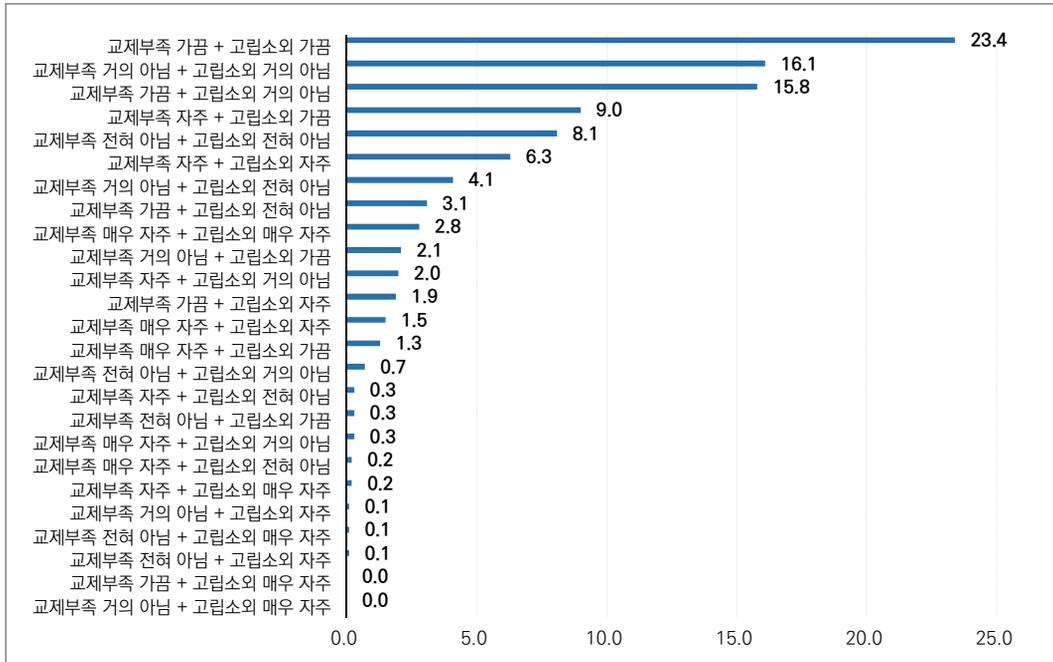
조사 시점(2020년 10월 23일~11월 3일) 기준, 최근 4주 동안 사회관계 인식(교제 부족 정도, 고립/소외 정도)을 물었다. 교제 부족 정도가 클수록 고립/소외 정도도 크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두 측면 모두에서 “가끔”이라고 응답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응답자 비율이 좌우 대칭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둘 중 어느 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엇비슷하게 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관계 경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 사회관계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 단위(%) | | 교제 부족 정도 | | | | |
|-----------------|-------|----------|------|------|-----|-------|
| | | 전혀 | 거의 | 가끔 | 자주 | 매우 자주 |
| 고립/ 소외 정도 | 전혀 | 8.1 | 4.1 | 3.1 | 0.3 | 0.2 |
| | 거의 | 0.7 | 16.1 | 15.8 | 2.0 | 0.3 |
| | 가끔 | 0.3 | 2.1 | 23.4 | 9.0 | 1.3 |
| | 자주 | 0.1 | 0.1 | 1.9 | 6.3 | 1.5 |
| | 매우 자주 | 0.1 | 0 | 0 | 0.2 | 2.8 |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의 대칭성은, 응답자 비율 순으로 응답범주를 재 정렬한 다음 그림에서 보다 손쉽게 드러난다. “교제 부족 가끔 + 고립/소외 거의 없음”(15.8%)과 “교제 부족 거의 없음 + 고립/소외 거의 없음”(1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또 “교제 부족 가끔 + 고립/소외 가끔”(9.0%)과 “교제 부족 전혀 없음 + 고립/소외 전혀 없음”(8.1%)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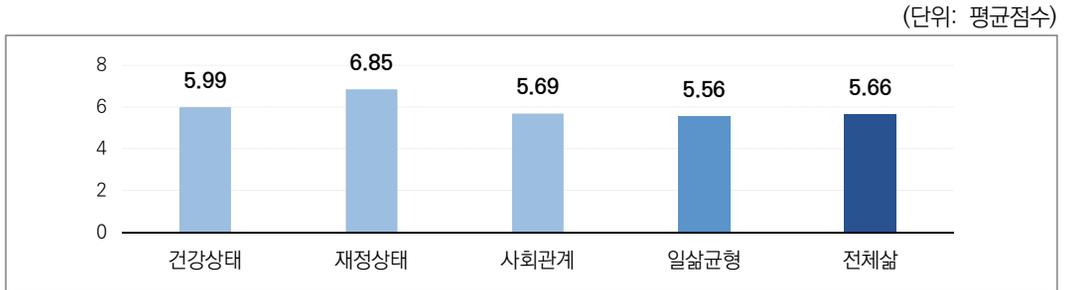
(단위: %)



[그림 4-3] 사회관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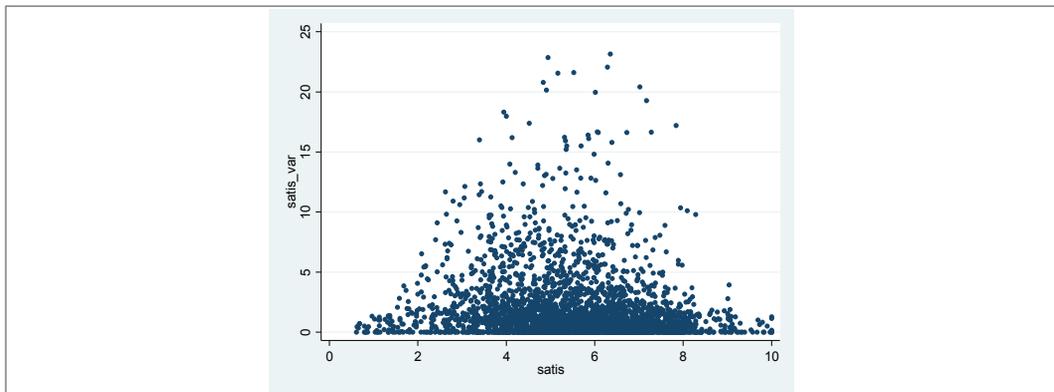
라. 삶의 만족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최근 삶의 만족도(1~10점)를 분야별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재정상태 만족도는 전체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4-4] 전반적 및 분야별 삶의 만족도

다음 산포도는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의 세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으로 교차한 것이다. 만족도가 중간 정도인 개인들에게서 분야별 만족도 사이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이들과 만족도가 낮은 이들에게서는 분야별 만족도 사이에 차이가 적었다. 즉, 어느 한 분야에서 크게 만족하면 나머지 분야들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에, 어느 한 분야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나머지 분야에서도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의 양극화를 우려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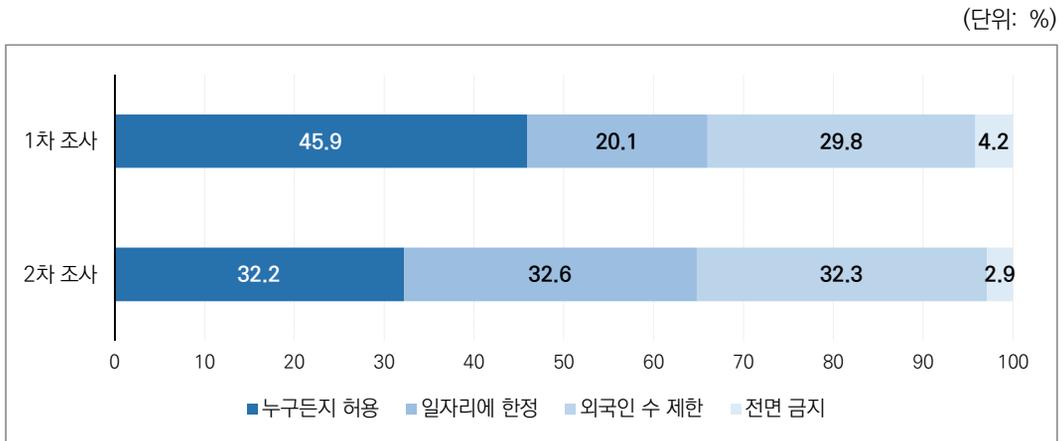


[그림 4-5]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관계 만족도의 개인별 평균(X축)과 개인별 분산(Y축) 교차

2 코로나19와 사회적 배제

가. 외부집단에 대한 배제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조사 당시에는 45.9%가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었던 반면에 2차 조사에는 32.2%로 13.7% 감소하였다. 반면에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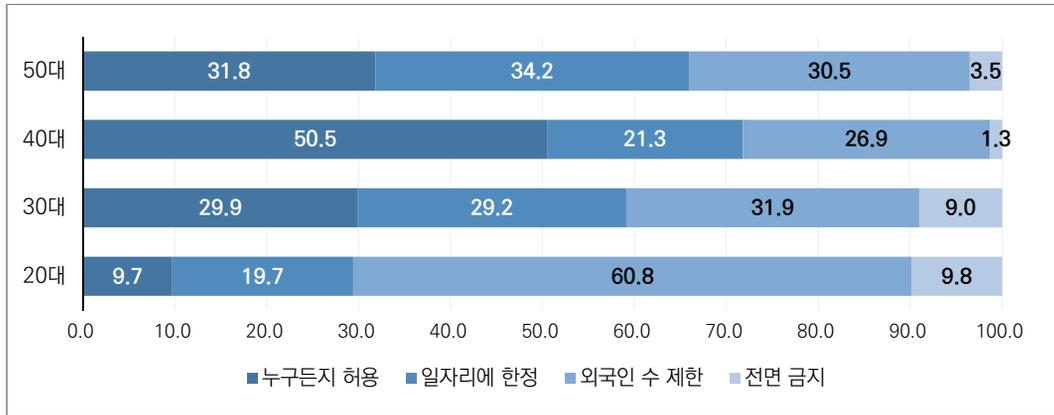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그림 4-6]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이전의 분석 결과는 조사차수별로 평균적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경험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대상에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공통 문항에 대하여 다른 답변을 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개방적 의견에서 배제 의견으로 변모한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 의견이 더 커진 사람들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20대 중에서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사람이 2차 조사에는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31.8%가 여전히 1차와 동일한 생각이었고, 34.2%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하였고, 30.5%는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변화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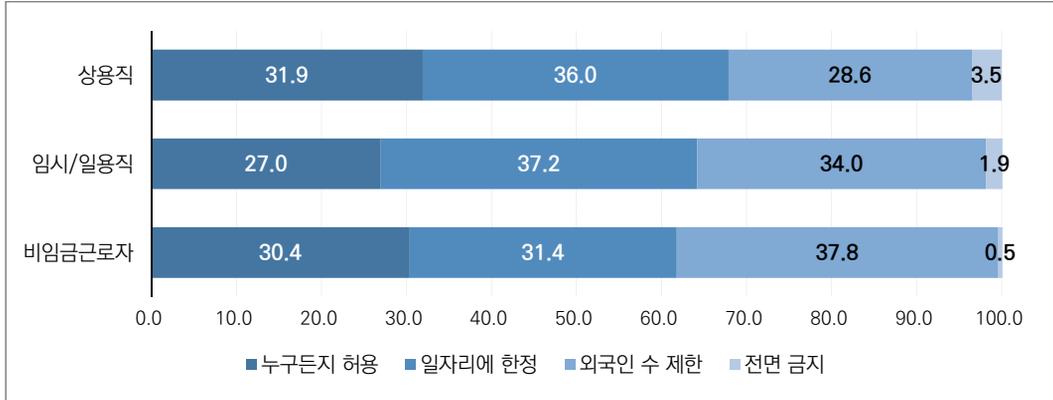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4-7] 연령별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다음으로 1차 조사 당시에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 의견이 증가한 사람들을 직종별 종사 형태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즉, 1차 조사 당시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상용직 근로자로 31.9%가 여전히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변화한 집단은 비임금근로자로서 37.8%의 비율을 나타내 가장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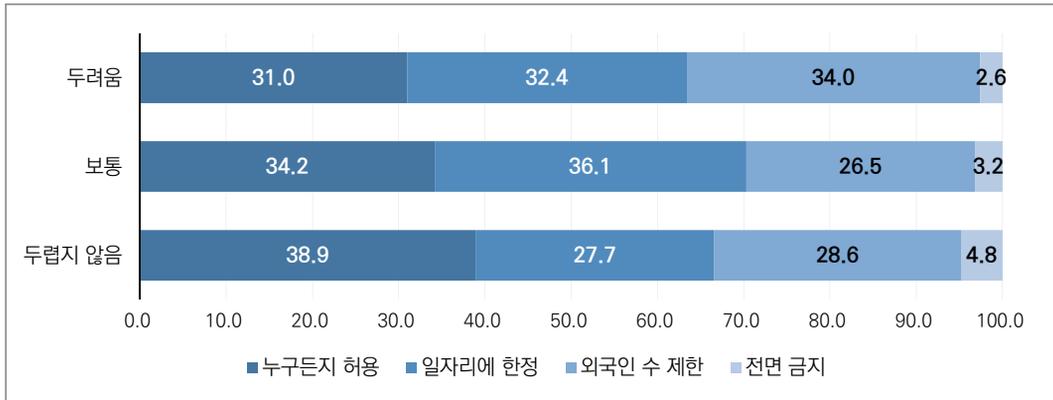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4-8] 종사 형태에 따른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다음은 2차 조사를 기준으로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두려움을 느끼는 집단에서 34.0%로 나타난 반면,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집단은 28.6%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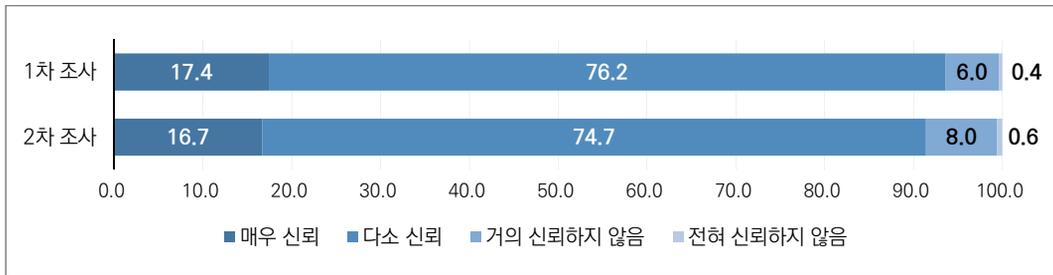
주: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4-9] 가족이나 친구의 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의 차이와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 변화

나. 외부집단에 대한 신뢰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매우 신뢰한다’는 비율은 1차 조사에서 17.4%, 2차 조사에서는 16.7%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위: %)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4-10]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

또한 흥미로운 것은 1차 조사 당시의 신뢰도가 2차 조사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의 [표 4-3]의 결과이다. 1차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차 조사에서도 91.2%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사람의 94.2%가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코로나-19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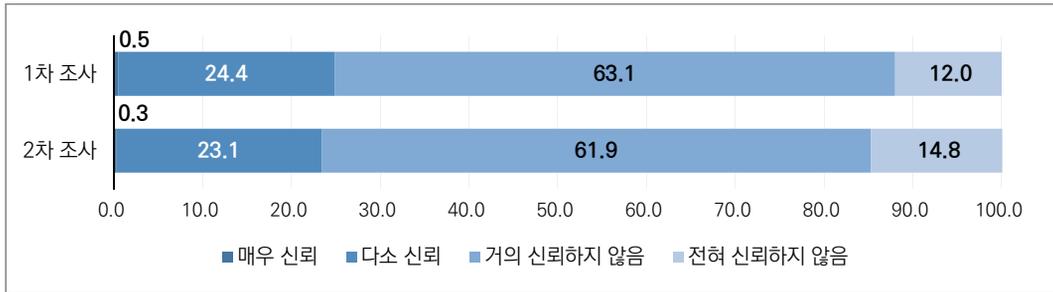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 2차 조사 | |
|-------|-------|------|
| | 신뢰 | 비신뢰 |
| 1차 조사 | 신뢰 | 91.2 |
| | 비신뢰 | 94.2 |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는 다르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1차 조사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3.1%에서 2차 조사에서는 61.9%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2.0%(1차 조사)에서 14.8%(2차 조사)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단위: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 4-11]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하지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의 신뢰도 변화를 살펴본 아래의 [표 4-4]의 결과를 보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1차 조사 당시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된 비율이 78.6%였다. 이는 1차 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 신뢰한다고 응답한 23.9%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외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낮추는 데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변화

(단위: %)

| 구분 | | 2차 조사 | |
|-------|-----|-------|------|
| | | 신뢰 | 비신뢰 |
| 1차 조사 | 신뢰 | 21.4 | 78.6 |
| | 비신뢰 | 23.9 | 76.1 |

주: 1)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에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하였다.

2) 2차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이다.

3 코로나19와 정책관

가. 국민들의 정책관 변화

2020년 5월과 10월에 실시한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에 포함된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에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0년에는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50.6%로,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던 중에 코로나-19의 위기가 더해졌음에도,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10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낮아져 5월에는 32.1%, 10월에는 33.7%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질서 유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5월에 37.6%, 10월에는 37.7%로 가장 높았다.

[표 4-5] 향후 10년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2010년 | 2020년(VIC) | |
|----------------------------|-------|------------|------|
| | | 1차 | 2차 |
| 국가의 질서 유지 | 25.0 | 37.6 | 37.7 |
| 정부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더 많은 발언권 부여 | 15.7 | 20.1 | 20.0 |
| 물가 상승 억제 | 50.6 | 32.1 | 33.7 |
| 언론 자유의 보호 | 8.7 | 10.3 | 8.5 |

주: 1) 2010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의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 보면 아래의 [표 4-6]에 제시한 바와 같다. 6개의 주된 정책 분야 중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분야는 2006년에는 ‘물가 안정(3.53점)’이었으며, 2016년(3.37점)과 2020년(3.33점)에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나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난과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 이에 대한 요구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6]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도

(단위: 점)

| 구분 | 2006년 | 2016년 | 2020년(VIC) |
|--------------------|-------|-------|------------|
|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 2.89 | 2.65 | 2.64 |
| 물가 안정 | 3.53 | 3.37 | 3.33 |
|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 3.26 | 3.15 | 3.17 |
|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 3.20 | 2.97 | 3.01 |
| 산업계 성장에 필요한 지원 제공 | 2.82 | 2.75 | 3.04 |
|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 3.18 | 3.16 | 2.80 |

주: 1) 2006년과 2016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보건 분야의 예산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증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7]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2006년에는 4.06점에서 2014년에는 3.81점으로 감소하여 3.8점대에서 소폭의 증감을 계속하며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로 보건 예산을 대폭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서는 예산 확대 요구도가 가장 크다.

[표 4-7] 정책분야별 정부지출 확대 요구도

(단위: 점)

| 구분 | 2006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VIC) |
|------|-------|-------|-------|-------|------------|
| 환경 | 3.89 | 3.77 | 3.75 | 3.85 | 3.72 |
| 보건 | 4.06 | 3.81 | 3.82 | 3.86 | 3.83 |
| 치안 | 3.79 | 3.86 | 3.87 | 3.71 | 3.58 |
| 교육 | 3.88 | 3.64 | 3.68 | 3.68 | 3.41 |
| 국방 | 3.25 | 3.49 | 3.32 | 3.12 | 3.49 |
| 노인연금 | 3.97 | 3.58 | 3.56 | 3.42 | 3.35 |
| 실업수당 | 3.50 | 3.33 | 3.39 | 3.10 | 3.10 |
| 문화예술 | 3.34 | 3.27 | 3.19 | 3.20 | 3.12 |

주: 1) 2006년~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같다.

2006년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요구도가 4.42점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4점대의 높은 점수를 유지해 왔다. 다만, 2020년 조사에서는 3.6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6개의 정책 중 2순위로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지지도 역시 2006년 4.39점에서 이후 4점대를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2020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표 4-8] 경기부양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도

(단위: 점)

| 구분 | 2006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 (VIC) |
|-------------------------|-------|-------|-------|-------------|
| 정부 지출 삭감 | 3.48 | 3.42 | 3.46 | 3.44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4.42 | 4.22 | 4.12 | 3.60 |
| 기업규제의 완화 | 3.77 | 3.34 | 3.42 | 3.59 |
| 산업체의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지원 | 4.39 | 4.11 | 4.24 | 3.93 |
|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양산업 지원 | 3.82 | 3.67 | 3.54 | 3.37 |
|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3.56 | 3.57 | 3.44 | 3.25 |

주: 1) 2006년~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나. 국민들의 국가자긍심 변화

소위 'K-방역'으로 불리며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국내외 평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국가 자긍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 자긍심에 관한 문항에서, 2003년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과학기술의 성취' 부문으로 2.73점이었으며, 2013년에도 3.02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020년 조사에서도 3.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관련한 조사 결과, 2003년에는 1.89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2013년과 2020년에도 평점에는 큰 변동이 없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4-9] 부문별 국가자긍심의 변화

(단위: 점)

| 구분 | 2003년 | 2013년 | 2020년(VIC) |
|----------------------------|-------|-------|------------|
|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 2.28 | 2.61 | 2.67 |
| 경제적 성취 | 2.43 | 2.91 | 2.72 |
| 사회보장제도 | 1.93 | 2.38 | 2.74 |
| 과학기술의 성취 | 2.73 | 3.02 | 3.01 |
|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 | 2.66 | 2.94 | 2.88 |
| 군사력 | 2.26 | 2.60 | 2.52 |
| 사회의 모든 집단들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 1.89 | 2.18 | 2.21 |

주: 1) 2003년과 2013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다.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

최근,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지적하는 국내외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You, 2020), 반대 의견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시사인 보도자료, 2020. 06. 02). 이에 한국인들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평균값만 비교했을 때, 2008년의 4.75점에서 2018년에는 4.26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4.25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4-10]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1: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위: %, 점)

| 구분 | 2008년 | 2018년 | 2020년(VIC) |
|------------|-------|-------|------------|
| 매우동의 | 10.8 | 5.2 | 1.8 |
| 동의 | 23.5 | 16.7 | 14.3 |
| 다소동의 | 26.6 | 22.5 | 26.2 |
| 동의도 반대도 아님 | 16.7 | 23.9 | 33.8 |
| 다소 반대 | 15.4 | 20.8 | 15.9 |
| 반대 | 5.5 | 8.4 | 5.7 |
| 매우 반대 | 1.5 | 2.5 | 2.4 |
| 평균 | 4.75 | 4.26 | 4.25 |

- 주: 1) 2008년과 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3) 평균값은 역부호화 하여 계산된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의성이 크다.

다음으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평균값만 비교해 보면, 2008년의 4.87점에서 2018년에는 4.49점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는 소폭 더 감소하며 4.30점으로 나타났다.

[표 4-11]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변화-2: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단위: %, 점)

| 구분 | 2008년 | 2018년 | 2020년(VIC) |
|------------|-------|-------|------------|
| 매우동의 | 11.5 | 6.3 | 2.4 |
| 동의 | 25.1 | 16.8 | 13.6 |
| 다소동의 | 30.4 | 33.7 | 31.5 |
| 동의도 반대도 아님 | 11.4 | 16.9 | 28.4 |
| 다소 반대 | 16.9 | 17.8 | 16.7 |
| 반대 | 3.4 | 6.4 | 5.4 |
| 매우 반대 | 1.3 | 2.1 | 2.1 |
| 평균 | 4.87 | 4.49 | 4.30 |

- 주: 1) 2008년과 2018년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이며,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이다.
 2) 2020년의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3) 평균값은 역부호화하여 계산된 값으로 값이 클수록 동의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집단주의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코로나-19가 변화 추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1절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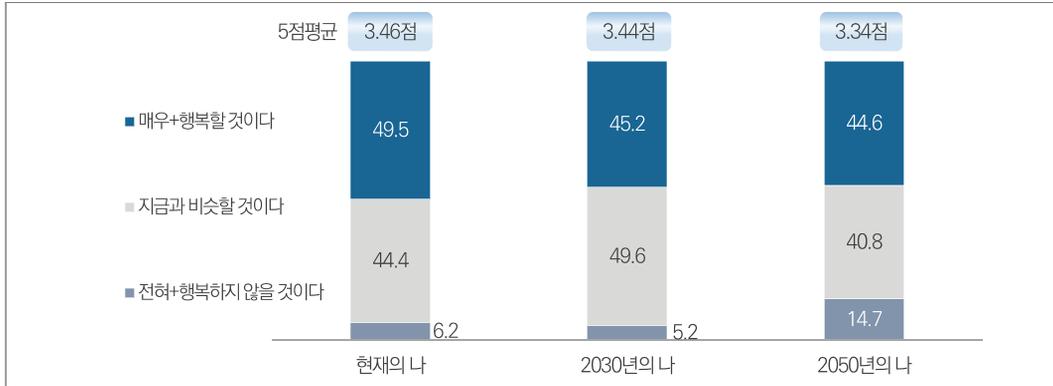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에 대해 조사하고 그 분석결과로 한국인의 가치관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사회 모습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의 관점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이 바라보는 시점은,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및 10년 후, 30년 후의 미래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국민 대부분은 ‘미래 이미지’는 희망적이지만 ‘미래 나의 행복’은 지금보다 나아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많았다. ‘미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희망적’(매우 희망적+다소 희망적)이라는 의견이 48.5%로 나타난 반면, ‘절망적’(매우 절망적+다소 절망적)이라는 의견은 8.2%에 불과하였다.

행복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 나의 행복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45.2%로 나타났다. 30년 후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과 비슷한 반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년 후의 응답에 비하여 다소 줄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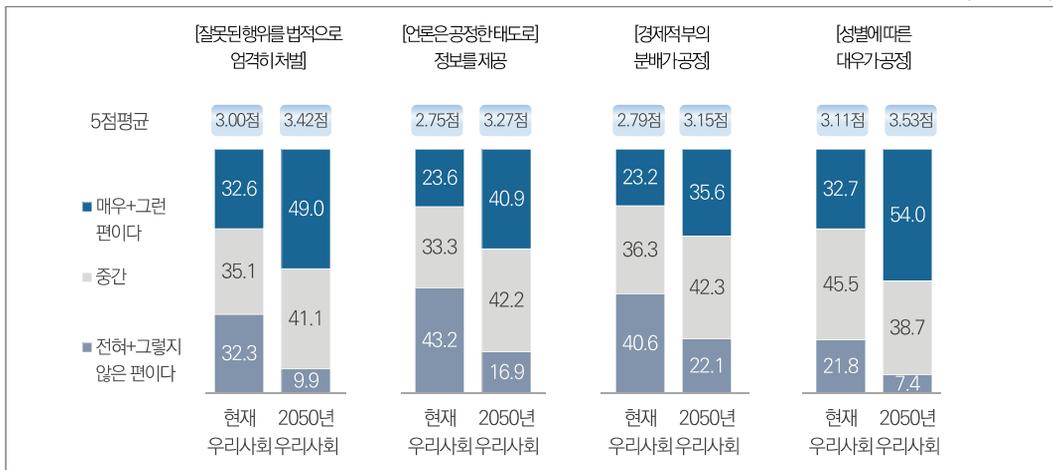
(단위: %)



[그림 5-1] 미래의 나의 행복

사회와 가치관 영역에서 공정성과 갈등에 관한 문항에서는 미래 전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공정성의 경우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대우’(3.11점)와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3.00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부의 분배’(2.79점)와 ‘언론의 공정성’(2.75점)에 대해서는 ‘보통 미만’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공정성에 관한 4개의 조사 항목에서 모두, 30년 후에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현재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언론의 공정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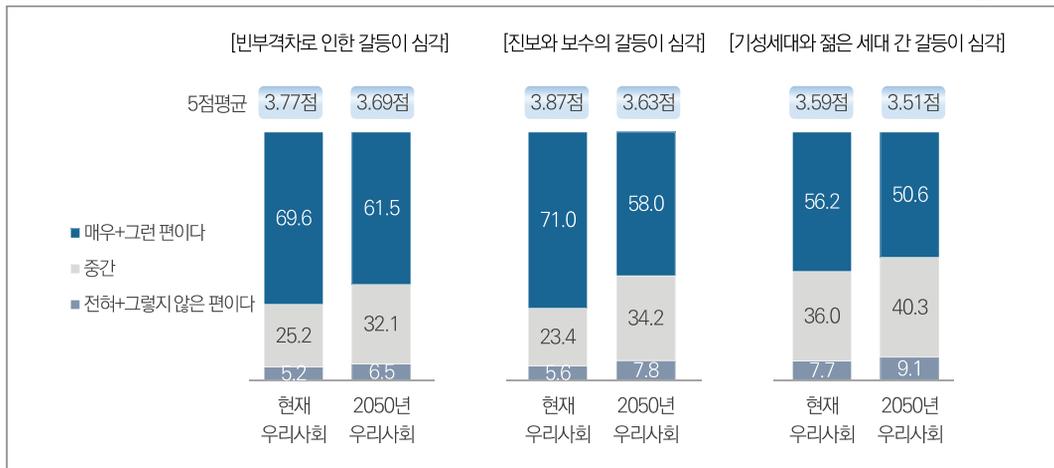
(단위: %)



[그림 5-2] 공정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갈등에 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며,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약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나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위: %)



[그림 5-3] 갈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사회 인식

또한, 세대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홉스테드의 가치체계 중 하나인 권력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미래세대는 평등한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동성애에 대해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10대는 5점 만점에 평균 2.91점, 20대는 2.58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점수인 2.38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필요한 특성으로 ‘국가의 실업자 지원’과 ‘국가의 공평한 소득분배’에 대한 동의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10대였으며, 그 다음은 20대였다.

이번 조사 결과 기성세대에 비해 미래세대는 “불확실성 회피”에 대한 성향은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하여 미래세대(10-20대)의 동의성이 가장 높아, 평균점수는 3.8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50-60대 집단은 동의성이 가장 낮았으며 평균점수는 3.34이었다. 또한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선호도를 꼽은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50대는 37.5%, 60대는 40.9%였다. 반면, 10대는 25.4%, 20대는 2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어 미래세대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홉스테드의 집단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국가를 구성하는 차원처럼 광역의 사회 내 공동체가 아닌 어느 개인이 속한 특정 공동체(a particular in-group)로서 협의의 차원에서 논의되는데, 한국의 미래세대는 집단주의 특성도 뚜렷했다.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의 세대별 비교 분석 결과, 10-20대의 평균점수는 3.59점, 30-40대는 3.52점, 50-60대는 3.43점으로 나타나 미래세대의 동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제홍, 2017)에서 나타난 한국 청년세대의 “쾌락추구성”에 대한 성향은 이번 조사 결과 미래세대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구체적 사례로 ‘여가 생활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의 문항에서 10-20대의 평균점수가 설문대상 세대 중 가장 높아 미래세대는 쾌락적 요소를 추구하면서 기성세대보다 개인 차원의 물질적 성취 가치를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특징은 그 세대만이 가지는 고유 특성인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인지, 아니면 그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연령 효과(age effect)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고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1차 조사(5월)와 2차 조사(10월)에서의 외국인 유입에 대한 태도가 다소 변화하였다.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오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입국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증가하였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의 태도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했는데 2차 조사에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태도로 변화한 세대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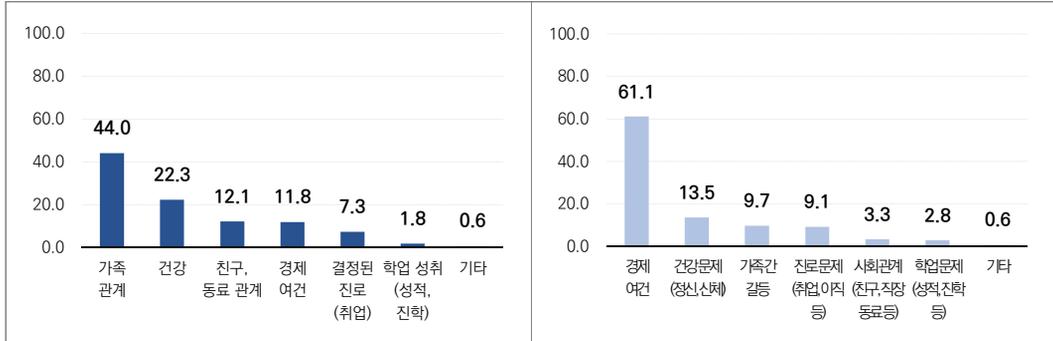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1차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차 조사에서도 91.2%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1차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던 사람의 94.2%가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코로나-19가 내집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자,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미래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미래 행복에 대해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에 대한 기대감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행복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40-50세 사이에 최저점을 보인 후 다시 상승하는 U자형을 제시하고 있으나(Helliwell et al., 2015; 심수진, 2016), 우리나라는 연령에 따라 반비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정해식 외, 2019). 그리고 행복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가족관계이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경제여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고령화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행복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미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게 하는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미래에는 동성 가족, 공동체 가족 등 기존 전통적 가족 제도의 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기에 행복의 주원인인 가족관계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존의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가 아닌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비혼 동거를 결혼과 거의 유사한 사회적 관계로 인정하여 비혼 동거자들을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들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혼 동거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똑같은 수준의 복지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민보경 외, 2018).

(단위: %)



[그림 5-4]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좌)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우)

둘째, 친환경, 포용 등의 미래 가치관을 반영하여 국가 미래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자연환경의 보존이 도시개발보다 중요하다’고 답하여 환경보호와 같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연령에 상관없이 고른 분포로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가치를 경제성장보다 우선시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경제 우선 가치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세대 간 집단을 비교한 결과 미래세대(10대-20대)는 다른 두 집단(30-40대, 50-60대)에 비해 ‘성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서구 국가에서 확인된 탈물질주의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잉글하트(Inglehart, 1997)는 가난과 사회변동을 경험한 나이 든 세대는 경제적 안정 같은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반면, 풍요와 안정을 경험한 젊은 세대는 탈물질주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발전이 물질주의 가치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로 점진적 변화를 추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물질주의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설명하거나(김문조 외, 2013; 황상민, 2011) 한국의 실업 및 복지의 불충분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서 찾기도 한다(박재홍·강수택, 2011). 우리나라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관련 이론은 서구와 달리 복잡하게 나타난다. 즉,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물질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한국의 부유층들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더 물질적인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근대화의 주요 변수인 교육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학력의 젊은 세대일수록 탈물질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양해만·조영호, 2018). 그러므로 미래세대의 물질주의-탈물질주의 특성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정성의 경우, 현재보다 미래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갈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이슈들을 예를 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폐교 등의 유희시설 증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과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지방 소멸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 갈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과 같은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일부 가치관 문항에서 지역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지역적 경험이 사회적 시각을 결정하게 되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라권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다른 지역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에 대한 동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등에 관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세대 간 비교를 한 결과, 미래세대는 동성애에 대한 포용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남성성 성향이 낮고 여성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보아 미래 정책은 과정과 합의를 중시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상 산업화의 시기였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성과주의 문화에서 과도한 경쟁을 뚫고 성공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가치가 존중받던 사회 분위기에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가치가 존중받는 2000년대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구성적·유동적·복합적인 가치체계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폐쇄적 태도가 일부 세대에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선입견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코로나-19가 그 변화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단순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세대별, 이슈별 복잡한 가치체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조화로운 공동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 분석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의 특징을 살펴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도 발견되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은 집단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치가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항에 동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를 반영하여 살펴보고, 가구 경제상태의 주관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상태에 따른 지위별 가치관의 차이에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겠다. 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양해만·조영호, 2018)와 정치적 효능감(박영득, 2016) 등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확산 시점인 2020년 5월과 10월, 패널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비교하였는데, 후속 연구로 향후 코로나 종식 시점에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안정성의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가치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문항 개발 및 실사, 조사 후 자료 검증과 지표 개발, 자료 아카이브 구축과 관리 등 조사와 관련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연계적 조사 수행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미래정책의 수요 예측에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견진만(2017), 『복지국가와 사회』, 윤성사.
- 국회미래연구원(2019), 청소년 미래선호가치 설문 조사 기반 연구(연구보고서 19-03), 국회미래연구원.
- 김기현 외(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2030(종합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문조 외(2013), 『한국인은 누구인가』, 21세기 북스.
- 김연숙(2018), 사회적 가치와 한국의 민주주의: 세계가치관조사 2010-2017 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 김희강(2016), 『규범적 정책분석』, 박영사
- 민보경 외(2018), 『미래결정 정책의제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성원 외(2019), 『한국인 선호미래 조사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박영득(2016), 「외적 정치 효능감의 소득편향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현대정치연구』, 9(2), pp. 5-29.
- 박재홍·강수택(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한국사회학』, 46(4), pp. 69~95.
- 선혜연·황매향·김영빈(2009),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변화」, 『아시아교육연구』10(1), pp. 155~173.
- 심수진(2016),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통계연구』 21(3), pp. 25~47.
- 양해만·조영호(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 『한국정치학회보』 52(1), pp. 75~100.

이제홍(2017). 「한국청년의 이문화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와의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19(3), 한국통상정보학회, pp. 153~174.

임언·박천수·최지희(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혁백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 출판부

전상진 외(2006), 『미래 사회와 청소년 연구 I(문화·여가분야) 청소년 문화·여가 트렌드와 정책 과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인수 외(2020), 『2021 트렌드 모니터』, 시크릿하우스.

한미라(2011), 「한국 청소년 가치관의 연구사적 고찰」, 『기독교 교육정보』, 29, pp. 99~143

황상민(2011), 『한국인의 심리코드』. 추수밭.

An, B. Y., & Tang, S. Y.(2020), “Lessons from COVID-19 responses in East Asia: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enduring policy instrument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pp. 790-800.

Davidov, E., Schmidt, P., & Schwartz, S. H.(2008), “Bringing values back in: The adequacy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to measure values in 20 countries”, *Public Opinion Quarterly*, 72(3), pp. 420-445.

Fischer, R. et al. (2010) “Are Individual-level and country-level value structures different? Testing Hofstede’s legacy with the Schwartz value surve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2), pp. 135-151..

Frink, D. D., Rose, G. M., & Canty, A. L.(2004), “The effects of values on worries associated with acute disaster: A naturally occurring quasi-experiment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1), 85-107.

Hanel, P. H., Litzellachner, L. F., & Maio, G. R.(2018), “An empirical comparison of human value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9, 1643.

Hanel, P.H. et al.(2018) “An empirical comparison of human value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9, 1643.

- Hofstede, G and M. Minkov(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for the Min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Hofstede, G.(2001). Culture's consequences.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Hofstede, G.(2011). Dimensionalizing Cultures: The Hofstede Model in Context.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Unit 2. Retrieved from <http://scholarworks.gvsu.edu/orpc/vol2/iss1/8>.
- Honigsbaum, M., 『대유행병의 시대』, 제효영 역(2020), 커넥팅.
- Howe, N. & Strauss, W.(1992),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Perennial, pp. 1584-2069.
- Inglehart, R.(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i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ng, J.(2020), “The media spectacle of a Techno-City: COVID-19 and the South Korean experience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9(3), pp. 589-598.
- Kluckhohn. C.(1967),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 Parsons & E. A.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pp. 388-433).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51).
- Kye, B., & Hwang, S. J.(2020), “Social trust in the midst of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from COVID-19 of South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68, 100523.
- Sagiv, L. & Roccas, S.(2017), “What personal values are and what they are not: Taking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pp. 3-13), Cham, Switzerland: Springer.
- Schwartz, S. H.(2007),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R. Jowell, C. Roberts, R. Fitzgerald, & G. Eva (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pp. 169-203), Thousand Oaks, CA: Sage.

Trandis, H.C.(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view Press.

UN(2013), Definition of Youth, UN

Verkasalo, M., Goodwin, R., & Bezmenova, I.(2006), "Values following a major terrorist incident: Finnish adolescent and student value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 pp. 144-160.

Walsh, B.D., Vacha-Haase, T., Kapes, J.T., Dresden, J.H & Thompson, W.A.(1996). The values scale: difference across grade levels for ethnic minority stud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pp. 263-275.

Wolf, L. J., Haddock, G., Manstead, A. S., & Maio, G. R.(2020), "The importance of (shared) human values for containing the COVID-19 pandemic",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3), pp. 618-627.

You, J.(2020), "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Policy Respons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pp. 801-808.

2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시사인 보도자료(2020.06.20.),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편”, 시사H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Friedman, T. L.(2020.03.17.),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17/opinion/coronavirus-trends.html>

<https://wapor.org/values-in-crisis-a-crisis-of-values-moral-values-under-the-imprint-of-the-corona-pandemic/>

<https://www.hofstede-insights.com/country/south-korea/>

Website: Hofstede Insights (<https://www.hofstede-insights.com/>)

Welzel, Christian C., Boehnke, K., Delhey, J. Deutsch F., & Eichhorn J.(2020), “Values in crisis – a crisis of values? Moral values under the imprint of the Corona pandemic”, July 8, WAPOR news.

Abstract

A Study of Values in Korea: A Future Look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an accelerating rate of ever more complex environmental changes, including a low birth rate,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limate change, and COVID-19, for exampl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track and predict Korean values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megatrends and new crises. Not only do value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life choices and purpose at the individual level, they also act as motivating factors for the efforts and practices of members of society at the collective level.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for periodic value surveys to track and predict changing values in Korea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values of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The Future Values Survey was conducted on 5,321 teenage and adult respondents age 13 and older to reflect social changes in Korea and examine participants' views and attitudes toward the futur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respondents were hopeful about the future but fel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increase their level of happiness in the years ahead. Respondents believed that fairness will improve in the future, but conflict will continue to be a serious issue. The survey also showed that younger generations consider leisure to be more important in life than the older generation, and teenagers and those in their twenties are more receptive to new family concepts and technologies.

This study identified complex value systems related to each generation and issue, and present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flexible policies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national values. We hope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basis for assessing and predicting present and future social changes in Korea.

부록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설문조사

Gallup
2020-224-016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 가치관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한국인이 원하는 미래 사회상을 도출하고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정책 방향 설정을 위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국가미래에 대한 설계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평소에 느끼신 대로 가감 없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10월

주관기관



조사기관



2020년 8~10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고진주
실사연구원 김연아
전화 02-3702-2663

| | | | | | | |
|----------------|---|--|--|--|--|--|
| 집계구 번호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30px;"> <tr> <td style="width: 20%;"></td> </tr> </table> | | | | | |
| | | | | | | |
| 총 가구원 수 | ① 남성 ()명 ② 여성 ()명 / 총 ()명 | | | | | |
| 만 13세 이상 가구원 수 | ① 남성 ()명 ② 여성 ()명 / 총 ()명 | | | | | |

| 항목 | 전혀 없다 | 없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있는 편이다 | 많이 있다 |
|-----------------|-------|--------|------|--------|-------|
| 1) 나의 미래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대한민국의 미래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세계의 미래 | ① | ② | ③ | ④ | ⑤ |

A 4) 나의 미래는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과 ‘외부 환경변화의 영향’ 중 무엇에 의해 더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적인 노력이나 선택이 더 중요 | <----- | 중간 | -----> |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더 중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 다음은 개인과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B 1)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교과목뿐만 아니라 특기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류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B 2)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
|-----|-----|

- ① 흥미
- ② 사회적 지위
- ③ 대중적 인기
- ④ 미래 수요
- ⑤ 직업의 안정성
- ⑥ 경제적 수입
- ⑦ 적성
- ⑧ 자아성취
- ⑨ 사회에 대한 기여도
- ⑩ 기타(적을 것: _____)

B 3)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여가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돈을 별 필요가 없어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B 4)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여가 생활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모험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가족, 결혼

B 5)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성격
- ② 경제력
- ③ 가정환경
- ④ 종교
- ⑤ 외모
- ⑥ 취미
- ⑦ 학력
- ⑧ 국적
- ⑨ 기타(적을 것: _____)

B 6)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관적 웰빙 및 미래전망(개인)

B 7) **본인은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건강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건강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 8) **본인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가장 희망하는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 ② 즐거운 삶
- ③ 의미 있고 보람된 삶
- ④ 화목하고 어울리는 삶
- ⑤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

B 9) **현재 본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보통 | -----> | 매우 만족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 10) **현재의 나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행복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행복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현재의 나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B10 현재의 나 ①,②)는 응답자만)

B 10-1)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 여건
- ② 건강 문제(정신, 신체)
- ③ 진로 문제(취업, 이직 등)
- ④ 가족 간 갈등
- ⑤ 사회관계(친구, 직장 동료 등)
- ⑥ 학업 문제(성적, 진학 등)
- ⑦ 기타(적을 것: _____)

(현재의 나에 대해 행복하다(B10 현재의 나 ④,⑤)는 응답자만)

B 10-2)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 여건
- ② 건강
- ③ 결정된 진로(취업)
- ④ 가족 관계
- ⑤ 친구, 직장 동료 관계
- ⑥ 학업 성취(성적, 진학)
- ⑦ 기타(적을 것: _____)

B 11) **현재와 비교하여 10년 후와 30년 후에 본인의 삶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 ←----- |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 -----→ | 매우 행복할 것이다 |
|-------------|----------------|--------|-------------|--------|------------|
| 1) 2030년의 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2050년의 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C. 다음은 사회와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신뢰, 다양성, 공정성

C 1) **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중간 | -----→ | 완전히 신뢰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 2)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사람(대상)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항목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 | 중간 | -----> | 완전히 신뢰한다 |
|------------|-------------|--------|----|--------|----------|
| 1) 외국인 노동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북한이탈주민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인공지능 | ① | ② | ③ | ④ | ⑤ |

C 3)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것은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C 4) 다음 각 항목들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 <----- | 중간 | -----> |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
| 1)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국가에 혜택을 요구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동성애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안락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사형 제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C 5) 다음 각 항목별로 현재 우리사회와 30년 후 우리사회 전망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사회는 | | | | |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 2050년 우리사회는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중간 | --->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 | 중간 | <--> | 매우 그럴 것이다 |
| 1)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성 소수자 등)를 공평하게 대하는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C 6) 다음 각 항목별로 현재 우리사회와 30년 후 우리사회 전망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사회는 | | | | |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 2050년 우리사회는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중간 | --->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 | 중간 | <--> | 매우 그럴 것이다 |
| 1)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회변화를 둘러싼 진보 (변화 지향)와 보수(전통 유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C 7) 다음 각 항목별로 현재 우리사회와 30년 후 우리사회 전망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사회는 | | | | |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 2050년 우리사회는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중간 | <--> |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중간 | <--> | 매우 그렇다 |
| 1) 잘못된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언론은 공정한 태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환경

C 8)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도시 개발보다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내가 낸 돈이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소득의 일부를 내놓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지 않는 한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환경위험에 대한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과학기술

C 9)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안락하고, 편리하게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과학기술은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과학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과학기술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로봇이 일상적으로 쓰이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므로 매우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로봇은 위험성이 있어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 다음은 국가와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치, 민주주의

D 1)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정치는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 2) 다음은 민주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 항목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필요한 특성인지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민주주의에서 전혀 불필요한 특성이다 | <----- | 중간 | -----> |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성이다 |
|-------------------------------------|---------------------|--------|----|--------|---------------------|
| 1)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국가가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시민권을 통해 국가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국가가 사람들의 소득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D 3) 국가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목표로 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중요한 편이다 | 매우 중요하다 |
|---|------------|-------------|------|---------|---------|
| 1) 국민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음식, 주택, 의복, 교육, 건강 등)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경제 성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국민 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D 4) 국가가 공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권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공공장소에서 CCTV로 감시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모든 이메일과 정보를 모니터링(검열)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D 5)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에는 저항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평화적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투표는 민주주의의 의무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 단체에 가입하는 일은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세계시민, 통일, 미래전망(국가, 세계)

D 6) 다음을 읽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은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북한은 우리나라의 협력 대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D 7) **남북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20년 이후
- ⑤ 통일이 될 것 같지가 않다

D 8) **현재와 30년 후인 2050년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목 | 현재 | | | | | 미래 2050년 | | | | |
|----------|-------|------|----|------|-------|-----------|------|----|------|-----------|
| | 매우 낮다 | <--- | 중간 | ---> | 매우 높다 | 매우 낮을 것이다 | <--- | 중간 | ---> | 매우 높을 것이다 |
| 우리나라의 위상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D 9) 다음 중, **30년 후인 2050년에 인류의 삶을 가장 위협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으로 위협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세계경제 위기
- ② 정치 불안정과 민주주의 위기
- ③ 북한 핵무기
- ④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 ⑤ 지진 등 자연재해
- ⑥ 저출산 고령화
- ⑦ 국제 정세 불안정(전쟁 등)
- ⑧ 에너지 환경문제
- ⑨ 바이러스 및 질병
- ⑩ 테러리즘(사이버 테러 포함)
- ⑪ 양극화
- ⑫ 다문화 사회갈등 심화
- ⑬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
- ⑭ 기타(적을 것: ____)

E.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사항입니다.

E 1)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
- ③ 동거
- ④ 사별
- ⑤ 이혼
- ⑥ 별거

E 2)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포함) ② 아파트
- ③ 연립·다세대 주택 ④ 기타(적을 것 : _____)

E 3)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자가(自家) ② 전세(월세 없음)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⑤ 무상

E 4) 귀하의 지난 1년 동안 세금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연간 총소득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⑤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⑦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⑨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⑩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⑪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⑫ 1,000만원 이상

E 5) 귀하의 경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 매우 어렵다 | 약간 어렵다 | 보통이다 | 약간 여유 있다 | 매우 여유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E 6)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① 안 받았음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석사 과정
- ⑦ 대학원 박사 과정



E 7) 귀하의 지난 3개월 간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③ 고용주/자영업자
- ④ 무급가족종사자
- ⑤ 일시휴직
- ⑥ 구직활동
- ⑦ 주부
- ⑧ 학생
- ⑨ 무직/퇴직
- ⑩ 기타(적을 것: _____)

(E7=1~5번 응답자만)

E 7-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관련 직종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51-9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